

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1779-01



경관보전직불제 2006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0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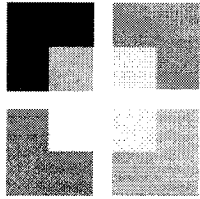
농 립 부

정 주 지원 과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 목 차 -

I. 모니터링 결과(총괄)	1
II. 하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15
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19
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26
3.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43
4.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59
5.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79
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86
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95
8.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109
9.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119
1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127
11.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138
III. 동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149
1.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153
2.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166
3.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182
4.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197
5.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206
6.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214
7.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225
8.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231
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243
10.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257
11.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272
12.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285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1. 모니터링 결과 (총괄)

농 립 부
정 주 지 원 과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결과(총괄)

1.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개요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05~'07(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안을 보완

* 경관작물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07년 연, 자운영 시범적용)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

○ '06년 사업비 : 840백만원(사업비 800(470ha), 행정경비 40)

* 지급단가 : 170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

□ '06대상지역 신청 및 선정현황

○ 9개 시·도에서 총 1,113ha 신청, 이중 유채 270ha, 메밀 169ha, 기타작물 31ha 등 470ha선정(5.18)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5.8~12)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과, 지역축제,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으로 사업홍보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집단화 규모 미 충족 지역 및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은 제외, 20ha 이상 지역은 1/2 수준으로 면적 조정

2. 모니터링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06년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 마련

□ 모니터링 시행 개요

- 기간
 - 하절기작물 모니터링 : 2006.11(1개월)
 - 동절기작물 모니터링 : 2007.4.17~26
- 조사지구
 - 하절기작물 모니터링 : 10개 시군, 15개 지구
 - 동절기작물 모니터링 : 13개 시군, 13개 지구
- 조사인원
 - 하절기작물 모니터링 : 농촌경관전문가 4명, 사업담당자 3명
 - 동절기작물 모니터링 : 농촌경관전문가 5명, 사업담당자 3명

□ 모니터링 대상지역 및 요원 선정

- 하절기작물 모니터링은 메밀, 코스모스, 들국화 등을 경관작물로 식재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하고, 동절기작물 모니터링은 유채 식재지역 12개소에 하절기작물 식재지역 1개 지구를 추가하여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참여전문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경관관련 연구자를 선정하여 사업담당자와 모니터링 실시

3. 모니터링 내용

□ 사업시행단계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대상작물범위 확대방안 검토
 - 지급방식, 지급시기, 경관조성 및 관리의 이행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 등의 타당성 검토 등
 - 시범사업의 경관작물로 선정된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외에 확대 가능한 작목에 대한 검토
 - 녹비작물의 경관효과, 지원금액, 비료대체효과 등의 검토를 통한 작물범위 확대방안 검토
-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적합성 및 확대 가능한 대상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
 - 집단화 규모 및 마을단위 지원의 적절성 검토
 - 농지 외에 도로변 토지, 임야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마을협약 작성시 주민의사 반영 방식, 농촌관광과 연계한 마을 활성화 실천활동 등 검토
 - 작물식재 후 재배관리를 위한 시비, 잡초제거, 탐방로 정비 등 활동소요 검토
- 그 밖에 대상지역 신청, 선정, 협약체결, 이행상황 점검,

보조금지급 등 시행절차 전반에 걸쳐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사업시행 효과의 개략적 분석

- 경관보전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 시행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 조사
- 경관작물재배에 의한 마을경관개선의 부가적 효과로서 관광 소득 증가효과 등 평가
 - 도시민의 호응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경관보전직불제로 인한 도시민 유인효과 등 조사
- 시행과정 및 결과가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지역활성화 효과, 다원적 기능 증진 효과, 관광 증진 효과, 산업·경제적 효과 검토
- 타 직불제와의 조화 및 농촌의 보전되어야 할 경관자원으로서 전통문화자원, 생활자원 등 확대해야할 경관 대상의 검토 등

□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관련 공무원 및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현황 및 특성,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대상지 경관의 특성 및 변화 등에 대한 문헌 및 사진 수집
-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경관작물 식재시 투입되는 비용과 수확처리 후 수익에 대한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과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동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시범사업 이후에 동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황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방안을 모색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한 대 비농업부문 설득·홍보 자료 제공 및 향후 농정 추진의 대안으로 활용

4. 모니터링 결과(총괄)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지급시기 등

- 대부분 현행 지급단가(170만원/ha)는 낮으며, 쌀생산조정제 직불금(300만원/ha) 수준으로의 인상 요구
 - 대규모 참여 농가는 기계화작업에 의한 인건비 등의 감소로 어느 정도 만족하나, 소규모 참여농가는 지급단가 상향 조정 의견
- 동절기작물과 하절기작물을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과 경관작물재배 이행에 따른 지급방안 등 직불금 지급방식의 개선필요
 - 경관작물의 개화상태가 불량해도 성실한 재배관리를 이행했다면 재배관리노력을 인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조건의 명시화에 대한 요구
- 직불금이 사업완료 후 집행되어 경관작물의 식재·재배 등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
 - 경관작물 파종직후 50%, 완료 후 50%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 현재 2회까지 가능한 직불금을 3회까지 지원 요망
- * 고창군 공음면의 경우 봄의 청보리와 가을 메밀 사이 비수기의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해바라기 식재 고려
-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효석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경관작물 식재,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위원회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관작물의 확대방안

- 대부분 메밀, 유채를 식재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경관작물 재배 유도 필요
 - 지자체별로 자생식물 등 특색 있는 작물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과, 현재의 지원 가능한 작목 나열 방식 (Positive방식)에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작목을 제한 (Negative방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부분적으로 방문객의 수확체험이 가능한 옥수수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고창군 공음면의 경우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된 곳이므로 예외적으로 청보리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지역의 자생식물이나 지역적 차별화가 가능한 작물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검토·개발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화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관보전직불제에 녹비작물을 도입하는 방안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녹비효과 달성이라는 목적이 우선이고, 경관작물 감상

기간도 짧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 시에는 기존의 경관작물과 지원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대상지 선정의 적합성 및 집단화 규모

- 대부분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등 대상지 선정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참자가 발생하기도 함
- 산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행 집단화 기준(최소 1ha 이상, 마을별 3ha 이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최소 600평(0.2ha) 이상, 마을별 2ha 이상으로 완화하고,
 - 계곡이나 하천으로 나뉘는 경우라도 시각적인 연속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변경 요망
 -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형적 특성으로 집단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농지가 적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며, 마을주변의 경관작물식재를 통한 축제와의 연계 및 내방객들에 대한 접근성 증가를 위해서 집단화 면적기준의 완화 요망

□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축제행사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메밀을 경작·관리
- 경관작물 파종시기를 2~3차례로 나누어 식재함으로써, 개화기간을 길게 하여 경관조성효과를 높임
- 경관작물식재 이외에 마을주변의 경관자원관리와 마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도입

하여 체계적으로 농촌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관작물 외에도 다양한 경관연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민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물재배를 통하여 경관조성 및 유지를 하는 농지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 고유의 경관, 전통문화 자원, 농촌생활경관 등 농촌경관 구성요소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

□ 사업시행효과의 분석

-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 중 57만명 방문, 총 230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기간 중 20만명 방문, 부안면은 국화꽃축제기간 중 15만명이 방문, 총 35억원의 지역소득 효과 발생
- * 부안면 송현리 축제기간 중 농산물 판매소득액 : 5천만원
- 효석문화제와 연계·추진된 봉평면의 경우 공동으로 진행하여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기여
- 홍성군 서부면의 경우 염해지로서 그간 불모지 상태로 미관을 저해하였으나, 염해에 강한 코스모스와 유채를 식재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연중 마을경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

- 외지인들의 방문을 고려하여 주변환경 조성 등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농촌경관개선에 가시적인 효과
 -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도 대부분 마을의 경관조성효과에 크게 만족
- 방문객 관광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 지원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고창군 부안면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마을가꾸기에 적극 참여
 - 총 40가구 중 23가구 참여, '07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참여 예정
- * 타 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도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유지 또는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참 고 1>

모니터링 대상지구 및 조사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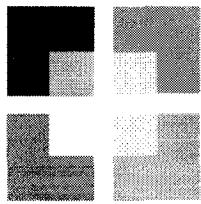
구 분	도	군	위 치		면 적 (㎡)	경관작물	전문가
			읍면	리동			
하절기 작물 (06.11)	7	10	15 지구		1,924,827		4명
	경기	양평군	단월	삼가	52,395	야 생 화	윤진옥 박사 (한국농촌공사)
	강원	평창군	봉평	창동 등	193,764	메 밀	
		평창군	봉평	원길 1	49,209	메 밀	
		평창군	봉평	원길 2	37,811	메 밀	
		평창군	봉평	창동	75,688	메 밀	
		평창군	봉평	백옥포	70,589	메 밀	
	충북	청원군	낭성	추정	40,245	메 밀	김은순 교수 (충남대학교)
	충남	홍성군	서부	궁	69,175	코스모스	
	전북	고창군	공음	선동	616,555	메 밀	박경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창군	부안	송현	77,335	들 국 화	
	경북	봉화군	소천	임기	180,000	메 밀	엄대호 박사 (농어촌연구원)
		안동시	북후	신전	124,429	메 밀	
		영양군	수비	수화	112,699	메 밀	
	경남	하동군	북천	직전	115,845	메 밀 코스모스	
함양군		백전	오천	109,088	하 고 초		
동절기 작물 (07.4)	8	13	13		1,823,977		5명
	강원	평창군	봉평	창동 등	211,147	메 밀	윤진옥 박사 (한국농촌공사)
		원주시	부론	홍호	78,140	유 채	
	제주	제주시	우도	서광	470,000	유 채	
	충북	옥천군	청성	산계	230,000	유 채	박경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	홍성군	서부	궁	71,587	유 채	
	경북	포항시	구룡포	성동	61,399	유 채	엄대호 박사 (농어촌연구원)
		고령군	쌍림	산주	52,628	유 채	
	경남	산청군	단성	남사	54,360	유 채	
	경남	남해군	상주	두모	52,000	유 채 (메 밀)	
	전북	남원시	사매	서도	110,659	유 채	김상범 박사 (농촌진흥청)
	전남	나주시	공산	신곡	230,000	유 채	
		장흥군	회진	산저	93,782	유 채	
전남	영광군	불갑	모악	108,275	유 채	임창영 박사 (농어촌연구원)	

<참 고 2>

'06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세부내역

도별	위 치			참여 농가	선정면적 (㎡)	2006년 예산 (천원)	비 고 (경관작물)
전국	44			751	4,705,883	800,000	
경기	1			1	52,395	8,907	
	양평	단월	삼가	1	52,395	8,907	야생화 등
강원	6			41	525,225	89,288	
	평창	봉평	창동, 원길, 무이	4	211,247	35,912	메 밀
	평창	봉평	창동	7	76,622	13,026	메 밀
	평창	용평	백옥포3	10	72,196	12,273	메 밀
	평창	봉평	원길1	6	49,209	8,366	메 밀
	평창	봉평	원길2	3	37,811	6,428	메 밀
	원주	부론	홍호1	11	78,140	13,284	유 채
충북	2			46	270,245	45,942	
	청원	낭성	추정	6	40,245	6,842	메밀, 연백초
	옥천	청성	산계	40	230,000	39,100	유 채
충남	3			12	205,528	34,940	
	금산	제원	명곡	4	62,354	10,600	유 채
	홍성	서부	궁	4	71,587	12,170	유 채
	홍성	서부	궁	4	71,587	12,170	코스모스
전북	4			69	932,035	158,446	
	고창	공음	선동	7	616,555	104,814	메 밀
	고창	부안	송현	25	77,335	13,147	들 국 화
	남원	사매	서도	17	110,659	18,812	유 채
	부안	하서	청호	20	127,486	21,673	유 채

도별	위 치			참여 농가	선정면적 (㎡)	2006년 예산 (천원)	비 고 (경관작물)
전남	12			228	1,082,920	184,096	
	신안	지도	내양	22	120,000	20,400	유 채
	구례	광의	방광	16	50,452	8,577	유 채
	장흥	회진	산저	27	93,782	15,943	유 채
	해남	북평	동해	11	50,646	8,610	유 채
	나주	다시	신광	12	62,606	10,643	유 채
	순천	안풍	안지	8	100,000	17,000	유 채
	강진	칠량	봉황	15	100,000	17,000	유 채
	함평	해보	상곡	8	32,149	5,465	유 채
	나주	공산	신곡	28	230,000	39,100	유 채
	장흥	회진	덕산	48	68,718	11,682	유 채
	강진	작천	용상	12	66,292	11,270	유 채
	영광	불갑	모악	21	108,275	18,407	유 채
경북	8			127	702,630	119,447	
	안동	북후	신전	39	130,000	22,100	메 밀
	봉화	소천	임기	12	180,000	30,600	메 밀
	포항	구룡포	성동	8	61,399	10,438	유 채
	포항	대보	대보	11	97,427	16,563	유 채
	고령	쌍림	산주	16	52,628	8,947	유 채
	예천	용궁	대은2	6	32,792	5,575	유 채
	영양	수비	수하2	23	112,562	19,136	메 밀
	고령	쌍림	합가	12	35,822	6,090	유 채
경남	7			152	464,905	79,034	
	남해	상주	양아	32	52,274	8,887	메 밀
	남해	상주	양아	32	52,274	8,887	유 채
	하동	북천	직전	26	115,845	19,694	메밀, 코스모스
	함양	백전	오천	13	109,088	18,545	하 고 초
	산청	단성	남사	16	54,360	9,241	유 채
	의령	궁유	평촌	22	36,151	6,146	유 채
	고성	하일	학림	11	44,913	7,635	유 채
제주	1			75	470,000	79,900	
	북제주	우도	서광	75	470,000	79,900	유 채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II. 하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원길·무이·백옥포리
3.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4.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5.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8.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9.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화리
1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1.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원길·무이·백옥포리 -

2006. 11.

한 국 농 촌 공 사
운 진 옥

여 백

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 참여자수 : 1인
- 참여면적 : 52,395m²
- 경관작물 : 원추리, 구절초, 옥잠화, 꽃창포, 부채붓꽃, 도라지 등

경관작물 식재현황

- 다년생 야생화 6종 식재
 - 구절초 : 19,518m²
 - 원추리 : 9,976m²
 - 꽃창포 : 7,830m²
 - 옥잠화 : 6,775m²
 - 부채붓꽃, 도라지, 산국, 벌개미취 : 8,296m²
- 식재방법: 수작업에 의한 삽목 및 분얼식재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현재 지자체의 추가지원은 없음.
- 사업대상지는 삼가리이나, 이웃마을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봉상2리와 야생화단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언 지도하는 정도임.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연계하고자 함.
 - 야생화의 특성상 식재 후 곧바로 소득을 얻는 작물이 아니어서, '05년부터 '06년 현재까지는 야생화단지 조성에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상지와 연계하여 현재 15평 규모의 돔하우스 1개동을 짓는 등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음.
 - 아직은 단지 조성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어서 적극 홍보를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된 도시민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은 편임.
 - 단지내의 펜션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이 야생화 경관과 어울리는 음식과 숙박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음(현재 4개 동의 펜션과 음식점은 사업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음).
 - 단지 내에 음식점을 새로 신축하여 마을부녀회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임.
- 경관조성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의 소득화 기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음.
 - 마을 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인근 식당의 매출이 오르고 농산물 판매 등의 부가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마을 주민들이 야생화단지 작업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호의를 보임.
 - 야생화단지와 연계하여 마을입구에 '임산물직판장' 설치를 양평군 후계자들과 공동으로 신청하였고, 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함.

2) 면담 내용

사업추진 주민 의견

- 경관직불제로 지원되는 단가는 특히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야생화를 작목으로 선택한 농가의 경우 투자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야생화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제초를 해야 하고 수시로 보식을 하는 등 추가적인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도움이 됨(해당면적의 재배관리에 든 인건비만 '06년에 1,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음).
- '06년까지는 계속해서 투자만 해 왔고, '06년에 서울의 어린이 단체 방문객만 400여 명 대상지를 방문하였으나 야생화 감상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직 없어 뚜렷한 소득은 없었음.
- '07년도에는 대상지내 야생화 일부(산국, 원추리, 부채붓꽃, 옥잠화)를 분양키로 하여 약 1,000만원 정도의 분양소득을 기대하고 있음.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직불제 사업시행으로 농촌경관을 잘 가꾸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와 연계해 농가의 경제적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양평군은 산세가 험악하여 경관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이 많지 않고 현행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사업시행이 농가 소득보전에 더 큰 목적을 두는 것이라면 집단화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임.
- 지금 단가가 다른 직불제에 비해 낮아 전작 수준의 단가를 맞춰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것임.

3) 사업시행 효과

농가소득 향상효과

- 야생화 단지와 같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경우 아직 뚜렷한 소득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야생화가 다년생이고 뿌리가 번식해 감에 따라 포기나누기 등의 분양이 가능하므로 다른 작물에 비해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음.
- 야생화를 감상하러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지역 농산물 판매, 음식 판매 등을 통해 부가적 소득이 창출되고 있음.

경관조성 효과

- 경관조성 현황 : 관련 현황사진 덧붙임
- 경관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대부분이 농업작물 위주인데 비해 본 대상지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특이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음.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제도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고 마을가꾸기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
 - '06년도에는 마을주민들과 사업참여자가 공동으로 마을입구에서 대상지까지의 길 가에 화단이나 화목을 식재할 것을 의견수렴한 상태임.
- 이웃 마을인 봉상2리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사업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야생화 등을 경관작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현행 지급단가는 경관조성 비용에 부족하지만, 사업시행의 취지가 농지보전과 경관조성에 따른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단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조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지급을 일부 요구하기도 하나, 성실한 재배관리의 성과 측면에서 사업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정, 재배관리에 대한 평가, 보조금 지급 등 일련의 절차가 보조금 지급수준에 비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 신청서류의 간소화 등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양평군 내에 수령이 오래된 산수유 군락지가 많고 보존가치가 있으나 농가의 입장에서는 산수유의 수확가격이 낮아 베어버리고 있는데, 일년생 작물 또는 초화류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확대하여 다년생 화목이나 유실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관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석산리, 연수리 등에 돌담 또는 흙담이 일부 남아있는데 사라지기 전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관련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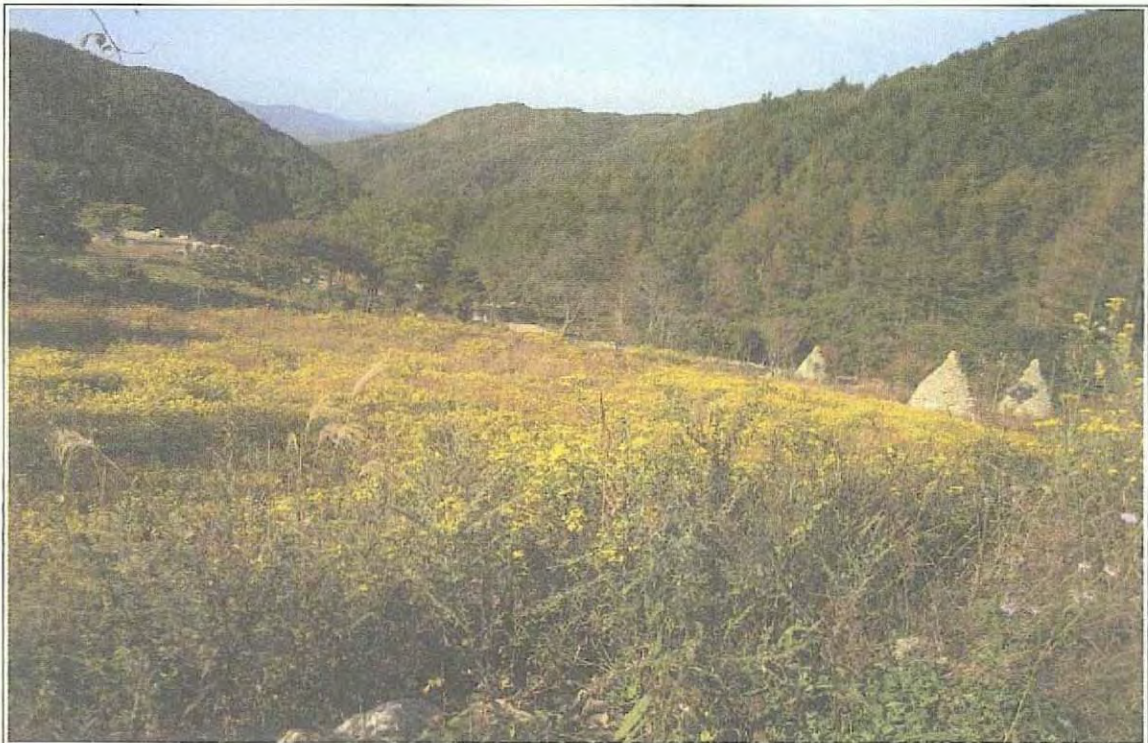
원추리의 만개 모습



옥잠화 식재 모습



꽃창포



산국이 일부 개화한 모습

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원길·무이·백옥포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5개 지구)

가) 창동·원길·무이리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원길·무이리
- 신청자수 : 4인(4농가 참여)
- 참여면적 : 193,764m²
- 경관작물 : 메밀

나) 원길 1리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 1리
- 신청자수 : 3인(3농가 참여)
- 참여면적 : 49,209m²
- 경관작물 : 메밀

다) 원길 2리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 2리
- 신청자수 : 3인(3농가 참여)
- 참여면적 : 37,811m²
- 경관작물 : 메밀

라) 창동리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 신청자수 : 6인(6농가 참여)
- 참여면적 : 75,688m²
- 경관작물 : 메밀

마) 백옥포 3리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 3리
- 신청자수 : 10인(10농가 참여)
- 참여면적 : 70,589m²
- 경관작물 : 메밀

사업시행 점검결과

- 평창군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지구의 경관작물 식재여부 및 성실한 재배관리 여부에 대해, 2회(1차: 9월 25일, 2차: 10월 25일)의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메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식재하거나 메밀의 재배관리가 불성실한 면적 등의 미식재된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표 1 참고).

<표 1> 평창군 봉평면 5개 대상지구 협약이행 점검결과

대상지구	협약체결면적	점검결과	
		협약이행면적	미식재면적
창동·무이·원길	211,247m ²	193,764m ²	17,483m ²
원길1	49,209m ²	49,209m ²	-
원길2	37,811m ²	37,811m ²	-
창동	76,622m ²	75,688m ²	934m ²
백옥포3	72,196m ²	70,589m ²	1,607m ²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작 물 : 메밀
- 파종방법 : 기계로 산파
- 파종 및 개화시기
 - 7월 30일경 파종하였으나 파종 후 내린 폭우로 인해 평창군 전 지역 특히 농지에 수해가 컸으며, 따라서 8월 초~중순에 재파종을 하였음.
 - 효석문화제 관련 대상지구인 메밀꽃단지(창동·무이·원길리, 약 6만평)의 경우 8월 5일~7일에 1차 파종하였으며, 고온건조로 인한 제초제 피해가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8월 10일~12일경에 2차 파종을 하였음.
 - 만개상태의 메밀꽃 개화기간은 8월 말 ~ 9월 중순(약 20일간)이었으며, 이에 맞춰 시행된 효석문화제 축제는 9월 8일~9월 17일 까지였음.
- 파 종 량 : 6~8kg/300평
 - 5개 지구 대상지 전체에 약 30,000~25,000kg 을 파종함.
 - 효석문화제위원회에서 직접 재배관리한 메밀꽃단지(창동·무이·원길리, 약 6만평)에만 약 12,000kg를 파종하였음.
- 수 확 량 : 150~180kg/300평
 - 메밀의 경우 파종량의 30배 정도를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임.
 - 5개 대상지구 전체의 '06년 수확량이 약 35톤인 것으로 추산함.
 - 백옥포리의 경우 06년 신규로 신청한 지역인데다 주민들이 시비 활동 등의 적극적 경작을 함으로써 메밀꽃의 개화 상태가 매우 좋았으며, 수확량에 있어서도 면내 다른 대상지에 비해 높은 양인 200kg/300평 이상의 메밀을 수확하였음.

- 이에 비해 창동리는 2년 연속 신청한 지역으로서 60kg/300평의 비교적 적은 수확을 하였음.
- 창동리의 경우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수확된 것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가로등 불빛에 의한 결실피해 및 연작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수확물 판매
 - 봉평면 지역에서 수확된 메밀은 '봉평메밀F&B영농조합법인'과 봉평농협에서 4,000원/kg에 전량 수매되고 있음.
 - 메밀의 수매가격이 봉평농협을 통해 2,500원/kg으로 거래되다가 봉평메밀F&B영농조합법인이 4,000원/kg으로 수매하자, 봉평농협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를 하게 되었음.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직불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봉평지역에서는 메밀밭을 축제화한 효석문화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메밀꽃단지육성사업으로 평당 1,5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06년의 경우 효석문화제위원회가 관할한 메밀꽃단지에 보조금이 지급된 면적은 약 9만여 평으로, 이 중 6만여 평은 문화제위원회에서 직접 재배관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3만여 평은 개별 참여농가가 재배관리활동을 하였음.
- 지자체에서는 효석문화제와 관련하여 1억 5천만원의 행사비와 메밀꽃단지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합해, 약 2억 8천만원의 추가 지원을 하였음.

주민활동 내용

-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청년회 등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을 조직하여 주차 및 교통정리, 음식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함.
- 메밀꽃밭 주변 경관을 가꾸기 위해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의 초화류를 식재하고, 논두렁의 제초활동, 마을 및 도로 청소 활동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함.
- 특히 지역주민이 주축인 봉평메밀F&B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메밀 수매가격 형성, 메밀소재의 가공품 개발 및 브랜드화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관작물 재배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

효석문화제위원회의 경관직불제 참여 내용

- 지자체에서 효석문화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메밀꽃단지의 면적은 6만여 평이며, 경관직불제 시행 후 효석문화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면적을 늘려 '06년 현재 9만여 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문화제위원회가 직접 재배관리하는 6만여 평의 메밀꽃단지 면적에 대해서는 평당 1,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추가로 확대한 3만여 평의 면적은 개별농가가 재배관리하며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조금 전액인 평당 1,500원을 그대로 지급함.
- 효석문화제의 동일한 영향권에 포함되는 봉평면 내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효석문화제와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금액(평당 1,500원)과 새로 시행된 경관직불제 보조금(평당 560원)의 차이에 따라, 참여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 메밀꽃단지 면적 중 3만여 평에 '포토존(photo zone)'을 '06년에 조성하여 방문객 체험을 프로그램화 하였음.
- 포토존은 자연경관존과 체험존으로 구성되었으며, 메밀꽃밭을 감상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 외에도 봉숭아물들이기, 옛날복장 갈아입기, 메밀차 시음회, 소설속 조형물 감상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와 같은 활동을 제공하는 포토존은 2,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이고, 이 포토존과 문학관 관람까지 포함한 이용료는 3,000원이었음.
- '06년 시행한 포토존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으로서, 하나는 방문객들이 경관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해 불만을 효석문화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한 것임.
- 또 하나는 포토존의 입장료 수입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포토존 설치에 참여한 외부업체가 입장료 수입 전액을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점에서, 경관 조성하느라 노력한 주민들을 무색케 하였다는 내부적 비난이 많았음.
- 포토존 설치에 효석문화제위원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인데, 방문객들에게 프로그램화된 체험 제공과 방문객들의 진입으로 인해 축제를 시작한 지 단 며칠 내에 망가지는 메밀밭의 손상을 통제하고자 시도한 것이었음.
- 포토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외부의 반발에 대해 문화제 위원회에서는 방문객 및 주민들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07년도에 포토존 운영방법 또는 시행 여부에 대해 재검토 하는 중임.
- 효석문화제위원회는 200여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조직임.

2) 면담 내용

사업추진 주민 의견

- 메밀재배는 노동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 생산원가가 평당 500원 정도이므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에 의해 평당 560원(17만원/300평)의 지원을 받는 것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됨.
- 동일한 작물의 식재시에도 연중 2~3회의 경작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 되었으면 함.
- 메밀꽃으로 알려진 봉평의 경우, 연중 1회의 축제기간 뿐 아니라 외부관광객들에게 연중 수차례의 경관감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2모작 이상의 메밀재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작물이 다른 경우에만 2회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을 동일 작물의 2모작 시에도 지원해 주었으면 함.
- 메밀을 단순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시설의 업그레이드 및 가공산업 육성이 더 중요하며, 따라서 메밀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메밀 생산이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메밀재배 면적이 지금보다 2배 정도인 30만평 이상의 면적에서 연간 생산량이 50톤 이상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마을 주민들 간에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자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지원단가가 낮음. 지원단가와 수매단가를 합한 금액이 최소한 전작 단가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 농가에 실질 소득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평당 1,000원 정도는 되어야 함.

- 보조금의 지급수준에 비해 사업 신청시 확인서류가 많은데다(신청서, 지적도, 필지별조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 도에 신청하여 협약체결한 후 공고,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적지 않고, 사업신청이 많은 지역이나 집단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여러 농가의 개별필지를 다루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더욱 가중되어 담당자가 사업시행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
- 봉평면의 경우 재배면적 선정 시 마을단위 보다는 면단위로 지원 되었으면 함. 대신 축제지역 반경 〇〇km 이내로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적 장치를 하면 될 것임.
- 시범사업 기간이긴 하나 선정면적이 신청면적에 비해 적어,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불만이 높으므로 사업면적의 대폭 확대가 필요함.

3) 사업시행 효과

농가소득 향상효과

- 봉평면 일대의 메밀 수매 가격은 kg당 4,000원으로서 기간 내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은 편임.
- 관광객에 의한 간접적 소득 효과가 있음.
 - '06년 메밀꽃 축제 기간 동안(10일, 9월 8일~17일) 집계된 방문객은 75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축제 전후 한달간 방문객은 100만 명으로 집계되었음(집계기준: 면온IC 및 장평IC 출입 차량).
 - 방문객 1인당 1만원 정도의 소비를 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약 1백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지역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증대에 기여함.

- 메밀꽃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민 관광객 증대로 인해 효석 문화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봉평면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경관직불제 시행에 따라 메밀꽃 재배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봉평면 일대의 경관이 특색있게 가꾸어지고 있음.
- 메밀꽃밭이 형성하는 경관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입구 및 도로의 청소나 꽃밭 조성을 함으로써, 대상지역 일대의 환경이 아름답게 가꾸어짐.
- 경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변 하천이나 농지에 폐비닐, 쓰레기 등의 방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짐.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메밀꽃 축제를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 개화기를 고려한 파종이나 재배관리 등을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작업해야 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경관직불제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메밀 재배면적이 대폭 확대되었고, 봉평면의 특화산업을 메밀로써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음.
- 경관직불제에 의해 메밀재배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작물생산을 소득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한 마을주민들 간의 회의가 잦아지고, 따라서 함께 협력해 나가려는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메밀을 경관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평당 560원의 보조금 지원이 생산원가 정도의 수준이기는 해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의 주요 목적이 농지의 보전과 경관조성에 의한 지역 활성화 효과에 있으나, 농촌 주민들은 제도 참여를 실질소득 차원에서 보고 있어 지급단가에 대해서는 전작 수준이 되거나 평당 1,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따라서 적정 단가의 검토가 필요함.
- 적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자칫 재배농지의 관리 소홀이나 특정작물의 전국화를 초래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의 부담금도 커진다는 점도 지급단가 검토시 고려해야 할 것임.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봉평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이 자생적으로 조직화 하여 메밀의 식재 및 관리, 축제행사와의 연계를 주도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 농업과 경관조성, 축제, 관광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고 있어 사업대상으로 적합한 지역임.
- 메밀꽃단지조성육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인 경관보전직불제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에 대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면적확대를 해야 함.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제도의 시행지침에 소개된 작물 외에도 지자체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자생식물 등의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작물선정이 가능함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보다는 지자체의 홍보노력이 더 필요하고 다양한 경관작물 재배사례에 대한 중앙정부의 홍보지원도 필요함.

경관작물 외에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 자원

-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에 대해 농촌 주민들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경관작물 식재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조속히 경관직불제의 대상 확대 또는 작물 한정에 적합한 용어의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마을 내 희귀 수목 또는 수령이 오래된 수목, 전통 들담, 다랭이논의 유지보전이나 전통적 영농방식의 보전 등에 대해서도 경관협약에 의한 경관직불제의 지원 검토가 필요함.

대상지 신청 및 선정절차 등 개선방안

- 대상지 신청 및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지급의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 절차상의 간소화가 고려되어야 함.
-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는 현행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5) 관련 현장사진



봉평지역의메밀밭에꽃이 만개한 모습



무이리 예술관 앞의 메밀꽃이 만개한 모습



포토존 내에서 경관 감상 및 사진 촬영을 하는 방문객들



메밀밭에서 나귀를 몰아보는 어린이들



포토존 내에서 옛날복장갈아입기 체험을 하는 모습



효석선생생가 및 뒤편 언덕의 메밀밭 전경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

2006. 11.

충남대학교
김은순

여 백

3.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1) 목적 및 필요성

-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 1리 경관보전직불제(메밀)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행효과 등을 모니터링 하여 동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2) 청원군 경관보전직불제 '06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1리
- 대상면적 : 40,245㎡ (논: 1,041㎡, 밭: 39,204㎡)
 - 경관작물 식재상황 : 메밀
 - 사업비 : 6,841,650원 (국비: 70%, 지방비: 30%)
- 대상농지 :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330외 13필지(답, 전 등)
- 참가자수 : 대표자 김대립 외 5인 공동경작(총 6인)
- 사업기간 : 1년 ('06.06.01~ '06.11.30)
- 경관작물 : 메밀
- 지급단가 : 170만원/ha
- 도·농 교류 연계계획
 - 메밀꽃 토종꿀 축제개최
 - 사진 찍기 및 생태체험기회 제공
 - 추후 영화촬영 간이세트장으로 발전
 - 황토방 및 통나무집을 지어 체류형 고객유치

청원군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역 입지

- 충북 청주에 인접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남북도 등 서부권에서 속리산국립공원을 가기위해 지나가는 34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 추정리는 총 172세대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지면적을 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밭과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로 구성됨.
- 속리산국립공원과 약 1시간 거리이며, 인근에 대청호, 청남대 등의 휴양지가 있고 초정약수로 유명한 초정리가 인근에 위치함.
- 추정리 인근에는 낭추골쌀매장, 위락시설, 과수원, 양어장, 농특산물 재배지역(복분자, 토종꿀 등) 등 농촌관광마을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 대상농지는 크게 2개단위로 구분되는데, 3ha 내외의 1단위는 마을 뒷산 계곡을 따라서 산중턱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한 단위는 추정리 마을안쪽에 위치하고 있음.

○ 대상면적 및 식재작물

- 대상면적은 4.02ha(약 12,000평)이며 메밀(붉은 메밀, 흰 메밀)을 식재하였음.
- 메밀은 7월경 파종하여 10월경 만개하고 11월초에 수확함.

○ 대상농지의 소유

- 대상지역은 지목상 답, 전, 임야 등 다양하며, 산 계곡중턱부터 산 아래까지 위치하고 있어 주로 전작을 하고 있는 지구임.
- 총 14필지로 총6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직불제에 실제로 참여하는 공동경작자 6인이 모두 소유하고 있음.
- 각자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며 각자 직불금을 지급받고 있음.
- 토지소유자 6명은 추정리 주민이며 전작과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전 대상농지 이용 상황
 - 토종꿀 생산을 위해 약 7년 전부터 대상농지 중 일부(6000천평)는 메밀을 계속 재배해 왔음.
 - 대상농지 중 1/3정도는 경사지로 휴경하였음.
 - 나머지는 주로 밭작물(울무, 고추, 콩, 옥수수 등)을 자가소비하기 위해 재배하였음.
 - 밭작물의 소득이 적어 농외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기도 함.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선정과정
 - 군지에 실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홍보를 보고 신청하게 됨.
 - 지역선정은 청원군청에서 충북도청을 통해 농림부에 추천·선정됨.
 - 충북도청과 청원군청이 인접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군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임.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경위
 - 토종꿀 생산이 주업인 추진위원장이 밀원확보를 하면서 꽃이 아름답고 토종꿀 생산이 가능한 식물재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게 됨.
 - 2005년 군지에 실린 경관보전보전직불제 사업홍보를 보고 참여하게됨.
 - 마을에서 주로 재배되는 울무보다는 메밀이 경관작물로 직불금지급도 있고, 메밀을 수확하여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권장함.
 - 마을 주민 대부분이 경관작물재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금년의 경우 참여 농가가 적었고, 추진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참여자의 참여농지면적 역시 적었음.
 - 추진위원장(젊은 사람)이 협조를 부탁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반신반의하면서 참여하게 되었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유농지 중 일부만 참여함.
 -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일치하면서 임차료, 토지사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자 개황
 - 총 4.02ha의 대상농지는 토지소유자가 각자의 농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경작되고 있음.
 - 추진위원장이 가장 큰 면적을 경작하고 나머지 참여자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이해부족과 위험성 회피를 위해 약간의 농지만 참여함.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농가는 모두 추성리에 거주하며 전업농과 비전업농으로 이루어져 있음.
 - 추진위원장(30대 후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50대 후반임.
 - 경작자중 1인(추진위원장)은 밭 1만여 평을 소유·경작하고 있으며, 주 소득원은 토종꿀 생산으로 밀원확보를 위한 메밀재배를 하고 있음.
 - 나머지 참여자는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으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경관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려고 함.
 - 2007년의 경우 이미 마을 협의를 거쳐 참여농가가 13호로 증가하고 참여면적도 약 10ha정도로 증대할 계획에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예산 및 집행
 - 2006년 11월초 까지 국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급된 국비와 도·군비를 합하여 직불제 참여자에게 전액 집행하였음.
 - 11월말 현재 총 직불금의 100%가 각 참여농가에 지급됨.

'06년도 경관보전작물 식재현황

- 메밀 식재와 수확 (그림1~4)
 - 8월 메밀 파종
 - 10월 메밀 개화
 - 11월 초 메밀 수확
 - 현재 메밀을 수확하고 있으며, 이듬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른 작물을 식재하려고 함.

□ 지자체의 추가지원 현황

- 2007년 추정리 일대 10ha 면적에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청원군의 경우 동절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충북도에서 해바라기 단지 조성 및 경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바라기처럼 일모작만 가능한 경우 ha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이모작이 가능한 경관작물 식재 시 경관보전직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예정임.
 - 충북도 확정사업은 아니지만 구체인 사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마을단위의 공동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투입 시 인건비를 받고 경관작물의 파종, 잡초관리, 경운, 수확, 제초 등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에 대한 호응은 높으며, 2007년 참여농가 수와 참여면적이 증대될 예정임.

□ 경관보전작물 식재를 위한 자재 및 노동력 투입상황

- 자재 및 노동력 투입내역
 - 자가 노력비 및 자기 농기계 임대시 비용환산
 - 매밀 종자대
 - 파종 : 살포기, 동력분무기, 트랙터 부착 장비 등 이용.
 - 경운
 - 포크레인 작업 : 트랙터로 경운이 어려운 지역 작업
 - 경관작물의 전반적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
 - 수확 : 금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수확을 했으나 내년은 수확기를 이용해 수확 예정임.
- ※ 경관직불제 직불금은 자재비용 및 외부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작자의 노동투입비 수준임.

3)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추성리 주민의견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주민의견

○ 대상지 비경작 주민의견

- 대상지를 소유하지도 경작하지도 않는 마을주민들의 경우 모두 만족하고 좋다고 함.
- 금년 사업결과를 보니 수익성이 있어 보여 2007년에 참여하려고 함.
-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추진위원장이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서 경관보전제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마을이 발전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 대상지 경작 주민의견

- 추진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추천해서 경관보전제에 참여하게 됨.
- 경작자 소유의 토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재배면적에 의한 경관보전직불금을 분배하고 있어 갈등소지는 없음.
- 금년 재배한 메밀의 경우 기존에 재배하던 콩, 옥수수 등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고 소득도 높아 처음 재배하지만 어렵지 않았음.
- 농민 입장에서 경관작물 재배가 농가소득과 직접연관이 되어야 하며, 경관만을 고려한 경관작물 재배는 무의미 함, 예를 들어 코스모스처럼 작물소득이 없는 경우 직불금만 고려해서 재배하지 않을 것임.
- 단순히 관광을 고려한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소득이 적지만,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이 지급되고, 메밀을 수확해 판매할 수 있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농가가 경관보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경관보전직불금이 지원된다고 하여도 직불금 수준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충당하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되는 부분은 메밀의 판매수익임.

- 금년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농지가 대로변과 떨어져 마을 안쪽에 위치하였으나 2007년에 참여농지가 증가하면서 대로변에서 부터 연결·경작하게 됨.
- 아울러, 2006년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농지에 접근하려면 마을을 관통 해야하는 불편함과 비포장도로로 도로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2007년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와 협의하여 마을을 관통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외각도로(구도로)를 재정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협의하였음.
- 경관(꽃)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지역특산물(청원 생명쌀, 토종꿀, 복분자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경관작물재배가 성공적이면 추후에 수확물(메밀, 종자 등) 가공시설 설립도 고려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대상 작물이 아니더라도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작물 소득인 경우 직불금과 관계없이 재배를 고려하고 있음.
-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작물소득이 높은 작물은 메밀(54만원/300평), 베니다테(100~150만원/300평), 무 장아리(100~150만원/300평), 배추 장아리(100만원/300평), 당귀(약 꿀), 구절초(토종꿀, 차), 찔레 (토종꿀) 등이 있음.
- 내년 봄 경관작물로 무 장아리를 심기로 하였으며, 이미 종묘회사와 계약을 완료하였음(22,000원/1kg), 가을 경관작물은 메밀을 식재할 예정임.
- “곶섬농법”이 필요함. 경관작물을 재배하면서 경관개선 및 경관 보전직불제에 의한 직불금 지급, 농촌관광과 연계한 관광수입(지역 특산물 판매,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작물수확에 따른 농가소득 등 세 가지 농가소득증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함.
- 경관작물 재배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미리 홍보할 경우 관광객이 실망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TV매스컴(6시 내고향, ‘무한지대Q’, KTV)을 보고 찾아온 관광객이 많았음.

- 관광객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경관작물재배 사업을 확대해 간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봄.
- 추성리를 농촌관광단지화 할 계획이며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위락시설(식당, 민박, 황토방 등) 운영권을 부여하고, 농외관광소득은 마을에 환원하여 마을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지자체의견

○ 지자체 담당자의견

- 충북도와 청원군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음.
- 충북도에서 보기에 추성리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어 다각적인 지원 및 도차원의 추가 사업을 고려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경관작물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단가가 상향되어야 된다고 봄.
- 직불금의 지급시기가 조정되고, 1회에 지급할 수 있어야 농가에서 느끼는 직불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4) 경관보전직불제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 공동경작자

- 경관보전직불금은 인건비, 자재비 수준이며,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메밀 수확에 기대하고 있음.
- 금년 강원도 도토리 작황이 좋지 않아 메밀에 대한 판로는 확실함. 2006년 메밀 1가마에 27만원 수준임. 2006년 참여농가들의 경우 300평(단보)당 평균 메밀 2가마를 수확하고 있음.
- 매스컴을 통해 관광객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농산물직거래 판매장, 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광객에 의한 소득증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농가의 경우 토종꿀을 생산하고 있는데, 2006년 메밀 재배로 밀원이 확보되면서 토종꿀 생산량이 약 2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06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에 따른 기대소득

성명	대상면적(평)	경관작물 식재현황	소득구분	소득예상금액 (직불금 포함전)	경관보전 직불금
김대립	10,195	붉은 메밀	토종꿀, 메밀	약 4,500만원	5,729,170원
김정기	563	흰 메밀	메밀	약 100만원	316,370원
정한영	303	흰 메밀	메밀	약 55만원	170,340원
임영희	496	흰 메밀	메밀	약 90만원	278,800원
조종옥	315	흰 메밀	토종꿀, 메밀	약 57만원	176,970원
노병이	333	흰 메밀	메밀	약 60만원	170,000원
합계	12,215			약 4,862만원	6,841,650원

※ 밀원확보에 의한 토종꿀 생산증가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추가 산정시 소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경관보전직불제 비참여 농가의 소득에 기여는 거의 없음.
 - 2006년 관광객이 늘었지만 농산물직거래 등에 의한 관광수입은 거의 없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경관조성 효과
 - 경관조성에 대해 마을주민 및 경작자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마을 경관이 좋아지면서 관광객도 좋아하고 관광객 수도 늘고 있음.
 - 휴경지였던 대상농지가 관리되고 경관이 좋아지고 있음.
- 농촌 어메니티 증진(지역축제와 연계)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 후 농촌어메니티는 증대되었음.
 - 농촌경관개선 후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어메니티증진이 농촌소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마을 자체의 지역축제에 대한 구상은 없음.

- 경관작물재배가 성공적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을 주고,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경관스파', '경관클러스터' 등의 향토 음식점, 민박시설, 위락시설의 확충과 농촌체험 프로그램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며, 경관작물재배를 통한 농촌어메니티를 농가소득과 연결하기위한 구상을 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의 가시적 효과
 -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관리.
 - 휴경지가 1/3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메밀재배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음.
 - 마을 경관이 좋아지고 마을이 깨끗해짐.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마을 경관개선에 대한 마을의 호응과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마을단위의 공동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신규 참여 농가가 나타나고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참여농가에 대한 마을주민의 신뢰와 유대가 깊어 공동체의식의 함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경관사업이 성공하면 확대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마을주민을 참여시키려 하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의 기대가 크고 유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지 못해 지역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마을과 도차원에서 구상과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상의 애로점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기준 및 시기
 - 현재 직불금은 사업 종료후 지급되고 있어 지급시기를 파종 직후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비가 지급될 때 일시에 지급되지 않아 농가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직불금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직불금을 여러번 나누어 지급하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
 - 농기계 임대 및 인력사용에 있어 임대료, 인건비 지출을 위한 자금 회전상의 어려움.
 - 지급단가가 인건비와 자재비 수준이므로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애로점
 - 작물소득이 없는 경우 경관보전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음.
 - 경관가치와 작물소득이 높은 작물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작물이 아니어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함.
 - 농가 대부분이 노령화되어 있어서 경관보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소득과 인적관계에 의존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메밀 수확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기계화가 요구됨.
 - 메밀 수확 후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계약재배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
 - 2007년 참여농지가 확대되면서 꽃이 피는 시기와 색깔 등을 고려하여 작물을 선택해야 하며, 처음 재배하는 작물의 경우 재배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직불제 정책집행자로서의 애로점 및 현황
 - 국비가 조금씩 나누어 지급되고 있어 농가에 직불금 지급하는데 애로점이 있음.

6) 경관보전제 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청원군 경관보전제 수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경관작물이 작물소득으로 연계되기 어렵다는 것에 있음.

- 추정리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와 무관하게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으나, 새로운 작물재배에 따른 위험성과 재배기술의 미흡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현재 직불금 지급대상 작물은 한정되어 있음.
- 현행 직불금 ha당 170만원은 관광객유치 등의 외부효과를 제외하면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됨.

□ 개선방안

- 청원군 경관보전제 수행상의 애로점 개선사항
 - 경관을 보전하면서 수확물이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작물에 대한 연구 및 경관작물 확대가 필요함.
 - 수확물 판매처 또는 처리방안 마련.
: 가공시설 등과 연계 및 계약재배 방안 마련.
 -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한 체계의 마련: 농산물 직거래, 음식점, 숙박 시설, 지역축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가 필요함.
 - 경관보전제 시행과 맞물려 지역 홍보 및 지도 등의 지속적인 지원.
- ※ 경관보전직불제의 시책 및 추진방향을 보면 지자체와 주민간의 협약을 통해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경관보전직불제는 경작자만이 경관관리를 하고 마을 단위의 참여와 공동 관리는 되지 않고 있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처럼 마을전체 단위의 협약과 마을공동기금조성 등의 의무사항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봄.
-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조정
 -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시기가 연중에 이루어졌으면 함.
 - 경관작물 파종직후 50% 지급, 수확후 50% 지급
 - 선지급하고 후관리하며 점검을 통해 직불금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

※ 경관보전직불금 규모를 경관보전협약 의무이행 수준과 지역 발전가능성, 자체적 농가소득증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불금 규모와 지급시한을 유동적으로 지원해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마을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경관작물의 확대

- 현재 식재 가능한 경관작물은 수확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단편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에 의한 소득지원보다는 수확물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작물을 재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면서 추가적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기 힘들고 작물재배의 편의성, 가시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어 녹색 관광마을처럼 실패의 요지가 있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경관작물을 발굴·육성해야 된다고 봄.

○ 직불금의 상향 조정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에 의한 소득이 벼 농업 또는 기타 밭 농업보다 소득이 높다고 한다면, 논과 밭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게 되므로 쌀 생산조정 효과 및 일부 농산물의 생산조정 효과가 있는바 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직불금의 조정이 필요함.
- 현재의 단가 ha당 170만원으로는 지속적인 경관보전사업은 어렵다고 생각됨.
- 경관보전직불금이 최소한 쌀생산조정제 직불금 300만원 수준이 되어야 인센티브가 되며 직불제간 형평성이 있음.
단, 이 경우 이모작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직불금의 2배가 지급되는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봄.(다만, 이모작은 지역적 상황에서 결정하도록 맡겨야할 것임.)
- 현행 경관보전 직불금 ha당 170만원은 농지를 이양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경영이양직불금 297.7만원(임대시), 농지를 쌀 또는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데 대한 조건으로 지불되는 쌀생산조정제 직불금 3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동일면적의 농지에 대하여 지불되는 여타의 직불금과 형평성에서 떨어진다고 봄. 따라서 적어도 쌀생산조정제에 준하는 직불금의 지급수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청원군 추성리의 경우 직불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자생적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 적정 직불금 규모를 ha당 220~250만원으로 보고 있음. 직불금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우 경관개선을 통한 마을전체의 발전보다는 직불금 수혜를 통한 개별농가의 소득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의 조정

-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집단화되고 대규모로 경관작물이 재배되어야 함.

-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농지이외에 농가주변, 농촌마을 길 등에도 함께 경관작물이 재배되어야 이질감이 나타나지 않음.

○ 인위적인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한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과 함께 앞으로 고려되어야할 경관보전직불 대상지는 추가적인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되어야하는 경관 또는 지구(가령 낙조가 지는 해변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는 갈대숲)등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봄.(영국의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의 경우가 벤치마킹 가능함.)

○ 또한 향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등과 연계하여 환경 관련한 직불제 들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7) 관련 현황사진



마을뒤쪽 대상지에 파종된 메밀



마을뒤쪽 산중턱에 만개한 메밀



메밀재배를 통한 밀원확보



메밀 수확을 마친 대상지

4.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 목적 및 필요성

-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하리마을 경관보전직불제(유채, 코스모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행효과 등을 모니터링 하여 동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또한, '05년도와 '06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

2) 홍성군 경관보전직불제 '06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하리마을
- 대상면적 : 69,175m² (논: 47,577m², 밭: 21,598m²) × 연 2회
 - 총 대상면적(식재면적) : 138,350m²
 - 경관작물 식재상황 : 코스모스, 유채
 - 사업비 : 23,519,500원 (국비: 70%, 지방비: 30%)
- 대상농지 :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518외 46필지(염전, 답, 전 등)
- 참가자수 : 대표자 박상남외 4인 공동경작(총 5인)
- 사업기간 : 1년 ('06.06.01~ '07.05.30)
- 경관작물 : 코스모스 (이모작 유채)
- 지급단가 : 170만원/ha × 연2회
- 도·농 교류 연계계획
 - 농촌체험(갯벌체험)사업과 연계 추진 등 관광객 유치계획
 - 코스모스 및 유채꽃단지 조성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계획

‘05년도와 ‘06년도 홍성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개요 비교

	‘05년	‘06년
대상지역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하리마을	
대상면적	72,418㎡ × 연2회	69,175㎡ × 연2회
대상농지	궁리 471-1외 50필지	궁리 518외 46필지
직불금사업규모	22,684,017원(사업종료)	23,519,500원(예상)
참가자수	지기준외 3인	박상남외 4인
사업기간	1년	
경관작물	코스모스, 유채 (이모작)	
지급단가	170만원/ha × 연2회	

○ ‘05년도 홍성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결과(현장점검 결과)

- 코스모스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농지(72,418㎡)에 코스모스를 6월경 파종 및 9~10월경 만개 후 제거작업 함.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나 개화 상태가 양호하여 경관보전 직불제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음(연 1회 지급).

※ $72,418\text{㎡} \times 170\text{원} = 12,311,060\text{원}$

- 유 채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농지(72,418㎡)에 유채를 10월경 파종 후 밭아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대상농지 중 22,801㎡는 유채꽃이 미밭아 상태였음. 미밭아 원인은 2005년도 동절기 동해피해로 2006년도 3월중 재 파종하였으나 개화 되지 않았음.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중 개화 상태가 좋지 않은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받음(파종후 50%, 개화 후 50% 2회 지급).

※ 파종후 : $72,418\text{㎡} \times 170\text{원} / 2 = 6,155,530\text{원}$

개화후 : $49,617\text{㎡} \times 170\text{원} / 2 = 4,217,450\text{원}$

총 10,372,957원

-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종료후 보조금 지원규모

코스모스 : 12,311,060원

유 채 : 10,372,957원

합 계 : 22,684,017원

□ 홍성군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역 입지

- 대상지역은 서부면 궁리 하리 마을로 천수만 서산 AB방조제(A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로 임해관광도로가 관통하며, 안면도, 간월도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 하리 마을은 총 90여세대로 대체로 어업을 중심으로 농업을 겸한 가구들로 구성됨.
- 대하축제(9~10월)로 알려진 홍성군 남당리와 인접한 지역임.
- 대상농지는 크게 2개단위로 구분되는데, 3ha 내외의 1단위는 임해도로변 해안가에 위치하고, 다른 한 단위는 임해도로변 주변의 음식점 뒤로 마을안쪽에 위치하고 있음.

○ 대상면적 및 식재작물

- 대상면적은 6.9ha (약 21,000평)이며 코스모스와 유채 이모작으로 실질적으로 연면적 13.3ha가 지급대상임.(따라서 실질 ha당 지급 단가는 340만원임).
- 코스모스를 6월경 파종 9~10월경 만개 한 후, 10월 말경에 코스모스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이모작으로 유채를 파종하였음(유채 10월20일경 파종, 이듬해 3~4월 만개).

○ 대상농지의 소유

- 대상토지는 지목상 답, 전, 염전 등 다양하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염해 등의 피해가 큰 지구임.
- 총 47필지로 총 36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직불제에 실제로 참여하는 공동경작자 5인의 소유 토지는 없음.
- 토지소유자 36명중 6명은 하리마을 주민이며 농업 및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 36명중 30명은 외지인으로 농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전 대상농지 이용상황
 - 대상농지가 염해의 피해가 커 농지로서의 기능이 낮은데다 농업과 무관하게 외지인의 소유지가 주를 이루어서 대체로 유희지 상태였음.
 - 유희지 대부분이 갈대밭이었으며 더욱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이전까지 방치되어 오물투기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마을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모기 파리 등의 해충의 서식지였음.
 - 마을주민 소유 토지의 경우 때로 사료작물, 마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왔음.
 - 외지인 소유 토지의 경우 유희지나 공터처럼 남겨져 있어서 마을주민에 의하여 조금씩 경작하는 사례가 있었음.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선정과정
 - 지역선정은 홍성군청에서 충남도청을 통해 “하리마을”을 농림부에 추천 선정됨.
 - 하리마을의 경우 2005년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4년에는 서부면 자체 특성화 사업으로 코스모스를 임해관광도로변에 식재한 적이 있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추천·선정하게 됨.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경위
 - 2004년 면 특화사업(마을 경관개선, 토지 유지 및 관리 등)으로 임해관광도로변에 코스모스 식재하였으며,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6년 역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함.
 -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에 따른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이장을 주축으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 후 마을의 경관개선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
 - 2005년 당시 마을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이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기피함으로서 실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집중하기로 마을협의회에서 결정.

- 2006년 이장이 교체되면서 추진위원장이 새로운 이장으로 바뀜. 2005년 참여자중 일부 교체되고, 새로 참여하게 되면서 공동 5인이 경작하게 됨.
-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중점적으로 참여한 2인이 지속적으로 2006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용이하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봄.
- 경관보전직불제와 그에 따른 직불금에 대한 설명은 마을협의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킨바 있음.
- 외지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36인에게는 2005년 이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관보전추진협의회에서 안내장을 우편발송(서부면담당자 협조)하여 임대차 계약시(토지임대기간 : 2005년 4월~2007년 12월) 경관보전직불제 내용과 직불금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대상농지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무상 임대(그동안 방치되었거나 농지로서 기능이 낮은 점을 감안)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원주민의 경우 대상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으므로 설득하여 다른 작물을 심겠다는 것을 만류하고, 대신 대상지를 복토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에 협의하였음. (토지소유주들의 토지무상임대 이유는 유희지(오물투기 등) 관리 및 유지 효과를 고려하고 이를 통한 지가 상승을 피했다고 보겠음).
- ※ 2006년 일부 농지(3~4필지)의 경우 마을거주 소유자가 경작을 하겠다고 농지를 돌려달라고 하여 전체 직불제 대상면적 중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경우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였고, 대상면적 내부에 위치한 경우는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자 개황
 - 총 6.9ha의 대상농지는 5인 공동경작자에게 (무상)임대 되어 경작되고 있음.
 - 이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하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총 5인이 공동경작을 하고 있음 : 궁리는 4개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장이 각 부락반장을 추천하여 구성됨.

- 공동경작자 5인 모두 4~50대 중·후반의 젊은 농업 인력으로 구성됨.
- 공동경작자중 1인은 논 3만여 평을 임차하여 경작하는 전업농으로 대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인은 농업(소규모)과 어업을 겸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예산 및 집행
 - 2006년 11월말에 국비(70%)와 지방비(30%)를 마련하여 직불제 참여자에게 집행 예정임.
 - 11월말 현재 총 직불금의 75%가 지불될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25%는 이모작 유채재배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불예정임.
 - 코스모스의 경우 파종, 식재, 수확, 수확후 제초 등 일련의 과정이 끝나 11월말에 ha당 170만원 지급예정임.
 - 유채의 경우 연말에 파종하고, 재배기간이 연말을 넘어서고 내년 3월에 개화되므로 연말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내년 개화 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금년 연말에 50%만 지급예정임.

□ '06년도 경관보전작물 식재현황

- 코스모스 식재와 유채파종 (그림1~4)
 - 8~9월 코스모스 만개
 - 금년은 태풍이나 비피해가 없어 코스모스 만개 시 아름다웠으나 일시에 개화가 되지 않았고, 개화시기가 일러 지역축제(남당리 대하축제)와 연계되지 않았음.
 - 11월 현재 현재 코스모스 제초 후 유채파종 완료.
 - 유채 파종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 파종시기가 늦어졌고, 일부면적은 관수를 하면서 파종하고 나머지는 10월 20일경 비가 온 후 파종하여 발아상태가 좋지 않고, 파종 시기에 따라 발아시기가 다름. 일부 면적은 2005년과 같이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지자체의 추가지원 현황

- 2004년 서부면 사업으로 하리마을을 관통하는 임해관광도로변에 보리 및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시행했으나,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후 서부면과 홍성군, 충남도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없었으며 향후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도 없음.
- 면 특화사업 당시 노동투입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 수준이었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마을단위의 공동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투입시 인건비를 받고 경관작물의 파종, 잡초관리, 경운, 수확, 제초 등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호응은 좋으나 실제 사업 참여 수준은 낮음.

□ 경관보전작물 식재를 위한 자재 및 노동력 투입상황

- 공동경작자중 한명이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음.
- 자재 및 노동력 투입내역 (공동경작자와의 면담에 의한 자료임.)
 - 공동경작자 자가 노력비 및 자기 농기계 임대 시 비용환산
 - 코스모스 종자대 270만원(2005년 700만원)
 - 파종 : 살포기, 동력분무기, 트랙터 부착 장비 등 이용.
 - 경운 : 600~800만원
 - 트랙터 작업 300만원 × 연2회(코스모스, 유채)
 - 트랙터 수리비 및 부속비용 80만원
 - 거름(복합비료): 100만원
 - 경관작물의 전반적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
- ※ 경관직불제 직불금은 자재비용 및 외부인건비를 제외하고 공동경작하는 5인의 노동투입비 수준임.
- ※ 2005년과 비교하여 종자선택 및 종자채취, 토양개선 및 작물관리 노력 감소 등의 이유로 자재 및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었음.

3) 경관보전제에 대한 하리마을 주민의견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주민의견

○ 대상지 비경작 주민의견

- 대상지를 소유하지도 경작하지도 않는 마을주민들의 경우 모두 만족하고 좋다고 함.
-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코스모스와 유채를 심고 가꾸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
- 코스모스 만개 시 차를 세우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음.

○ 대상지 공동경작 주민의견

- 주민 총회에서 경관보전직불제를 설명하였으며 토지소유주와 협의 하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였음.
 - 외지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던 주민들의 경우 기존에 재배하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므로 약간의 불만이 있다고 봄.
 - 일부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겠다고 하여 요구하는 농지(약3~400평 정도)를 제외하고 유채를 파종하였음.
 - 궁리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땅이 농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농지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임.
 - 2005년에 대상지역을 농지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비교적 금년에는 일이 수월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애로점이 있음.
 - 유채의 경우 겨울에 파종하고 이듬해 개화가 되면서 월동기에 동해 피해가 많았고, 금년 3월에 유채를 재 파종하기도 하였음. 재 파종에도 불구하고 개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직불금이 일부 제외되었음.
- ※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이 경관직불제에 직접 참여하겠다면 경관작물을 통일하여 직접 경작하고 직불금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며 외지인 소유의 토지는 임대하여 마을공동으로 경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지자체의견

- 지자체 담당자의견
 - 업무이동이 잦고, 금년 8월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아직 직불제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진함.
 - 유채의 경우 월동기에 동해로 인해 개화면적이 줄어들면서 개화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직불금이 일부 제외되었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단가가 인건비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지급단가가 상향되어야 된다고 봄.

4) 경관보전직불제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 공동경작자
 -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직불금 지급단가가 투입 자재와 노동인건비 수준임.
 - 경관작물의 수확물에 대한 판로확보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음.
 - 관광객이 늘었지만 농가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박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광객에 의한 소득증대도 이루어지지 않음.
- 경관보전직불제 비참여 농가
 - 관광객이 늘었지만 농산물직거래 등에 의한 관광수입은 거의 없음.
 - 해안가 일부 식당과 모텔, 민박집의 경우만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경관조성 효과
 - 경관조성에 대해 마을주민 및 공동경작자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마을 경관이 좋아지면서 관광객도 좋아하고 관광객 수도 늘고 있음.
- 유�휴지였던 대상농지가 관리되고 경관이 좋아지면서 해충 피해도 줄고, 악취 등의 피해가 줄었음.
- 농촌 어메니티 증진(지역축제와 연계)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 후 농어촌마을의 경관이 개선되어 농촌 어메니티는 증대되었음.
 - 농촌 경관 개선후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어메니티 증진이 농촌 소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하리마을 자체 지역축제에 대한 구상은 없음.
 - 지역축제 활성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준비과정이 어렵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연안과 인접한 대부분의 토지는 외지인 소유의 토지라 외지인의 투자 없이는 개발·발전이 어려움.
 - 경관작물식재와 지역축제가 연계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인근 남당리 새조개 축제나 대하축제 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 하리마을까지 관광객이 늘어남. 그 수요의 대부분은 식당, 민박, 모텔, 펜션 등임.
 - 남당리 대하축제(9~10월)와 코스모스 개화시기가 비슷하나 코스모스가 먼저 개화되어 관광객 유치효과가 적었음.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의 가시적 효과
 -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관리.
 - 염해지로서 그동안 불모지 또는 유희지가 대부분이었으나, 염해에 강한 코스모스 식재로 향후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음.
 - 마을 경관이 좋아지고 마을이 깨끗해짐.
 - 대상지의 불모지화로 바닷가와 간척지 주변에 날파리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경관작물 식재로 다소 해소.

- 코스모스 개화가 8월 말부터 9월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지고 지역 축제와 연계되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지 않았음.
- 인근 남당리 축제시 하리마을까지 관광객이 늘어나며 주변의 식당, 민박, 모텔, 펜션 등이 혜택을 보나,
- 경관보전제에 따르는 효과는 현재로는 경관작물 식재 주변의 상가와 식당, 모텔 등에 한정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마을 경관개선에 대한 마을의 호응과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마을단위의 공동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동체의식 함양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직불제 참여 대상토지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잠재해 있어 토지 소유자와 공동경작자간 갈등요인 해소가 필요함.
 -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지 못해 현재 지역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5) 경관보전제 시행상의 애로점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기준 및 시기
 - 현재는 직불금이 사업 후 지급되고 있는바, 위험성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동참하려 하지 않음.
 - 농기계 임대 및 인력사용에 있어 임대료, 인건비 지출을 위한 자금 회전상의 어려움.
 - 직불금이 사업후 집행됨으로서 지급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제반 경비를 경작자 자비 또는 공동경비로 조달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사업초기에 공동경작자가 각출하여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 2005년 사업인 유채의 경우 월동기 동해로 인해 금년 3월경에 재 파종 하면서 추가 경비가 소요되었고, 재 파종에도 불구하고

22,801m²는 밭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면적에 대한 직불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했음.

○ 경관보전제 참여 애로점

- 농번기와 경관작물 식재 및 제초시기가 맞물림.
- 코스모스 파종기는 모내기와 맞물리며, 유채파종기는 벼 수확기와 맞물림.
-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소득보다는 어업소득이 높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한 애착이나 참여의지가 별로 없음
- 유채의 경우 수확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유채수확을 포기하였음.
- 금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유채파종시기가 늦어졌고, 관수를 하며 파종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음(금년도 동해가 예상됨).
- 코스모스 식재 시 지역축제와 연계하기 위해 파종시기를 조정해 보았으나 개화시기가 8~9월로 같아 대하축제와 연계되지 못함.
- 직불금이 늦게 지급되어 자비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있음.
- 마을에 거주하면서 대상농지를 소유한 주민의 경우 대상지역이 농지로서 기능과 형상을 갖춰가면서 영농을 하기위해 임대계약 해지 또는 농지에 대한 임대료 요구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전 외지인 소유 토지에 관행적으로 경작하던 마을주민은 해당농지에 경작을 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다시 해당농지에 경작하기위해 일부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게 되는 농지가 줄어들고 있음.

○ 직불제 정책집행자로서의 애로점 및 현황

- 국비가 조금씩 나누어 지급되고 있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애로점이 있음.
- 직불제 관련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파악과 수행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6) 경관보전제 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홍성군 경관보전제 수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상지역 토지가 무상 임대되면서 주민간 갈등의 소지를 앓고 있다는 점을 들겠음. 첫째, 외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농업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소유주는 좋아하고 무상임대에 동의했겠지만, 해당 토지에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던 마을주민은 더 이상 그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둘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소유의 농지는 2005년 복토 및 개간 등의 유인책으로 무상임대에 동의하였으나, 현재는 토지가 좋아지면서 자가 영농을 하고 싶어 하거나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정이 없이는 주민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이러한 주민간의 이해관계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봄.
- 현재 홍성군의 경관작물 재배 이모작은 연 2회에 걸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과 대상지를 통하여 연 2회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실질적으로 연계가능한 지역축제가 없어 관광효과가 적음.
 - 농번기에 기존작물과 경관작물 식재의 노동력 경합문제
 - 이모작을 위해 인위적인 제초잡업을 함으로써 노동력의 과다투입과 제초제 등을 사용할 경우 주변지역에 토양오염, 해수오염 등의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직불금 ha당 170만원은 관광객유치 등의 외부효과를 제외하면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됨. 낮은 직불금 단가로 경관작물의 이모작 식재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홍성군의 경우와 같은 경관작물의 인위적인 제거 등으로 (경관을 목적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

□ 개선방안

○ 홍성군 경관보전직불제 수행상의 애로점 개선사항

- 주민 특히 마을 내 거주 대상지 소유자와 공동경작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 경관보전직불금만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각적 농가소득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경관을 보전하면서 수확물이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작물에 대한 연구 및 경관작물 확대가 필요함.
- 유채와 같이 수확물이 있는 경우 수확물 판매처 또는 처리방안 마련.
: 지역대학(충남대 유채연구) 등과 연계 및 계약재배 방안 마련.
- 자연재해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공동경작자가 모든 피해를 부담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한 체계의 마련: 농산물 직거래, 음식점, 숙박 시설, 지역축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가 필요함.
- 경관보전제 시행과 맞물려 지역 홍보 및 지도 등의 지속적인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의 시책 및 추진방향을 보면 지자체와 주민간의 협약을 통해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경관보전직불제는 공동경작자만이 경관관리를 하고 마을 단위의 참여와 공동 관리는 되지 않고 있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처럼 마을전체 단위의 협약과 마을공동기금조성 등의 의무사항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봄.

○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시기 조정

-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시기가 연중에 이루어졌으면 함.
- 경관작물 파종직후 50% 지급, 수확후 50% 지급
- 선 지급, 후 관리로 점검을 통해 직불금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
※ 경관보전직불금 규모를 경관보전협약 의무이행 수준과 지역 발전가능성, 자체적 농가소득증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불금 규모와

지급시한을 유동적으로 지원해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마을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경관작물의 확대

- 현재 식재 가능한 경관작물은 수확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단편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에 의한 소득지원보다는 수확물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작물을 재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면서 추가적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기 힘들고 작물재배의 편의성, 가시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어 녹색 관광마을처럼 실패의 요지가 있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경관작물을 발굴·육성해야 된다고 봄.

○ 직불금의 상향 조정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에 의한 소득이 벼 농업 또는 기타 밭 농업보다 소득이 높다고 한다면, 논과 밭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게 되므로 쌀 생산조정 효과 및 일부 농산물의 생산조정 효과가 있는바 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직불금의 조정이 필요함.
- 현재의 단가 ha당 170만원으로는 지속적인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어렵다고 봄.
- 경관보전직불금이 최소한 쌀생산조정제 직불금 300만원 수준이 되어야 인센티브가 되며 직불제간 형평성이 있음.
단, 이 경우 이모작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직불금의 2배가 지급되는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봄.(다만, 이모작은 지역적 상황에서 결정하도록 맡겨야 할 것임.)
- 현행 경관보전 직불금 ha당 170만원은 농지를 이양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경영이양직불금 297.7만원(임대시), 농지를 쌀 또는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데 대한 조건으로 지불되는 쌀 생산조정제 직불금 3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동일면적의 농지에

대하여 지불되는 여타의 직불금과 형평성에서 떨어진다고 봄. 따라서 적어도 쌀생산 조정제에 준하는 직불금의 지급수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직불금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우 경관개선을 통한 마을전체의 발전 보다는 직불금 수혜를 통한 개별농가의 소득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일률적이기 보다는 마을과 참여농가의 참여의도와 의지, 자생적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의 조정
 -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집단화되고 대규모로 경관작물이 재배되어야 함.
 -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농지이외에 농가주변, 농촌마을 길 등에도 함께 경관작물이 재배되어야 이질감이 나타나지 않음.
- 인위적인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한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과 함께 앞으로 고려되어야할 경관보전직불 대상지는 추가적인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되어야하는 경관 또는 지구(가령 낙조가 지는 해변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는 갈대숲)등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봄.(영국의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의 경우가 벤치마킹 가능함.)
- 또한 향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등과 연계하여 환경 관련한 직불제들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발전적 방향은 경관보전직불금이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고 농촌관광 및 녹색체험 등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증진에 도움을 주거나 경관작물 재배 후 얻게 되는 수확물 판로확보 및 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경관보전지불제 참여농가가 자생력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봄.

7) 관련 현황사진



임해도로변 횃집 뒤 마을안쪽 대상지에 핀 코스모스



임해도로변에 위치한 대상지에 핀 코스모스



코스모스에 제초 후 유채파종을 마친 마을안쪽 대상지(2006년 11월)



유채파종을 마친 임해도로변의 대상지(2006년 11월)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박경철

여 백

5.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1) 사업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지인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일대는 고창군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IC에서 약 20분이 걸림.
- 인근대도시인 전주시와는 80km, 광주광역시와는 40km 거리에 위치함.
- 주변마을은 공음면 용수리, 예전리, 선동리 등 3개 법정리로 구성

○ 신청자수: 7명(전년에 비해 1농가가 감소함)

○ 참여면적: 616.555m²(61.6ha)

○ 경관작물: 메밀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메밀

○ 파종 및 수확시기: 6월 ~ 10월

○ 파종방법: 기계로 산파

○ 수확방법: 콤바인으로 일괄 수확함.

- 수확물 판매: 봉평농협과의 계약으로 봉평농협에서 전량수매하며 봉평농협에서 가공한 제품의 일부를 다시 이곳에서 구매하여 판매함. 따라서 아직까지 이곳 자체의 상표나 브랜드를 가진 메밀가공식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정부 및 지자체 연계사업

- 공음면 선동리 메밀밭일대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2004년), 청정농산물테마파크사업(전라북도, 200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림부, 2004년), 고창군 청보리밭축제(고창군, 2003),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 조례(고창군, 2004), 경관농업특구 지정(재경부, 2005) 등과 연계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음.
- 고창군에서도 경관지구 조례 제정을 통해 보리의 수매와 봄철 청보리밭 축제 개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가을철 메밀꽃축제 때는 홍보 및 안내 등 약간의 행정적 지원만을 하고 있음.

□ 사업추진 관련 주민활동 상황

- 참여농민이 7명이고 그 중 학원농장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관작물(메밀)재배에 대한 주민 참여도는 많다고 할 수 없음.
-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가을에 개최되는 메밀꽃축제 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그들에게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어서 경관농업 자체에는 관심이 많음.
- 더욱이 청보리와 메밀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학원농장에서는 봄에 수확하는 청보리와 가을에 수확하는 메밀사이 여름 경관작물로 해바라기를 자체적으로 식재하고 있음.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직불제 단가에 대한 주민대표의 의견

- 메밀을 식재하는 공음면 선동리 학원농장 대표는 경관작물이 관광과 연계한 소득을 창출이 있는 곳에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순한 직불금 단가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직불금 단가가 일반 작물생산 소득보다 높을 경우 초래할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함. 예를 들어, 직불금 단가가 인상될 경우 기존

경관농업의 가치 상쇄, 농업생산체계의 혼선 등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함.

- 경관작물 중복식재에 따른 중복지원 요망
 -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목적이 농업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의 보전과 이를 활용한 농촌소득 향상이기 때문에 경관작물을 활용한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유지는 연중 필요함.
 - 따라서 현재 1년에 한번 지원되는 직불금이 식재 회수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함. 공음면 학원농장의 경우 봄의 청보리와 가을의 메밀재배 사이인 여름에 경관작물로 해바라기를 심었으나 보조금은 없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 요청
 - 지자체 담당자 또한 직불금 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현재 1ha당 170만원을 쌀보리 소득 수준인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함.
-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도가 높아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전북도의 경우 현재 경관보전직불제가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전북도는 2007년도에 고창군, 남원시 이외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등의 경관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했음. 하지만 아쉽게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지역전체의 경제적 효과(고창군 추정)
 - 2005년도 경관작물 식재로 인한 총 방문객은 23만 명으로 나타남. 공음면 선동리(메밀)에 8만명, 부안면 송현리(국화)에 15만명에 이룸.
 -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497백만원(그중 농특산물 판매액 121백만원)으로 계상됨. 그중 공음면은 747백만원(그중 농특산물 판매액 74백만원)으로 집계됨.
-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 효과
 - 공음면 선동리 메밀밭의 경우, 수확한 메밀을 전량 강원도 봉평농협에 판매해 수익을 얻음. 판매수익으로 생산비와 인건비를 보전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음. 다행히 직불금이 수익을 대신해 쥐 경영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함.

□ 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증진 효과

- 메밀밭지구에는 봄철 청보리, 여름철 해바라기, 가을철 메밀 등 연중 자연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 지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구로 현재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정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작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양한 마을개발사업과의 연계
 - 송현리보다 상대적으로 참여농가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 간 공동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음. 하지만 연중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오고 경관농업으로 인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지구 지정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사업들이 투입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음.
 - 인근 주민들 또한 봄철 청보리밭축제, 가을철 메밀꽃축제의 개최로 경관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관작물의 식재와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지급단가의 인상

- 전북도에서도 경관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쌀, 보리의 소득 수준인 1ha당 2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함.

※ 참고로 복분자재배의 경우 300평에서 1,000만원의 소득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인삼재배지로 임대해 줄 경우 평당 1,200~1,500원을 받는다고 함.

○ 경관작물의 단가 차등화

- 현재 경관작물식재에 대한 단가는 일정하나 장기적으로는 차등화를 두어야 할 것임. 작물별로 식재 및 관리비용, 수확 및 판매수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차등 지급이 바람직할 것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경관보전 사업대상지 선정의 우선 순위

-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우선 대상지는 농촌관광과 연계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창군의 선동리와 송현리 두 곳은 사업대상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선동리의 메밀재배단지에는 봄철 청보리부터 가을철 메밀로 이어져 현재 경관농업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이곳 또한 직불제 단가가 인상되면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지자체의 의견

- 국화, 메밀 이외에 자운영, 갯꽃, 연꽃 등을 경관작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 선동리 주민대표의 의견

- 여름철 경관조성을 위해 해바라기 식재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함. 물론 중복식재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지만, 농촌경관의 지속적인 창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길 희망함.
- 선동리에서 현재 식재하는 보리는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경관작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료작물로 쓰이는 총채보리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총채보리는 경관작물로서도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축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봉숭화, 채송화, 붓꽃, 맨드라미 등 우리나라 고유화초의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집단화 및 규모화 시 지급하는 체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마을경관 유지에 대한 지원

-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당마을에도 일정 부분 경관유지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농림부에서 마을경관협약제도를 통한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의 우선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마을이 되어야 할 것임.

○ 마을내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 경관작물뿐만 아니라 마을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건축물 유지 및 보수, 마을회관 개량, 빈집 철거 등 마을 내 시설들의 개선에도 지원이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보조금 지급

- 메밀처럼 수확시기가 늦은 작물은 직불금 수령도 늦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 일괄로 지급하고 추후 사업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게 하는 체계로 바뀔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중복식재시 중복지원 검토

- 선동리의 경우 고창군으로부터 군 조례로 경관농업지구로 지정된 상태임. 이처럼 경관농업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경관작물 중복식재에 따른 중복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마을개발사업의 연계 추진

- 공음면 선동리 메밀밭지구의 경우, 이곳을 중심으로 8개 마을에서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진흥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업이 보리, 메밀 등 경관농업을 소재로 한 새로운 지역산업(농촌관광,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등) 창출과는 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이 단순히 지역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이 사업을 이 지역 발전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음.

5) 관련 현황사진



만개한 메밀꽃 전경



메밀꽃을 찾은 방문객 모습

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1) 사업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서해안 고속도로 선운사IC에서 바닷가쪽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인근대도시인 전주시와는 75km, 광주광역시와는 45km 거리에 있음.
 - 주변에는 선운사와 미당 문학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마을은 부안면 송현리, 선운리 등 2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자수: 25명(전년에 비해 2명 증가)
- 참여면적: 77.335m²(7.7ha)
 - 전년에 비해 12,858m² 증가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식재 품종
 - 주로 옥국 또는 화단국이라 불리는 황국임(다년생 식물).
 - 올해 같은 경우 식재 후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보식을 하거나 메밀 등 다른 경관작물로 대체함.
- 수확 현황
 - 이 지역에 식재된 국화는 식용국화로 축제 후 고창국화차, 고창국화 음료, 황토국화비누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이 제품들은 고창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정부 및 지자체 연계사업
 - 국화식재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송현리 안현마을이 2006년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음.

- 2005년부터 개최된 고창황금국화축제에 고창군에서 홍보,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추진 관련 주민활동 상황

- 국화에 대한 경관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지역주민들의 관련 사업 참여에 적극적임.
- 특히, 국화축제 시 이곳을 찾는 관광객 접대와 안내 등 제반 활동에 마을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이후 지붕 개량과 담벽의 국화그림 도색 등 마을 내 환경가꾸기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음.

2) 면담 내용

□ 사업 추진 주민(대표) 의견

○ 직불제 단가에 대한 주민대표의 의견

- 국화를 식재하는 부안면 송현리 마을 주민 대표는 현재의 직불금 단가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직불금 단가인 1ha당 170만원을 300만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의 단가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참고로 국화대신 고창군 지역의 특화품목인 복분자를 재배할 경우 소득은 국화재배에 비해 몇 배나 높다고 함.

○ 경관작물 중복식재에 따른 중복지원 요망

-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목적이 농업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의 보전과 이를 활용한 농촌소득 향상이기 때문에 경관작물을 활용한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유지는 연중 필요함.
- 따라서 현재 1년에 한번 지원되는 직불금이 식재 회수에 따라 지원

되는 것이 바람직함. 공음면 학원농장의 경우 봄의 청보리와 가을의 메밀재배 사이인 여름에 경관작물로 해바라기를 심었으나 보조금은 없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 요청
 - 지자체 담당자 또한 직불금 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현재 1ha당 170만원을 쌀보리 소득 수준인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기를 요청함.
-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도가 높아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전북도의 경우 현재 경관보전직불제가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지역전체의 경제적 효과(고창군 추정)
 - 2005년도 경관작물 식재로 인한 총 방문객은 23만 명으로 나타남. 그중 송현리(국화)가 15만 명에 이룸.
 -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497백만원(그중 농특산물 판매액 121백만원)으로 계상됨. 그중 부안면은 750백만원(농특산물 판매액 47백만원)으로 집계됨.
-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 효과
 - 송현리의 경우 국화재배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없음. 오히려 복분자 등 다른 소득작물을 식재하지 않고 국화식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간접소득으로는 축제 때 농산물 판매로

인한 약간의 소득과 축제 개최 후 주변 농지가격이 상승함. 1만원 정도하던 유희지가 최근 5만원까지 상승했다고 함.

□ 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증진 효과

- 국화재배지구에는 미당문학관, 미당생가, 미당부부 묘소가 이들과 조화를 이뤄 식재되고 있음.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은 예산으로 마을담장에 국화를 그리는 등 마을가꾸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구 외에 대상지구 진입도로와 고창군 읍내에 있는 석정온천지구에 대단위로 국화를 식재해 또다른 경관을 창출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마을주민의 단합과 자긍심 증대
 - 송현리의 경우 국화 식재 이전에는 마을 방문객이 거의 없었으나 2004년 국화 식재 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언론에 각광을 받기 시작해 마을주민들 스스로도 놀랐다고 함. 그후 국화식재와 보식, 국화 축제의 진행 등에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마을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마을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음.
 - 국화재배 이외에도 늘어나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메주를 제조하고 있음.
 - 더욱이 이 마을이 2006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회관 증축, 마을담장 국화그림 도색, 국화재배면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마을행사(국화식재, 축제 준비 등)에 주민들을 참여케 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을로의 인구 유입 : 아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화재배로 이 지역이 활성화되자 이 마을 출향인사 다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지급단가의 인상

- 국화를 식재하는 송현마을 대표는 현재의 단가로써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경관형성을 위해 마을주민의 국화식재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어렵다고 함. 더욱이 기후 여건이 좋지 않아 국화 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보식 및 대체작물을 식재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 따라서 마을대표는 국화재배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직불제 단가가 1ha당 45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전북도에서도 경관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쌀, 보리의 소득 수준인 1ha당 2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함.

※ 참고로 복분자재배의 경우 300평에서 1,000만원의 소득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인삼재배지로 임대해 줄 경우 평당 1,200~1,500원을 받는다고 함.

- 현재 경관작물식재에 대한 단가는 일정하나 장기적으로는 차등화를 두어야 할 것임. 작물별로 식재 및 관리비용, 수확 및 판매수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차등 지급이 바람직할 것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경관보전 사업대상지 선정의 우선 순위

-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우선 대상지는 농촌관광과 연계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창군의 선동리와 송현리 두 곳은 사업대상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송현리의 국화재배는 미당문학관, 미당생가와 묘소 등 지역의 인물과 그의 작품 소재와 연계됐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역으로써는 적합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미당문학관과 묘소 주변에 국화재배를 좀더 확대하고자 하나 농지소유자가 많고 직불금의 단가도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지자체의 의견
 - 국화, 메밀 이외에 자운영, 갯꽃, 연꽃 등을 경관작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 주민대표의 의견
 - 또한 봉숭화, 채송화, 붓꽃, 맨드라미 등 우리나라 고유화초의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집단화 및 규모화 시 지급하는 체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마을경관 유지에 대한 지원
 - 송현리의 경우 국화재배지구 이외에 고창군-부안면간 도로가와 마을 내 공한지에 국화를 식재했음. 하지만 이들 지역은 지구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따라서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당마을에도 일정부분 경관유지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농림부에서 마을경관협약제도를 통한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의 우선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마을이 되어야 할 것임.
- 마을내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 경관작물뿐만 아니라 마을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건축물 유지 및 보수, 마을회관 개량, 빈집 철거 등 마을 내 시설들의 개선에도 지원이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보조금 지급

- 메밀처럼 수확시기가 늦은 작물은 직불금 수령도 늦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 일괄로 지급하고 추후 사업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게 하는 체계로 바뀔 필요가 있음.

○ 마을개발사업의 연계 추진

5) 관련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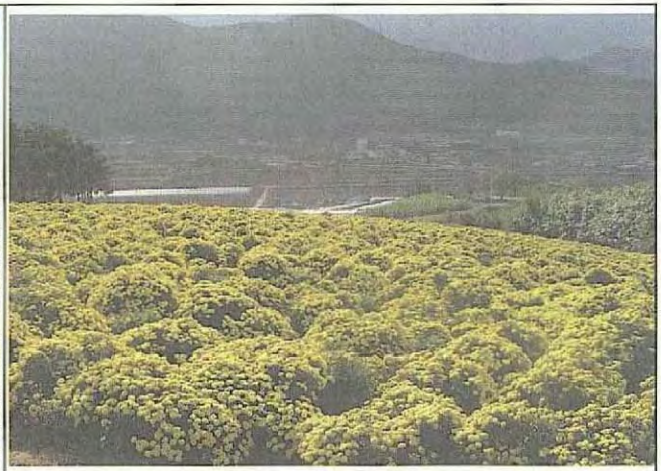
만개한 국화꽃 전경



미당문화관 주변 국화식재 모습



국화꽃단지외 묘지가 혼재된 모습



국화꽃 전경. 멀리 미당문화관이 보임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화리 -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

2006. 11.

한 국 농 촌 공 사
농 어 촌 연 구 원
업 대 호

여 백

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 참여농가수 : 12세대(37필지)
- 참여면적 : 180,000m²
- 경작작물 : 메밀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 '06. 7월말
- 메밀 수확 : '06. 9. 15 ~ '06. 9. 25

□ 지자체 추가 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1,700천원
- ※ ha당 국·지방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510천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 참여 현황

- 대상면적보다 많은 24농가 40ha 메밀 식재(대상면적 : 12농가 18ha)
- “메밀꽃 향기와 만나는 가을 한마당” 행사 개최
 - 일 시 : 2006. 9. 15 (금)
 - 장 소 : 소천면 임기리 감전마을 메밀단지
 - 행사주관 및 주최 : 청옥산메밀작목반(경관보전직불제추진위원회), 소천면
 - 주요내용 : 풍물공연(참뉘) 외 7개 행사
 - 참여인원 : 963명
 - 초청인사 및 군민 : 500 명(도의원, 군의원, 각급기관단체장 등)

- 관 광 객 : 400명
- 취 재 원 : 13명 (MBC : 6, KBS : 2, 지역신문사 5)
- 학생 및 인솔교사 : 50명
- 예산 : 4,000천원(지원 1,500천원, 자부담 2,500천원)
- 주요행사
 - 면민한마음걷기대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메밀요리 시식회
 - 사진전시회, 사생대회, 메밀꽃길걷기 및 키낮은사과원 체험, 메뚜기 잡기 체험, 면민화합노래자랑
- 행사관련 홍보
 - 뉴스보도 : MBC 9시 뉴스 (9.15), KBS 9시뉴스(9.15)
 - 오락방송 : 행복예감(9.20)
 - 주요일간신문 : 경북도민일보(9.18), 경북일보(9.18, 9.19)
 - 행사 및 주요 언론매체 보도후 1,000명 이상 관광객이 메밀단지 방문
 - 소천면 작목반으로 메밀단지 방문, 메밀구입 방법 등 관련하여 문의쇄도

2) 면담 내용

□ 사업 추진 주민(대표) 의견

- 본 지역은 주작목으로 담배를 수확하고 난 후에 메밀을 식재하므로 지원단가는 만족함. 그런데, 경관직불 신청면적에 비해 경관직불지원 면적이 적어 불만이 많음.
- 꽃피는 기간은 9월인데 그 때가 되면 휴일에는 평균 400명이나 방문을 함. 작년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으나 금년에는 경관보전직불로 인해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났음. 그리고 축제 행사는 하루 개최 되었는데, 약1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음. 그래서, 메밀 식재로 인해 올해 이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을 추정하면 약 8,200명 정도가 되며, 방문객 중에서 4,000명 정도가 5,000원정도 지출하고 갔다고 보면, 메밀 식재로 인한 관광효과는 20,000천원으로 추정됨.

- 하루 동안 시행된 축제행사 기간에는 주부클럽에서 메밀 요리, 메밀 가공 제품을 판매하여 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음.
- 이 지역의 재배상황은 2005년도에 40ha, 2006년도에는 70ha에 메밀을 식재하였으며, 올해 메밀 식재한 70ha중 경관직불 대상면적은 18ha 밖에 되지 않음. 올해 메밀 식재면적 70ha중 전작으로 담배를 심었던 면적은 60ha이고, 10ha는 배추, 채소 등을 전작으로 경작을 하였음.
- 전작으로 담배를 심고 메밀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더운 여름철에 농작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담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데 있어 힘이 많이 들어 농민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메밀경작으로 경관직불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메밀을 경작함.
- 메밀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부려야 하는데, 종자는 300평당 2말(12kg)이 들어가고, 수확량은 300평에 60kg짜리 2가마가 생산되어 평균적으로 300평당 120kg이 생산되며, 한가마당(60kg) 18만원을 받고 농협에 내다팔았으나, 올해는 기후조건이 좋아 생산량이 많았으나, 메밀은 기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므로 기후조건이 좋지 않다면, 수확량이 급감할 수도 있음.
- 재배는 먼저, 경운 및 정비작업을 하게 되는데, 경운 및 정비 작업은 트랙터로 2회 시행을 하며, 비용은 300평당 6만원(3만원×2회=6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두둑 만들기 작업과 평탄작업은 고려하지 않았음.
- 경운 및 정지 작업후에는 파종을 하게 되고, 파종은 인력으로 시행을 함. 메밀 식재 관리를 위해서 비료를 살포하는데 비료살포는 살포기를 이용하여 하게 되는데 유류대와 인건비는 300평당 10,000원이 소요되고, 비료는 요소를 살포를 하며, 요소 한포에 10,000원정도 함.
- 수확은 수확기로 하는데, 수확기는 군에서 지원을 하여 구입을 했으므로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고, 수확기 유지비 및 유류대만 고려하면 300평에 5만원이 소요됨. 수확기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300평에

8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수확기는 군의 보조금으로 6천 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으로 2천 만원을 지원받아 총 8천 만원을 들여 수확기를 구입하였음. 그리고 정선하는데, 300평에 1만원 정도가 들어감.

- 경관직불금 신청은 40ha를 하였으나, 신청면적에 비해 확정면적이 적어 지원되는 직불금은 신청한 농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시켜 주민들 간의 불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마을공동기금 구성에 관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마을주민 대부분이 참여를 하며 지역의 여건이 자연적,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함으로 인해 지원되는 측면이 있어 지역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관보전직불제는 소득이 되지 않는 작물을 식재하여 농촌경관 창출로 농촌관광으로 인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며, 마을주민 중 일부만 참여를 하므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됨.
- 이 지역은 영동선 철도가 부근으로 지나가므로 영동선의 아름다운 경관과 연계한 농촌관광을 추진하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됨.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메밀축제와 연계하여 봉화 메밀의 우수성과 전국최대 메밀주산단지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 지역은 평창군의 봉평에 버금가는 메밀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메밀을 확대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메밀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상품을 보다 높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재를 개발한다면 지역특산품으로서의 메밀상품이 자리를 잡을 것이므로 메밀상품 및 포장재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확대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경관보전직불금은 메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지역의 메밀 식재 면적은 확대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메밀이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메밀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가공상품 개발 육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메밀상품의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이 지역 메밀단지는 다음과 같은 관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현동터널 ~ 감전마을 구간에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
 - 경상북도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의 “낙동강변 자전거도로”유치

□ 담당공무원 의견

- 이 지역은 여름에 담배를 수확하고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편이나, 지원하는 면적이 너무 작아 불만이 있음. 그런데, 지원단가를 많이 올려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그리고 메밀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축제까지 연결시켜야 경관 직불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임.
- 경관직불금으로는 축제를 하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므로 추가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그래서 내년에는 군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1억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편의시설, 주차장, 물레방아, 디딜방아, 원두막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정감나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임. 즉, 군에서는 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관직불제와 농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농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예산계획안은 군의회에서 심의중인데, 12월 20일 전후로 확정될

것으로 낙관함.

- 경관직불대상작물로 이 지역에서는 다른 작목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 지역은 담배가 주소득원이므로 담배를 재배 및 수확한 후에 후작으로 메밀이 가장 적합한 작목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메밀만 경관직불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메밀축제, 메밀 토속음식점 운영 등을 담당함으로써 경관직불제 참여농가가 전원 참여하여 공동으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임.
- 올해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지원한 면적과 신청 농가는 많았으나, 배정된 예산이 적어 배정된 예산을 신청한 농가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배분하는 일이 어려웠음.
- 경관직불제의 만족도는 높음. 올해 시범 실시했는데 방문객이 많아 토속식당, 메밀 축제, 농산물판매 등으로 소득이 앞으로 크게 올라 갈 것이므로 주민들의 기대는 큼.
- 관광객이 메밀단지 방문 시 메밀관련 음식점 및 메밀상품 구입처 부재로 농가소득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미약하므로 메밀단지 내 메밀요리 전문 음식점과 메밀상품 상설판매장 개설이 필요함.

3) 사업시행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본 지역은 주작목인 담배를 수확한 후 메밀을 식재하여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을 추진하려는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금 만큼은 순소득으로 발생하여 경관보전직불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메밀꽃이 피는 기간은 9월인데, 작년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으나, 올해 휴일에는 평균 400명이나 방문하여 연간 8,200명 정도가 이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추정됨. 올해는 행사비용이 없어 하루만 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하루 동안에 약 1000명이나 다녀갔음. 과거에는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없었으나, 올해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 주민들에게 경관보전직불제와 농촌관광과 연계하면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음.

- 올해 다녀간 8,200명 관광객중 4,000명정도가 약 5,000원을 음식값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메밀 식재로 인한 관광효과는 20,000천원으로 추정됨. 올해는 얼마 되지 않는 효과이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몇 배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올해 하루 축제행사기간에는 하루 동안 축제행사기간에 주부클럽에서 메밀 요리, 메밀 가공 제품을 판매하여 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대규모의 메밀꽃밭조성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충분히 자아내게 하고 메밀이 가져다주는 시골스러움, 정감, 전통의식 등 역사·전통적인 어메니티 효과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메밀이 제공하는 어메니티를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강원도 평창군 봉평은 이효석이라는 문학가를 테마로 하여 메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가장 성공한 역사 및 문학 소재를 연출하는 농촌관광마을로서 지역의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지역도 이효석이라는 역사 및 문학을 직접적으로 테마로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메밀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면, 메밀이 가지고 있는 역사 및 전통, 그리고 문학적인 어메니티의 발현으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집단화된 메밀단지가 연출하는 메밀경관단지는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도시민들에게 정신적 휴양과 안락감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줌에 따른 경제적 어메니티 가치를 소득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으로 충분히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가 구성 되고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됨으로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조직적으로 발휘되어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 지역에 올해 메밀을 심은 면적은 24농가 70ha나 되지만, 이 중에서 경관직불금의 지원면적은 12농가 18ha밖에 지원되지 않음으로서 지원을 받은 농가와 받지 못하는 농가간의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았으나, 경관직불위원회에서 지원받은 면적을 공평하게 나누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불만을 가지는 농가가 하나도 없이 24농가 전부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여 “메밀꽃 향기와 만나는 가을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주민들의 혼연일체로 성공적으로 개최 함으로서, 공동으로 합심하여 노력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본 지역은 주 작목으로 담배를 수확하고 난 후에 메밀을 식재하여

자가노력비 정도는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추가적인 소득향상과 메밀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인함으로써 음식판매, 농산물 판매 등으로 추가적인 농외소득을 올리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지급단가로는 큰 불만이 없으나, 축제행사 비용과 농촌체험관광 기반 시설의 설치가 요망되고 있어 시군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를 잘 추진하는 본 지역과 같은 경우는 체험관, 농특산물판매장 등 농촌관광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요망됨.
- 예컨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정할 때 경관보전직불제를 잘 추진하는 마을에 가점을 부여하여 농촌관광과 연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본 지역은 주 작목인 담배 후작으로 메밀을 식재함으로써 메밀축제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로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지원대상 농가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으로 적합하며, 확대지원으로 대표적인 경관보전직불마을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지원단가만으로도 경관보전직불 참여면적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면적에 대한 직불금의 지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정 등 농촌마을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면 지역주민들의 의욕이 많아 낙후된 이 지역의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지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필요하므로 마을경관 자원에 대한 관심이 별 없으며,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임.

-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으로 메밀경관을 조성하여 올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을 경험했으므로 경관농업이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마을주민, 면 공무원, 군 공무원 모두 공감을 하고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담배 후작으로 과거에도 메밀을 재배하고 있던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지역 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메밀축제, 메밀체험관광 등의 추진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타 작목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본 지역의 작부체계상 메밀이 가장 적합한 경관작물로 인식하고 있음.

□ 경관작물의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 이 지역민들은 큰 만족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청한 면적에 비해 상당히 적은 면적이 경관보전직불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많은 면적에 지원되길 희망함.
- 신청면적에 비해 지원되는 면적이 작아 신청한 농가가 모두 공평하게 나누고 있어서 실제 지원되는 ha당 보조금은 훨씬 적어지므로 지원 대상 면적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 올해 경관보전직불제가 이 지역 홍보에 큰 효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군 예산지원으로 화장실, 편의시설, 주차장, 원두막 등을 조성 계획에 있으므로 전국적인 농촌관광마을로 육성될 가능성이 많음.
- 농촌마을 내 경관보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관심이 없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농촌관광기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농촌관광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경관보전직불제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올해 본 지역은 경관보전직불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현행 제도에 대해 큰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지원대상 면적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망하는 지역임.

5) 관련 현장 사진



작 목 : 메밀	파 종 : 7월 개 화 : 9월
면 적 : 18ha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작 목 : 메밀	파 종 : 7월 개 화 : 9월
면 적 : 18ha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작 목 : 메밀	과 중 : 7월 개 화 : 9월
면 적 : 18ha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작 목 : 메밀	과 중 : 7월 개 화 : 9월
면 적 : 18ha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작 목 : 메밀	파 종 : 7월 개 화 : 9월
면 적 : 18ha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작 목 : 메밀	파 종 : 7월 개 화 : 9월
면 적 : 18ha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8.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 참여농가수 : 21호(신청 39호)
- 참여면적 : 124,429m²(신청 28ha)
- 경작작물 : 메밀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 '06. 8. 12 ~ '06. 8. 18
- 메밀 수확 : '06. 10. 23(건조기간 10일)

□ 지자체 추가 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1,700천원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510천원
- 경관보전직불제시범마을 홍보에 따른 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
 - 지원예산 : 약 1,700천원
 - 전신주 이용 유도표지판 1식
 - 지주이용 유도표지판 1식
 - 현수막 4식

□ 사업추진관련 주민 참여 현황

- 대상면적보다 많은 26ha 메밀 식재(지원대상면적 : 12.4ha)

2) 면담 내용

□ 사업 추진 주민(대표) 의견

- 이 지역에서 파종은 8월 12일에서 18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수확은 10월 23일에서 11월 초순경까지 실시하였음. 메밀을 수확한 후 탈곡을 위한 건조기간은 10일 정도임.
- 과거에도 담배를 수확하고 후작으로 메밀을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종자는 자가로 공급하며 종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300평당 2말 정도의 종자가 필요함.
- 이 지역에서 메밀 수확은 300평당 60kg, 2가마가 수확되며, 한가마당 작년엔 17만원 받았으며, 농협 또는 개인 상인들에게 판매되어 봉평 가공공장으로 유통됨.
- 경영비에 있어서 메밀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한데, 비료는 300평에 요소 1포를 살포함. 요소 1포의 가격은 10,000원 정도임.
- 파종을 위해서는 밭의 정지 및 경운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트랙터가 하며, 300평에 50,000원 정도를 지불함.
- 이 지역에는 메밀수확기가 없어 인력으로 메밀을 수확하고 있으며, 300평당 메밀 수확을 위해 3명정도 투입되어야 하므로 수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00원정도임. 메밀을 수확한 후에는 약 10일정도 건조를 한 후 탈곡을 하고, 탈곡도 인력으로 하고 있으며 탈곡을 하기 위해서는 300평 기준으로 2명이 투입되므로 약 100,000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 수확 및 탈곡을 한 후에는 메밀가공공장으로 메밀이 보내지고, 전량 판매되고 있음.
- 메밀 경작으로 인한 수익을 분석하면, 수확 후 메밀생산량을 판매한 금액은 메밀을 경작하고 수확하는데 들어간 경영비와 거의 같아 순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가노력비 정도는 농가에 도움이 되며,

지원되는 직불금 만큼 순수익이 되므로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됨.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직불금을 지원받는 면적이 경작하는 면적에 비해 적어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의 불만으로 인해 주민간의 불화도 발생하고 있음. 내년에는 지원면적을 확대하여 주면 좋겠음.

□ 담당공무원 의견

- 2005년도에는 30ha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면적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8ha를 신청하여 13ha밖에 지원받지 못하여 지원신청 후 메밀을 재배 하면서도 경관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 행정당국에 대한 불만과 주민들간의 불화가 생겨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관직불 대상면적의 확대가 요망됨.
- 이 지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경관이 좋고, 비교적 큰 규모로 메밀단지가 조성되다 보니,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진작가나 화가 등이 많이 방문하였음. 그리고, 일반 방문객도 인근 안동시나 대구 등지에서 많이 방문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농촌관광 연계 효과가 상당히 나타났음.
- 방문객이 많지만,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진만 촬영하고, 주변을 둘러만 보고 가는 형편이어서 원두막 등 휴식공간 설치가 요망되어 내년에는 행정 차원에서 원두막 등 휴식공간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경관보전직불마을로 육성할 계획에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는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음.

- 올해는 작년에 비해 방문객이 많았으며, 일요일인 경우에는 약 2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였음. 이전에는 일반등산객만 왔으나, 메밀을 재배 배한 이후 대구 등 외지에서 메밀을 구경하여 오는 관광객이 많음.
- 이 지역은 담배를 경작한 후 수확을 하고 메밀을 후작으로 경작을 하므로 지급단가에는 불만이 없으나, 작년에 비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이 줄어드니까 지급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알력이 심하게 발생 하고 있으므로 지급대상면적을 대폭 확대 해주면 좋겠음.
- 올해 방문객들이 메밀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 내방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원두막 2개소를 설치하고, 메밀 축제를 하여 이 지역을 많이 알리기 위해 시에서 1천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임.
- 이 지역을 메밀로 테마로 하여 농촌관광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전망대 등의 기초 시설이 필요한데, 시의 예산 형편 때문에 내년에 많은 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년차별로 메밀을 테마로 한 농촌관광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내년에는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면적이 많아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음.
- 올해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하루 평균 100명정도 총 1,100명이 방문하였음.
- 작년에 이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은 총 2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1,100명이 방문하여 방문객이 많이 늘었음.
- 경관보전직불지역인 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는 방송국 4사 (KBS1,2, MBC, YCM)에서 각 1회 총 4회가 방송되고, 지방신문 6개사에서 6회나 이 지역을 소개하여 이 지역은 메밀마을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음.

- 이 마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2개가 있으며, 메밀국수, 막걸리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메밀을 보기 위해 방문객 1,100명 중 500명이 이 마을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갔다고 추정되므로 1인당 5,000원을 식대로 지불한 것으로 하면 250만원의 농촌관광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수익은 아직은 미약하나 앞으로 매년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농촌관광 효과가 크다고 생각됨.
- 경관직불협약은 시장과 직불참여농민과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 면장과 주민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시장이 면장에게 경관직불협약을 위임하였음.
- 이 지역부근에는 도산서원, 산림박물관, 안동댐 등이 있으나, 본 지역과의 연계하기에는 거리상으로 서로 많이 떨어져 있음.
- 보조금 지급은 12월에 할 계획임. 11월에 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임.
- 올해는 경북도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그 이유는 경북도 전체 직불금이 작아 도비를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었음. 면적이 확대되면 경북도에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 보통 지방비는 도비 9%, 시군비 21%로 편성되고 있음.
- 경관직불제 확대대상 작물로는 안동시에는 국화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국화도 대상작물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주면 좋겠음.

3) 사업시행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작년에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1,100명이 방문하여 이 중 500명이 이 마을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갔다고 추정되므로 1인당 5,000원을 식대로 지불한 것으로 하면 250만원의 농촌관광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음.

- 메밀을 판매한 매출과 메밀을 경작하면서 들어간 경영비가 비슷하며, 경관보전직불금이 순소득이 됨으로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됨.
- 경영비 중에는 자가노력비가 포함되므로 자가노력비 만큼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어 도움이 되고,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은 순소득을 가져다주므로 담배 후작으로 메밀을 경작하는 이 지역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경관이 좋고, 큰 규모의 메밀단지 조성으로 사진작가, 화가, 등산객, 일반 방문객 등의 방문객의 증대로 조성된 경관은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함.
-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원두막등 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메밀을 테마로 한 홍보 및 행사도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 지역 메밀단지는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이 지역은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인해 메밀을 테마로 한 농촌관광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전망대 등의 기초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메밀경관으로 인한 어메니티 증진효과는 전국적인 유명한 메밀마을로도 성장 가능케 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 받은 농가들은 서로 단합하여 메밀을 테마로 하여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공동으로 노력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 메밀을 식재하면서도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

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시 예산으로 이 마을에서 메밀을 경작하려는 전 농가에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내년에는 많은 농가들이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메밀을 테마로 한 농촌관광마을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전망이다.

-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인해 마을공동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마을의 발전을 위해 관광객의 유치와 메밀을 테마로 한 체험프로그램, 농특산물의 판매를 추진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가 마을공동체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이 지역은 주 작목으로는 담배를 경작하고 있으며, 담배 후작으로 메밀이 적합한 작물이라 메밀을 재배함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은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농촌관광사업 추진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음.
- 담배의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하는 이 지역은 현재의 지원금액으로도 불만이 없으며, 오히려 지원면적의 확대를 절실히 요망함.
- 메밀단지의 관광지화를 위해 원두막, 주차장, 체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련사업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경관보전직불제를 잘 시행하는 마을을 농촌체험관광 마을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이 지역은 사과농사와 담배농사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담배 후작으로 재배되는 메밀은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농촌관광 추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역으로 적합하며, 확대지원을 통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안동시에는 국화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는데, 국화에 대해서도 대상 작목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화는 소득을 위해 재배를 하지만, 경관직불금이 지원된다면 아름다운 경관형성으로 좋은 불거리를 제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작목임.

□ 경관작물의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이 지역은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메밀을 테마로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험시설 등의 농촌관광기반 시설의 설치가 요망되는 지역임. 그런데, 마을내는 특별히 보전해야 할 경관자원은 없으며, 마을보다는 농가소득을 위해 경관보전직불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농촌관광활성화를 지역축제, 체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체험마을사업 등과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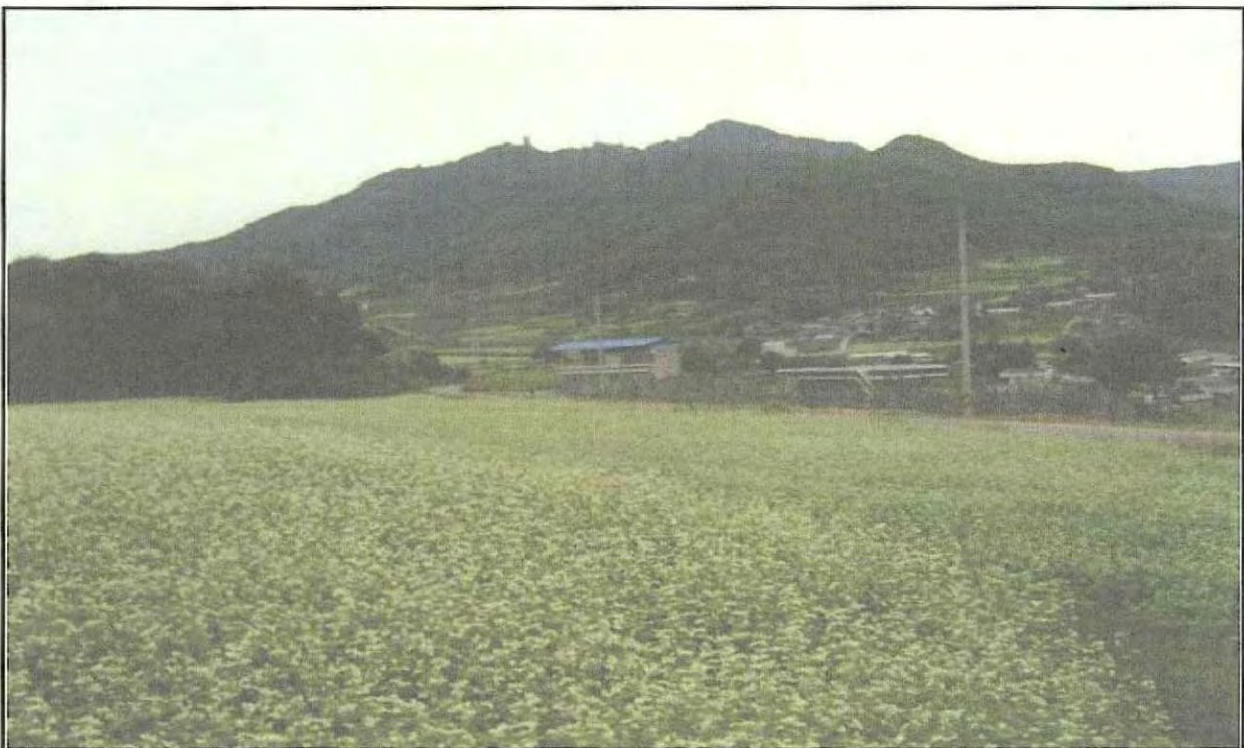
- 이 지역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마을 활성화에 본 제도가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에는 메밀을 재배하는 면적에 대해 일부만 경관보전직불금의 지원을 받음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의 알력이 있음. 향후 메밀재배농가 모두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이 지원된다면, 본 제도로 인해 농가소득향상과 농촌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메밀밭 중간에 사과과수원이 있어 메밀의 집단화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좋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므로 집단화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직불협약의 체결에 있어 이 지역은 면장과 경관보전직불추진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음.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에게 협약체결을 위임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5) 관련 현장 사진



작 목 : 메밀	파 종 : 8월 개 화 : 10월
면 적 : 13ha	위 치 : 안동시 북후면 신전



작 목 : 메밀	파 종 : 8월 개 화 : 10월
면 적 : 13ha	위 치 : 안동시 북후면 신전

9.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화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영양군 수비면 수화2리
- 참여농가수 : 22농가(신청 23농가, 1농가 경영이양)
- 참여면적 : 112,699m²(신청 112,562m², 추가된 면적은 군에서 지원)
- 경작작물 : 메밀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 '06. 7월말 ~ '06. 8월 초순
- 메밀 수확 : '06. 10월 중순

□ 지자체 추가 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1,700천원
※ ha당 국·지방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군비) 4,810천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 참여 현황

- 이 지역은 자연생태보전지구로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여 축제를 하고 지역으로 축제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메밀경작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음.

2) 면담 내용

□ 사업 추진 주민(대표) 의견

- 이 지역의 주작목은 고추와 벼임.
- 농민들은 우선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득이 되는 약초나 고추를 심으려고 함. 먹고 살기에 충분한 직불금을 지원할 때 경관보전

직불제에 참여하려는 면적이 늘어날 것임.

- 이 마을의 주민들은 70세 이상으로 추진위원장의 나이 70인데 최고로 젊음. 직불금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함.
- 이 지역은 벼를 재배할 경우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 이모작을 못하므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차별화하여 지원되어야 함.
- 메밀을 심기 전에 감자를 재배할 수는 있으나, 감자는 드는 노력에 비해 판로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피를 하고 있음.
- 메밀을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잘되어야 300평에 80kg이 생산됨.
- 이 지역은 환경부 생태보전지구로 건축 승인이 잘 나지 않으며, 입산 엄금 등으로 규제가 있음. 추진위원장이 환경부 회의에 주민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하게 만드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나중에 욕을 먹을 지, 어떨지 고민을 하고 있음.

□ 담당공무원 의견

- 본 지역은 자연환경생태보전지역으로 지역내 농업은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농법으로 영농을 해야 하므로 환경농법을 이행함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의 필요에 의해 직불금을 지원함.
- 이 지역의 주요작목은 고추, 약초이며, 고추는 ha당 600만원 이상, 약초는 1,00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임.
- 메밀은 ha당 80kg정도 생산되고, 약 20만원의 매출을 거두나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음. 그래서 ha당 600만원을 지원을 해도 참여면적은 늘어나지 않음.
- 그리고, 본 지역은 약초인 천궁을 봄에서 가을까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ha당 6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천궁은 우리나라 총생산량의 60~70%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특화된 작목임. 천궁은 한약재로 이용되고 있어 소득이 높은 편임.

- 이 지역의 인구 연령은 70세가 젊은 층에 들어가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한 실정임. 인구 노령화로 농사지을 인구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런 분들에게, 농촌마을가꾸기를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음.
- 정부보조금은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이 되어야 함. 메밀 등을 경작할 때 지원되는 경관보전직불제는 이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원금액이 너무 작음. 메밀을 심을 때는 전작을 해야 하나, 이 지역에서는 마땅히 메밀심기 전에 심을 작목이 없고, 2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시켜야 참여하는 면적이 있을 것임.
- 이 지역은 환경생태보전지역(환경부)으로 지정되어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지원하여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타 다른 지역은 현재의 직불금으로는 추가로 신청할 면적이 없음.
- 사업시행효과로는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으로 청소년 수련원, 반딧불이 생태체험학교, 체험장, 축제 등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관광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농업과 경관농업을 동시에 이행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반딧불이 생태공원에는 연간 6,5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축제 때는 약 5,000명이 방문함. 그리고, 부근의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연간 30,000명이 숙박을 하고 가며, 여름 휴가철에는 하루에 차량이 약 300대 가량 오므로 하루 약 1,000명(총 30,0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연간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약 8만명으로 추정됨.
- 메밀전작으로 감자, 옥수수 등을 심는데 생태환경보전지역이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음. 그래서, 품질이 좋지 않고, 수확도 적음. 친환경 농업을 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 자재도 지원하고,

1년치 수확에 따른 손실을 지원함.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내 농지는 16.7ha인데, 22농가 11.1ha만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함.
- 반딧불이의 유지를 위해 인근지역의 농지를 군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음(약 8.5ha).
- 집단화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가시권 안에 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됨.
- 본 지역은 왕피천 유역으로 생태경관보전사업 지역임.

3) 사업시행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본 지역은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반딧불이 축제, 반딧불이 생태체험학교, 체험장 등 반딧불이라는 곤충을 소재로 생태관광 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기후적인 측면에서 이모작이 어려운 여건에 있음. 그리고, 약초, 고추 등의 농사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인해 경관보전직불금만으로는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참여면적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기후적 여건으로 메밀 등 경관작물의 수확량이 적어 소득에는 기여하는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약함.
- 이 지역에 알맞은 특화된 경관작물을 개발하여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추진이 요망되나, 인구의 노령화로 추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 특유의 생태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어 경관보전직불지역이 반딧불이 축제 및 생태보전지역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런데, 축제기간과 경관작물인 메밀의 개화기가 차이가 있어 축제 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어메니티증진 효과가 없으나, 메밀의 개화기 때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그러한 방문객에게는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음.
- 환경생태보전지역이라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작황은 좋지 않아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경관효과가 떨어져 경관작물인 메밀을 테마로 지역을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친환경 메밀을 생산하여 가공한 제품을 만들어 환경농업에 의한 메밀 국수, 메밀묵 등을 축제 때 판매한다든지 특산품으로 육성한다면 보다 높은 소득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이 지역주민들은 반딧불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경관작물을 식재·관리·수확을 하고 있어 공동체의식 함양에는 경관보전 직불제가 기여하고 있음.
- 메밀인 경관작물을 테마로 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에는 기후적 요인과 인구 노령화, 기존의 반딧불이 보전 생태지역 등의 브랜드로 인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 활성화 효과로는 미흡한 실정임.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지급단가는 겉보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으므로 이 지역과 같이 이모작이 어려운 기후적 여건과 소규모 집약적 영농으로 약초 등 소득이 높은 작목이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급단가가 상당히 적은 수준임.
- 지급단가를 지역적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형편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이 지역과

같이 기후적, 영농작부체계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지역은 경관직불제 추진 계획, 즉, 참여면적, 식재 작목, 지급단가, 지역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본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기후적 여건, 작부체계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 개발 차원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과 병행 추진 되어야 할 것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본 지역은 약초(천궁)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약초 중에서 경관작물로 우수한 작물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 경관작물의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본 지역은 반딧불이라는 곤충을 보전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반딧불이와 같이 생태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직불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본 지역에서는 고추, 약초 등을 주작목으로 하고 있어, 작부체계상 메밀을 후작으로 하기 어려우며, 고추, 약초 등을 포기하고 메밀을 심기 위해서는 ha당 600만원이상의 직불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현행 직불제의 확대가 어려운 지역임.
- 이 지역과 같이 작부체계상 경관작목을 후작으로 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면 과다하게 직불금 단가를 올리기 곤란 측면이 있으므로 고령화가 심각한 본 지역은 낙후지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직불제 등 다양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모색이 요구됨.

□ 참고 : 영양반딧불이 생태체험

- 일 시 : 2006. 8. 25 ~ 8. 27
- 장 소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일원
- 주최 : 영양 반딧불이 보존회
- 후 원 : 영양군, 영양군의회
- 프로그램 내용
 - 영양 반딧불이 친환경 콘서트
 - 반딧불이 사생대회
 - 반딧불이 숲속 합창제
 - 반딧불이백일장
 - 북한예술단공원
 - 전통민속농리체험 : 제기차기, 팽이치기, 널뛰기, 윷놀이, 투호던지기
 - 장수포천 은어잡기 대회
 - 반딧불이 캐릭터 및 자연 이미지 페이스 페인팅
 - 반딧불이 포토존, 반딧불이 희망게시판
 - 영양 특산품(영양, 고추, 영양더덕 등) 전시 판매
 - 반딧불이 캐릭터 및 자연 상품 판매
 - 특산물 먹거리, 자연 주막촌 등 먹거리 운영
 - 반딧불이 생태체험 전시관 상설 운영
 - 곤충 사진 및 우표 전시회

5) 관련 현장 사진



작 목 : 메밀	파 종 : 8월 개 화 : 10월
면 적 : 11.3ha	위 치 : 영양군 수비면 수화2리



작 목 : 메밀	파 종 : 8월 개 화 : 10월
면 적 : 11.3ha	위 치 : 영양군 수비면 수화2리

1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직전마을
- 참여농가수 : 26세대(70필지)
- 참여면적 : 115,845㎡(메밀 65,352㎡, 코스모스 50,494㎡)
- 경작작물 : 메밀, 코스모스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 코스모스 : '06년 5월
 - 메밀 : '06년 8월
- 수확 및 개화시기
 - 코스모스 : '06. 9. 1 ~ '06. 10. 15
 - 메밀 : '06. 10. 16 ~ '06. 10. 31

□ 지자체 추가 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7,500천원()
 - ※ ha당 국·지방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 도비 255천원
 - 군비 6,055천원
- 경관보전직불사업 꽃단지 부대경비
 - 꽃단지 관광객 차량 교통정리요원 임부임 3,000원
 - 파종 및 수확 일손돕기, 관광객 맞이 TV·신문 등 홍보

□ 사업추진관련 주민 참여 현황

- 작황관리 및 관광객맞이 주민 간담회 개최 : 30회
- 우수 사례지 현지 견학 : 2회 20명(전북 고창군 메밀꽃단지 등)
- 파종 및 관리작업(11.5ha) : 450명
- 장비 동원 : 125대(트랙터 20대, 관리기 30대, 예취기 75대)
- 메밀 수확
 - 베기(수)작업 : 180명, 운반작업 : 경운기 18대
 - 탈곡(수)작업 : 300명, 건조 작업 : 50명
- 개화시기 관광객맞이 편의시설 설치 등
 - 쉼터(원두막) 1개소, 화장실 2개소, 주차장 2개소
 - 교통정리요원(청년회원 등) 500명
 - 간이음식점 운영 2개소(마을 부녀회원 200명)

2) 면담 내용

□ 사업 추진 주민(대표) 의견

- 이 지역은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아 코스모스와 메밀을 식재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코스모스 등 꽃을 테마로 하는 지역특화 관광지로 육성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농가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06년도에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올해 이 지역이 많이 홍보되었으므로 '07년도에 예상 방문 관광객은 50만명으로 추정됨.
- 지급단가에 있어서는 코스모스의 경우 5월말에 식재하여 10월에 꽃을 피움으로서 하절기 소득작목을 경작할 수 없어 소득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6월 이전에 파종 및 식재를 하는 코스모스등과 같은 작목은

지원 단가를 대폭 올려주기를 바라며, 2006년도에는 군에서 추가 지원하여 ha당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단가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 '06년도에는 11.6ha밖에 지원을 못 받아 경관보전직불 면적 확대를 많이 못해 경관조성효과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07년에는 30ha이상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할 계획이므로 많은 면적에 경관작물을 심어 경관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면적의 지원이 요망됨.
- 이 지역은 코스모스, 메밀, 조롱박 등 꽃단지를 육성,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체험행사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 행사경비(5천만원정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주기를 바람.
- 올해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방문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크게 겪었으므로 주차공간, 화장실, 쉼터(원두막), 산책로 의자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요망됨.
- 이 지역은 메밀 수확기가 없어 메밀 수확작업을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므로 메밀 수확기 구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 메밀의 경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병해충(도둑나방 등) 예방이 필요하고, 특히 코스모스의 경우는 병해충의 일종인 새삼을 제거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약제비도 소요되어 코스모스의 경우는 이러한 경작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지원해주기를 바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올해 처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아 코스모스와 메밀을 재배했는데, 꽃단지를 찾은 많은 관광객(2006년도 이 지역 방문 관광객 수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됨)들이 메밀은 강원도 봉평보다 낮고, 코스모스는

경기도 구리시, 전남 곡성보다 잘 조성되었다며, 농촌특화사업으로 육성하면 이 지역의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음.

- 올해에는 별도의 축제는 하지 않고 간단한 행사만 실시했는데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주차시설 등 미비로 공무원들이 코스모스 및 메밀의 개화기(30일간)동안 연휴도 없이 교통정리에 투입되어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
- 하동군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므로 많은 면적에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경관직불 사업지역도 확대해 주길 요망.
-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현재 지급단가인 ha당 1,700천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ha당 6,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지원되길 요망.
- 2004년도에는 하절기 작목을 재배할 시에는 ha당 450만원을, 동절기 작목을 재배할 시에는 ha당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재배작목별, 재배시기별로 구분하여 지원 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코스모스 및 메밀 등을 식재하여 꽃단지를 조성하고 체험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정자, 체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람.
- 경관작물을 식재·관리하는 중에 조류 피해(황새, 비둘기, 참새 등)로 작물 발아율 저하에 따른 작황 부진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급요건에 있어서도 완화해 주길 바람.
- 메밀 파종 후 메밀대를 말라 죽이는 병해충인 도둑나방의 극심으로 약제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좋은 경작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지급 단가도 높여주길 바람.
- 코스모스는 새삼이라는 병이 붙어 매일 예찰 및 제거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경작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작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되길 바람.

3) 사업시행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경관직불제 시행으로 코스모스와 메밀을 경작함으로써 이 지역이 꽃단지 마을로 알려지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은 코스모스 및 메밀 등 꽃단지를 방문할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특산품의 판매, 체험행사, 음식판매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코스모스, 메밀 등 꽃을 테마로 한 꽃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추진한다면 소득증대 계기가 마련될 것임.
- '06년도에는 꽃단지 체험행사 기간에 20만명정도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마을공동으로 음식물과 북천면 농산물 판매로 10백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07년도는 50만명정도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험행사기간에 메밀음식과 북천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20억원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정소득은 방문하는 관광객이 50만명으로 예상되므로 방문객의 80%가 1인당 5,000천원을 음식물 및 농산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소득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로 재배하는 코스모스는 전국에서 특화된 브랜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에는 방송 및 신문 등에 많이 홍보되어 도시민들에게는 옛날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심미적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대규모 집단화된 코스모스로 창출되는 경관효과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
- 이 지역은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메밀, 조롱박, 목화 등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고, 전통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국적 꽃작물을

재배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집단화된 꽃단지 경관은 방문객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어메니티 증진 효과가 발휘되어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기여할 것임.

- 경관보전직불로 재배하는 이 지역 특유의 꽃경관 형성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친경관적 이미지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과의 연동성을 심리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들에게 신뢰도 구축에 기여할 것이므로 농산물의 판매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이 지역 특유의 꽃작물 재배는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것이며,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청정한 이 지역 특성을 홍보할 수 있어 더욱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게 되어 전 주민들에게 활력과 용기를 불어일으켜, 경관보전직불 사업 참여와 경관보전직불과 연계한 농촌관광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낙후되어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지고 있던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업성과의 가시화로 인한 자신감과 함께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노력하면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경관보전직불로 이 지역 특유의 경관형성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청정한 이미지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므로 지역 농산물이 높은 가격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판매량 증대와 함께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대할 것으로 판단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이 지역은 코스모스와 메밀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코스모스의 경우에는 5월 말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9월초에서 10월 중순까지 코스모스가 개화됨으로서 개화시기가 한달 반이나 되고 재배기간도 약 5개월이나 되어 코스모스를 재배할 경우는 여름작목 즉, 벼 등을 재배할 수 없어 기대소득에 있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전이 필요함.
- 메밀의 경우에는 8월에 파종하여 10월중순에서 10월 말까지 개화하여 8월 이전에는 배추 등의 작물재배가 가능하나, 이 지역은 논 지역으로 배추 등 밭작물재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메밀의 경우에도 기존에 벼를 재배하고 있던 논에 경관작목을 재배할 경우에는 벼를 재배하지 못함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 보전이 필요함.
- 이 지역과 같이 기존에 벼를 재배하는 논에 코스모스, 메밀 등의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지급단가를 상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밭 지역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시 겉보리를 기준으로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논 지역에 하절기 경관작물을 식재할 시에는 벼를 재배하지 못함에 따른 소득 손실을 산정하여 지급단가로 하여 지원되는 방안, 즉, 밭 지역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와 논 지역에 하절기 작물을 재배할 경우, 논 지역에 동절기 작물을 재배할 경우 등으로 지급단가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본 지역은 기존에 벼를 재배하는 지역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여 지리산을 관광하려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코스모스, 메밀 등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산물 판매, 경관작물을

테마로 하는 지역축제 등을 개최하여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한 지역임.

- 본 지역에서는 조롱박 등 박 종류도 재배할 계획에 있어 다양한 경관작물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꽃단지로 육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조롱박 등에 대해서도 경관작물로 인정하여 경관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처음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문익점 선생이 성장한 지역으로서 목화도 재배할 계획에 있음. 현행 제도 하에서 목화는 경관작물로 편입되어 있으나, 다양한 경관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경관작물 선정의 재량권과 지원단가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재량권 등을 위임하는 방안도 경관보전직불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경관작물의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소득작물 대신에 소득이 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른 소득손실부분을 지원하여 경관창출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여 농촌관광활성화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농가소득보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판단됨.
- 경관보전직불금을 농업경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직불제의 큰 범주에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으므로 직불제의 큰 방향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도 시행되는 것이 타당함.
- 이 지역에서도 테마공원조성, 숲 공원화사업, 주변 산 등산로 및 삼림욕장 조성사업 등에 경관보전직불금이 지원되기를 희망을 하나,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함양군의 경우 마을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민간보조로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존마을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농촌마을과 관련한 지역개발사업 메뉴가 있으므로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를 평가하여 잘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하여 원두막, 정자, 소공원, 주차시설, 음식 판매장 등 농촌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현행 경관직불제 시행지침에는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필지간의 거리가 30m 이내로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일부 농가가 사업을 기피할 경우 사업 추진 애로가 있으므로 필지간의 거리조건을 30m에서 100m로 하던지, 또는 경관적인 연속성이 있는 경우로 지침을 보완하여 경관상의 문제가 없다면 1ha이상의 집단화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5) 관련 현장 사진



작 목 : 메밀	파 종 : 8월	개 화 : 10월
면 적 : 6.5ha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	



작 목 : 메밀	파 종 : 8월	개 화 : 10월
면 적 : 6.5ha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	



작 목 : 코스모스

파 종 : 5월 개 화 : 9월

면 적 : 5.1ha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



작 목 : 코스모스

파 종 : 5월 개 화 : 9월

면 적 : 5.1ha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

11.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양천마을
- 참여농가수 : 13세대(89필지)
- 참여면적 : 109,088㎡
- 경작작물 : 하고초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 '05. 7월말 ~ 8월초
- 하고초 개화 : '06. 6월

□ 지자체 추가 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2,500천원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1,310천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 참여 현황

- 하고초꽃 축제
- 시기 : '06. 6. 3 ~ 6. 5(3일간)
- 축제시 주민 부담으로 비빔밥 공짜로 제공
- 축제시 사진기자 등 방문객 750여명이 다녀감

2) 면담 내용

□ 사업 추진 주민(대표) 의견

- 이 지역은 함양군의 지원을 받아 '01년부터 '03년까지 하고초꽃을 개발하여 생산·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으로 2003년

11월 하고초꿀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하고초꿀을 생산하여 가공·판매를 하여왔음.

- 하고초꿀의 판매가 잘 될 수 있고,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초꿀 포장제도 개발하고, 용기 디자인도 개발하는 등 하고초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
- 현재까지 하고초 관련 16종에 대해 의장, 상표 등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04년부터 한해에 5,000 되나 생산하여 서울 강남 등 대도시에 전량 판매를 하고 있음.
- 그리고, 하고초 엑기스 개발 및 약리성분에 대한 임상실험실시 등 하고초 건강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재배 기법을 통해 생산품의 고품질화를 추구할 것임.
-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약효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하고초 엑기스”의 개발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갈 것임.
- 하고초꿀을 생산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이 지역을 도시민의 휴양과 휴식을 위한 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말체험농장, 하고초 전원 결혼식장 무료 제공, 가족 휴가 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하고초꿀의 특화와 농촌관광과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과 농촌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할 연계하여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지원이 요망됨.
- 올해에는 경관보전직불마을로 홍보하기 위해 하고초꿀 축제를 '0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열었는데, 사진작가 등 방문객이 750여명이 다녀갔으며, 축제시에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비빔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음.
- 파종과 관리 작업은 인력으로 하고 있으며, 하고초는 다년생 작물이라

매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다음해에 하고초가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상태가 좋지 않아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종자를 뿌리고 가꾸어 균락지를 조성함으로써 좋은 경관을 연출하여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게 함.

- 하고초를 파종하고 관리 및 수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1ha에 약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되며, 김매기에 소요비용의 3분의 2, 수확 시에 3분의 1의 비율로 비용이 듦.
- 최초에는 종자를 경남 약초시험장에서 무료로 제공 받았는데, 시중에 거래된다면 1대당 1백만원은 될 것임. 300평 파종하는데 1되가 들어가므로 종자 값으로 1백만원이 드는 셈임.
- 하고초꿀의 생산 및 판매 현황을 보면, 연간 꿀은 5000되가 생산되어 1되에 7만원을 받고 있으며, 총 3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꿀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17농가임.
- 꿀 생산 및 판매에 드는 비용으로는 포장대, 택배비, 인건비 등으로 1되 당 25천원이며, 순수익은 1되 당 45천원이 되어 17농가 순수익은 225백만원으로 한 농가당 약 13백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음.
- 경관직불제 시행으로 하고초 생산량도 증가하고 하고초꿀의 품질이 좋아졌으며, 방문객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
- 하고초는 기관지 및 천식에 좋아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에 좋은 웰빙 상품으로 알려져 아름답고 좋은 경관 창출로 전국적인 유명 마을로 발돋움을 하고 있음.
- 방문객들에게 경관보전직불제 정책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이 지역에 대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원으로 하고초 밭이 전국적인

유명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하고초 받을 가꾸고 육성해나갈 계획에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금의 확대 지원이 요망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이 지역은 하고초 꿀을 생산하여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판매를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하고초 받은 좋은 관광지로 알려져 올해에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음.
- 이 지역은 하고초 꿀을 생산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경관창출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관리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으면 하고초 꿀 생산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경관도 조성되므로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음.
- 그런데, 하고초는 친환경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음에 따라 풀과 잡초가 많이 나므로 인해 잡초를 제거하는데 인건비, 관리비가 많이 들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람.
-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 받아 하고초를 잘 가꾸으로써 이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로 발돋움함으로서 이웃마을에서도 꿀을 생산할 목적으로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음.
- 그런데, 남의 논을 임차하여 하고초를 재배할 경우에는 평당 150원, 300평에 6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므로 300평에 17만원의 경관 직불금의 지원으로는 부족하여 남의 논을 임차하여 하고초를 재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남해의 다랭이논이 좋은 볼거리가 됨으로써 남해 다랭이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어 그 마을의 농촌관광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알고 있으며, 이 지역은 하고초받을 좋은 볼거리로 만듦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마을주민의 소득을 높여나갈 것임.
- 경관직불제 대상작목중에서 유채의 경우는 함양에서는 기후적 여건상

월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재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여타 작목도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음.

-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내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느티나무주변 마을정자, 데크, 쉼터, 자연석,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에 군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정자건립에 1개소당 5천만원, 소공원, 쉼터, 나무벤치 등의 설치에 최대 1억을 지원하여 농촌마을의 경관을 잘 가꾸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오지개발, 낙후지역개발 차원에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지원을 하고 마을경관도 좋게 하여 마을도 깨끗해져 생활 환경도 좋아지고 농촌관광과 연계추진으로 농의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 함양군에서는 마을에 민간인에 대한 자금 보조 예산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마을 내 경관을 가꾸는 부분은 경관보전직불제로 지원하기 보다는 오지개발, 낙후지역 개발 차원에서 사업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3) 사업시행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이 마을은 하고초 꿀이 연간 5,000되나 생산되어 총 3억 5천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인건비, 포장비,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225백만원의 순수익을 거두어 한 농가당 13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음.
- 하고초를 재배하기 전보다 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꿀의 질도 나아지고, 하고초 꿀 브랜드를 확립함으로써 높은 판매가격으로

하고초 꿀을 판매를 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음.

- 하고초밭의 경관효과 창출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이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이 부근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으로 지출함으로서 이 지역으로 인해 부근의 지역도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하고초밭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으로서 도시민들에게 심리적 즐거움과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함.
- 아름답고 조화로운 휴식 공간 제공으로 이 지역 농산물의 친환경 브랜드를 높임으로서 농산물의 가공 판매에 기여함.
- 건강식품, 약용식품으로서의 하고초 브랜드를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친환경 웰빙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대를 유도하여 도시민의 관광지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은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하고초 꿀의 생산과 하고초밭을 관리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서 전 주민의 참여의식을 함양시켜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마을발전계획을 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역량함양에 기여함.
- 이 지역은 생산된 하고초꿀을 가공한 건강식품개발을 마을주민 공동으로 추진하여 하고초꿀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서 마을의 자생력을 길러 마을의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 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하고초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하고초 꿀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어 경관보전직불금은 지역의 활력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하고초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자를 수확하여 파종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병충해 예방 및 잡초제거를 위해 많은 관리비가 소요됨. 그런데, 하고초 꿀의 생산량이 증대하는 측면과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경관보전직불금이 적지는 않지만, 남의 논을 임차할 경우는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므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하고초를 생산 직접 판매하는 직접적인 소득은 없고 하고초 꿀의 생산량과 질을 높임으로서 간접적인 소득증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 하고초 밭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급단가를 높이는 것이 더 많은 면적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마을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이 참여하면, 뛰어난 경관 창출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급단가의 상향조정으로 하고초 밭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하고초 꿀을 이 지역의 특유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므로 하고초는 이 지역의 경관보전직불 대상작목으로 적합하여 본 제도의 홍보와 효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경관

작물에 대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하고초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경관작물의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이 지역은 하고초를 테마로 하여 지역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역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축제를 통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홍보효과가 한층 올라갈 수 있어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므로 경관보전직불제를 잘 추진하는 마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로서 지역축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를 재배하여 하고초 꿀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어 경관직불의 효과가 높은 지역임.
- 하고초는 직접적인 소득은 전혀 없으나 하고초 꿀이라는 간접적인 소득효과와 농촌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하고초꿀의 생산과 동시에 관광객 증대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 음식 판매, 숙박 등 지역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많은 지역 발전이 기대됨.

□ 참고 : 하고초

- 여러해살이풀
- 개화기 ; 5~7월, 결실기 ; 6~8월
- 용도 : 식용·관상용·밀원용·약용 (전초)
- 채취시기 : 여름에 이삭이 절반쯤 시들 때에 채집하여 햇볕에 말려

약으로 함.

○ 특 성

-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20~30cm, 산야지 및 길가풀밭에서 자란다. 원줄기는 네모지고 전체에 백색털이 있고 꽃은 자주색으로 꽃이 밀착함.
- 잎은 마주보며 장원형으로 가는 톱니가 있음. 꿀풀의 변종 식물로서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꿀 풀, 적색 꽃이 피는 것을 붉은꿀 풀, 원줄기가 밑에서부터 바로서고 가는 줄기가 없으며 짧은 새순이 원줄기 밑에 달리는 것을 두메꿀 풀이라고 함.
- 꿀풀의 꽃 또는 쏠초를 건조한 것을 한약으로 사용함.
- 한방과 민간에서 고혈압, 자궁염 등에 약재로 쓰이고 밀원, 방향성 식물임.
- 석구, 연면, 맥하초, 내동초, 철색초, 금강소초, 하고두, 양호초, 봉두초, 하고구, 꿀방망, 꿀방맹이, 가지골나물, 두메꿀풀, 제비꿀풀 등으로 불리는 길가 풀숲에 흔히 나는 풀임.
- 우리나라에서는 부드러운 새싹과 잎은 나물로 먹고 꽃 이삭, 꽃차례는 이뇨제로 널리 쓰임. 줄기와 잎은 나력, 자궁병, 혈을 통하게 하고 눈병 등에 효과가 있음.
- 여름이면 말라서 죽는다는 뜻에서 이와 같은 생약명이 만들어졌음.
- 夏枯草는 옛날부터 消炎, 利尿藥으로서 부종, (두부임파선 結核) 및 淋病의 치료약으로서 사용되어 왔음.
- 중국에서 한약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약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음.

5) 관련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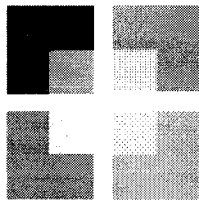


작 목 : 하고초	파 종 : '05. 7월말~8월초 개 화: '06. 6월
면 적 : 11ha	위 치 : 함양군 백천면 오천



작 목 : 하고초	파 종 : '05. 7월말~8월초 개 화: '06. 6월
면 적 : 11ha	위 치 : 함양군 백천면 오천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Ⅲ. 동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1.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2.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3.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
4. 충청북도 옥천군 정성면 산계리
5.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6.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리
7.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8.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10.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11.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2.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 터 링 보고서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 -

2006. 11.

농 촌 진 흥 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 상 범

여 백

1.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 신청자수 : 24농가
- 참여자수 : 24농가
- 참여면적 : 110,659m² / 60필지
- 경관작물 : 유채
- 마을현황

면적 (km ²)	가구수 (호)	인 구 수			행 정 구 역			
		계	남	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32.28	899	1,993	995	998	9	19	21	37

- 지형
 - 소백산맥의 한 가닥 줄기가 동, 서, 남의 삼방을 준령으로 둘러싸 사매면 일대를 분지화하였다. 동은 계룡산(鷄龍山, 388m), 서는 노적봉(露積峰, 580m), 남은 울치(栗峙, 368m)로 준평원(準平原)구릉지로 개발이 가능한 야산지대다.
 - 하천은 서쪽으로 흐르는데, 섬진강의 상류인 울천천(栗川川), 매내천(梅內川), 월평천(月坪川) 등 중소하천이 삼계석문(三溪石門)을 통하여 흐른다.
 - 야산이 많아 개발지역 요건이 좋은 과수 축산의 적지라고 할 수 있는 지형이며 산이 총면적의 58.4%로 특히 4차선 국도변 육송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육송림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해발고도는 평균 200m이다.

○ 주요산업 및 특산물

- 논농사가 주업이나 야산이 많아 구릉지형이기 때문에 과수단지가 많은데,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시설채소(상추, 딸기, 오이), 인삼, 엽연초, 화훼, 축산(한우, 젓소, 돼지, 양계 흑염소), 고사리, 자연산, 송이버섯,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이 생산되고 있다.

※ 친환경 농축산물(“혼불” 브랜드 육성) 판매

- 대상품목 : 쌀, 고추, 고구마, 고사리, 흑염소 등

○ 지리적 위치 및 교통

- 남원시(南原市)에서 북쪽방향의 춘향터널을 지나 시(市)의 12km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계룡산을 경계로 보절면, 서쪽은 노적봉을 경계로 순창군 동계면, 임실군 삼계면과 오수면을 접하고, 남쪽은 춘향터널을 경계로 광치동, 대산면과 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덕과면과 인접하고 있다.
- 국도 17호 4차선이 북에서 남으로 면의 중심지를(6.3km) 통과하고 있으며, 전라선이 면의 서부인 서도, 인화, 화정을 통과하고 있다.
- 전주~남원 간 4차선 국도가 북에서 남으로 6.3km에 걸쳐 면내 중앙지를 관통하고 있고 면의 서편으로 전라선 철도가 관통하며 서도리 서촌마을에 서도역(書道驛)이 있다.
- 시내버스 노선은 오수~남원선을 비롯하여 대신선, 인화선, 서도선, 화정선, 계수선으로 마을 단위에 적게는 3회에서 5회까지 왕복하여 면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화는 686가구 전체가 설치되어 100% 이용하고 있다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 종 : 2006, 10월 중순 / 10a당 1,0kg파종
- 수확현황 : 유채는 높이 80~130cm으로 표면은 매끄러우며 녹색이다. 원줄기에서는 15개 안팎의 1차 결가지가 나오고, 이 가지에서 다시

2~4개의 2차 결가지가 나온다. 잎은 바소꼴이고 끝이 둔하다. 아래 쪽 줄기에 달린 잎은 긴 잎자루가 있으며 잎가장자리는 깊게 갈라진다. 위쪽 줄기에 달린 잎은 잎자루가 없으며 줄기를 둘러싸고 그 끝은 가늘다. 서양종의 잎은 두껍고 혁질(革質:가죽 같은 질감)이며, 보통종은 연한 녹색이고 잎살이 비혁질이다. 줄기에는 보통 30~50개의 잎이 붙는다. 꽃은 3~4월에 총상꽃차례로 피며 가지 끝에 달린다. 배추꽃과 비슷하며 약 10cm 길이의 꽃자루를 가진 홑꽃이 핀다. 꽃잎·꽃받침은 각각 4개로 갈라지며 수술 6개, 암술 1개, 4개의 꿀샘이 있다. 성숙한 이삭 길이는 가지의 위치, 재식방법, 품종 등에 따라 다르나 대개 35~45cm이고 한 이삭에 30~40개의 열매가 달린다. 열매는 각과(角果)로서 길이 8cm 가량의 원통 모양이다. 중앙에는 봉합선이 있으며 완숙하면 봉합선이 갈라져서 종자가 떨어진다. 속은 2실로 되고 투명한 격막으로 갈라지며, 보통 20개 가량의 짙은 갈색 종자가 들어 있다. 번식은 종자로 한다.

-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는 남원시의 지원을 받아 수차례 농가별로 겨울철 성실한 비배관리를 하였으나 2007년 4월 현재 경관작물(유채)작황과 생육상황이 좋지 않다. 4월 초순부터 꽃 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해야하지만 현재 개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여건으로 동절기를 견디지 못하여 10월 파종의 경우 동절기를 견디지 못하여 발아하지 못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3월에 파종하고 특히 배수를 잘 관리하면 발아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이곳은 혼불박물관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있어 경관작물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배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 : 2001~2004년(4개년)
 - 총사업비 18,812(국비13,168, 도비 2,822, 시비 2,822)
 - ※ 총 사업비의 30% 지방비부담
 - ※ 농촌마을종합개발지역으로 지정(2005년) 사업 추진중(사업비 : 5,446백만원)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봉리 522번지 일원
- 부지조성 : 17,650㎡(5,340평), 문학관터 16,653㎡ (5,038평), 주차장 999㎡, 혼불문학관(321.84㎡), 관리 및 교육지원관(154.8㎡)
- 전시시설 : 디오라마(10점 : 혼례식 장면, 강모 강실 소꿉놀이, 효원의 흙월, 청암부인 장례식 장면 등), 매직비전(캐릭터에 의한 소설 '혼불' 소개, 작가 최명희의 집필실 재현)
- 체험시설 : 인월댁 배짜기
- 진입로 및 주차장, 조경시설 등
- 기대효과 : 세시풍속 지리환경 보존을 통한 전통의 남도문화 체험 기회 부여, 문학기행 코스 개발을 통해 '혼불'의 이해를 돕는 폭넓은 기회 제공
- 전시목적 : 전시실의 성격은 작고한 작가 최명희 선생이 살아생전 아끼며 사용했던 만년필, 커피잔, 혼불 원고 등을 비롯한 소장품류를 복제하여 전시하고 매안 이씨 가문 종부 3대의 삶을 통해 나타난 당시의 사회적 기풍과 평민, 천민들의 민족혼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디오라마로 전시하는 디오라마 전시실이다.
- 이를 통해, 순결한 모국어와 세시풍속, 관혼상제 등 전통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했으며 주요장면을 작가가 작품 속에서 섬세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혼불 문학 주제를 각각의 디오라마로 전시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갈수록 소멸되어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정신인 혼불문학을 느껴보고, 근원에 대한 그리움과 이해를 구하는데 본 전시의 목적이 있다.
- 전시기능 : 혼불 문학의 주제전시를 디오라마 기법을 사용한 디오라마 전시실로 전시 연출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것, 우리전통문화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과 복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문학마을의 상징성 부여, 혼불 문학마을은 남원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기능과 내일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이 혼불 문학에서 나타난 다양한 한국

인의 정서와 우리말 사투리, 전통 생활습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계승의 장으로 활용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경관보전직 불추진위원회(24명)를 구성하여 7회의 회의를 거쳐 유채종자 구입, 파종, 비배관리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주변 농가들의 참여도가 높았지만 기후조건, 재배경험의 미숙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
- 이에 유채 재배법 교육을 2007년 2월에 농업기술센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경관작물 재배지역은 혼불문학관을 중심으로 주동선의 좌우로 계단형태를 취하여 경관적 여건은 매우 우수하다.
- 이 곳은 혼불문학관에 찾아오는 1일 300여명의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음식, 나물 등 농산물 판매는 물론 마을청소, 마을 꽃길 가꾸기 등 주변환경 정리활동을 공동으로 행하고 있다.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2년간 유채를 경관작물로 선정·재배하여 혼불문학권의 경관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기후가 맞지 않은 관계로 발아시기가 균일하지 않고 꽃 피는 시기가 달라 사업효과가 저조한데 이것은 유채재배에 있어서 월동문제, 씨앗 공급문제, 토양 및 시비문제 등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현재 친환경농업계약(추정미)으로 농가의 중요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유채를 경관 및 소득효과를 얻기 위해서 5월말까지 기다리게 되면 논갈이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 2007년에는 기후조건 등 어려운 유채를 자운영 같은 녹비작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시비의

불균형으로 실농의 위험이 있어 영농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지속적인 지도가 매우 절실하다.

- 지원금의 경우 유채는 800만원/ha 정도로 조정해준다면 친환경농업 계약(추정미)으로 얻는 농가의 중요한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유채재배관련 정보
 - 유채는 추위에 견디는 힘은 강한 편이 못 된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나 중북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아 봄 또는 가을 재배에 적합하며, 생육적온은 20~25℃이다. 유채는 토양의 비옥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며 약한 산성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햇빛과 적당한 수분이 있으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
 - 유채는 배추과 배추속에 속하는 1년생 또는 월년생 작물로 다 자란 유채의 키는 80~140cm이며 잎은 넓적하고 녹색을 띤다. 꽃은 배추꽃과 비슷하며, 사료작물 중 종자가 작은 편이다.
 - 재배방법은 10월경 파종하지만 만일 봄에 파종할 경우에는 남부지방은 3월 상순, 중북부지방은 3월 중순이 알맞다. 파종량은 1~2kg/10a이며 파종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면 파종량을 다소 늘려준다. 시비량은 파종시 질소 10~12kg, 인산 10~12kg, 칼리 10~12kg/10a 퇴비가 있을 경우 1,000~2,000kg/10a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유채에는 질산함량이 높으므로 퇴비시용 시에는 질소시비량을 줄여주어야 한다. 충해는 벼룩벌레(배추나 무처럼 생육초기에 많다.), 청벌레(잎이 크게 자랐을때 갇아 먹으며 잎에 구멍을 낸다.)가 있으며 배추나 무의 방제에 준한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은 혼불문화권역 종합개발지로 종가집 호성암 노봉서원터, 혼불문화관 등 전통역사적 자원이 있으며, 관광자원으로는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육모정, 황산대첩비, 국악의 성지, 바래

봉철쪽, 지리산국립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최적지이다. 하지만 2년 동안 유채를 재배하여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기후 및 토질에 맞지 않아 사업효과 저조하여 2007년도에는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선택 시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는 자운영을 고려중이며 활용방안으로 벼농사 적기 재배 및 음식 판매 등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 자운영은 중국이 원산지인 2년생 야생화 풀로 목초로 재배하던 것이 귀화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키는 10-25cm로 옆으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털이 다소 나있다. 잎은 작은 잎이 9.11 등 홀수의 깃 모양으로 길이는 6-20cm이다. 꽃은 4-5월에 피며 붉은색이다. 씨뿌리는 시기는 봄 2-3월경에 뿌리면 4-5월경에 꽃을 피우며 우리나라 토끼풀 같은데 토끼풀 보다 약간 잎이 넓고 꽃대도 크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로 마을과 지역단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경관적 아름다움을 보러오는 관광객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작물을 이용한 농산물직거래, 민박, 농촌체험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 농촌경관작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혼불문학 관람객 연간 165천명(일일400~500명정도)을 고려하면 혼불문학관 주변 광장 주말장터 운영(친환경 농산물 판매)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일한 필지에서 이모작을 통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전국적으로 농촌경관을 이용한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하여 농촌다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관광객유치 및 관광상품개발로 농촌어메니티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봄철 꽃피는 시기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관광객에게 이미지 제고 및 경작지 주변 경관개선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조성에 효과가 크다.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하여 농촌다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농촌어메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어 혼불문학관 관광객의 마을방문 유도 및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공동작업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사업 보조금 지급시기는 작물파종과 작물수확기에 2회에 걸쳐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경관보전 작물의 파종시기에는 파종 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종시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경관작물 꽃이 만개이후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농가의 작물비배관리 등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경관작물의 재배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관작물재배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유채를 재배하면 농가들도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고, 유채박은 사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채꽃은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쌀과 보리 등의 과잉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

과를 볼 수 있다.

- 주민들은 면적기준으로 170,000/10a(유채)을 380,000원/10a으로 상향 조정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수준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참여농가의 기대소득을 감안한 적정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목은 조수입에서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일정규모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작물은 기후, 토양특성, 용수공급상황, 경사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며, 또한 농가들의 영농패턴, 그 지역의 작부체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작물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전국 재배면적, 기후, 토양조건, 영농조건 등을 고려하여 소득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사업대상지역은 농촌체험마을과 주변관광지,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관보전사업지역으로 선정함이 본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관작물보전은 농촌관광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동절기 대체 농작물재배로 적합하므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 경관작물 재배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패키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감안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 경관작물의 경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밀식하는 등 소득증대를 위한 경작방법보다는 경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배·관리가 요구되므로 경관작물 재배·관리 요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경관작물보전사업 신청에 있어 농림부 지침상에 경관작물 예시품목이 유채를 비롯한 몇 가지 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경관을 살릴 수 있는 타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 경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후, 지형, 재배작물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선정 및 작부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 작물 선택과 전문가의 경관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관작물 종류를 탄력적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야생화 등 비소득작목이면서 경관 조성에 영향이 큰 작목을 경관보전직불제시범사업 대상작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채, 메밀 등은 조수입은 있으나,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자가노력비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 경관조성효과가 좋은 작목이나 야생화 등은 씨앗 값이 비싸 초기비용이 좀 소요되고 다년초인 경우는 매년 씨앗 구매비용이 들지 않아 유리한 점은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어 참여 농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요처 개발을 통하여 일정부분 소득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지역 기후나 토양에 맞는 적절한 경관작물의 제시와 재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현재의 농업/농촌은 전통농업위주에서 농업·농촌·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마을경관을 이용한 농업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농촌마을가꾸기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가꾸기사업 외에 마을 내 사라진 옛것을 복원하고 농촌내의 많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전통우물터, 토담길, 생태하천 등 단위사업에 대한 상향식 농촌경관 복원지원사업이 필요하다.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대상이 주로 작물재배에 의한 경관조성 및 유지를 하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으나, 추후 보전되어야 할 지역 고유의 경관, 전통문화 자원, 농촌생활경관 등 농촌경관 구성요소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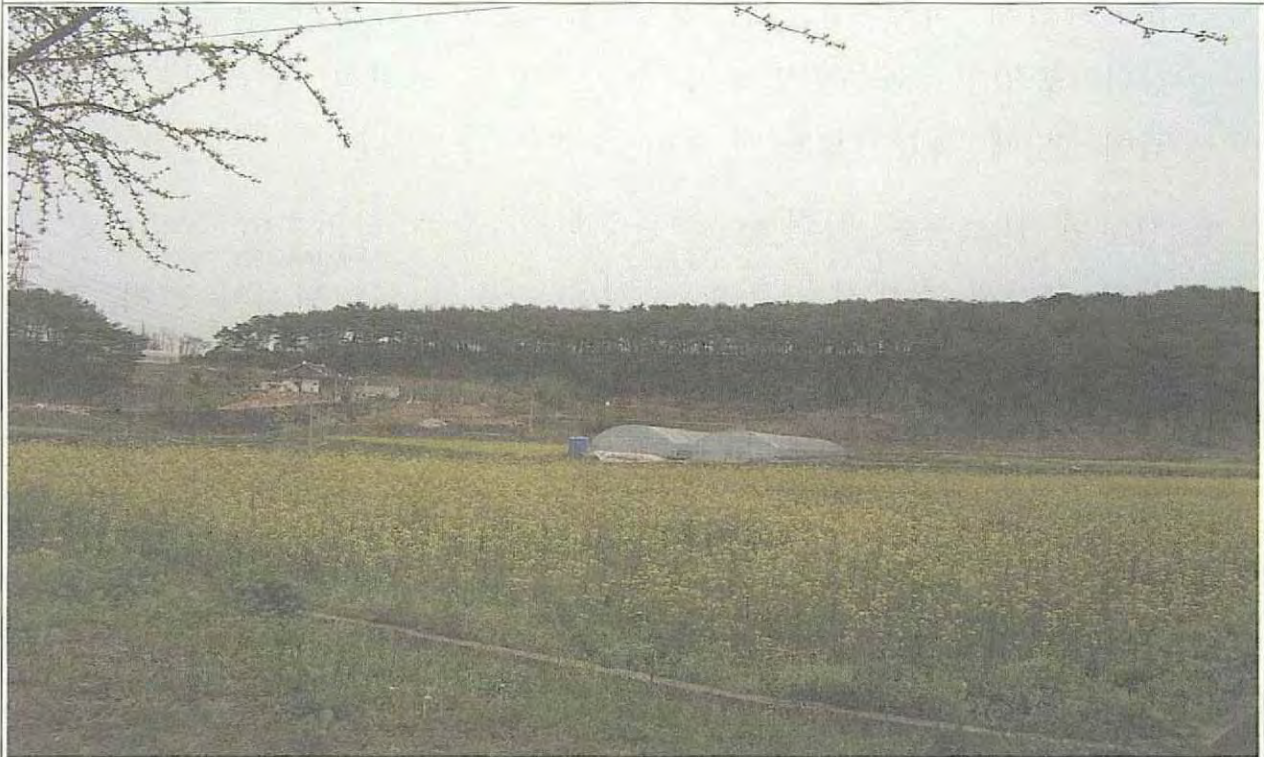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의 경우 경관보전과 관련하여 경관·환경보전정책, 직불제 정책 등이 있다. 경관·환경보전 정책은 규제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의 성격이 아직도 강한 편이며,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조례, 자연공원법, 정부와 계약 등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직불제 관련 정책으로는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불제는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보전·지역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인·농촌주민들이 약속이행을 잘하고,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 질 때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다.
- 정부의 보조금은 과학적·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논리 및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경제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선진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쫓아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정책도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관련 현장사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마을입구 부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마을입구(좌)>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마을입구(우)>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혼불박물관 주차장에서 본 유채>

2.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추진위원장 : 김승식)
- 신청자수 : 30명
- 참여자수 : 30명
- 참여농가수 : 30농가
- 참여면적 : 69필지, 230,000m²
- 경관작물 : 유채
- 마을현황
 - 약 350년전 제주 양씨와 광산 김씨가 처음 정착하였으며 마을 뒷산의 지형이 봉형이라 마을이름을 봉곡이라 하였으며, 지상에 성현이 배출 되면 봉이 출현했다하여 마을이름을 자랑삼아 불렀고, 광산 김씨의 후예들이 부명을 떨쳤던 마을이다.
 -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영산강과 인접해 있고 해발 150m 되는 마을 뒷산에 오르면 영산강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으며 특히 가을철 나주평야의 황금물결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로움을 맛 볼 수 있으며,
 - 또한 일제 강점기 금광을 개발했던 금광굴은 여름철 시원하고 겨울철 따뜻하여 휴식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 마을현황 >

가구수(호)		인구(명)		경지면적(ha)		시설채소	주작목
농가	비농가	남	여	논	밭	장미, 젓갈	잡곡 (팥, 수수, 조, 울무등)
40	10	30	50	50.2	10.8		

- 마을주변자원 : 주변자원은 영산강, 금광굴, 강둑(제방)이 있다.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로 강의 총 길이는 115.5km로, 담양군 요면 용추봉(560km)에서 발원하여 담양, 광주, 나주, 영암등지를 지나 영산강 하구 독을 통하여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마을 인근에서는 붕어 등의 민물고기도 많이 잡고, 이별바우와 석관정, 그밖에 바위절벽이 나뭇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금광굴은 과거 90여년 전 일본군이 금을 채취, 운반하기 위하여 파놓은 굴로 마을로 향하는 진입로 부근에 입구가 있으며, 강가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금광굴은 금의 채취보다는 운반을 위한 목적으로 파놓은 굴이어서 폭이 3m정도로 그다지 넓지 않으며, 굴의 안쪽 중간지점에는 3방향으로 폭 약 2m정도의 굴이 연결되어 있다. 마을 앞 논을 경계로 강을 따라 연결된 제방은 전체길이만 약 4km이고, 길게 뻗은 제방 도로변으로는 갈대가 자라고 있어 한적하고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과 굽이쳐 흐르는 아름다운 영산강을 볼 수 있다.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일 : 10월 초순
-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는 파종 후 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농가별로 겨울철 성실한 비배관리를 지도한 결과 2007년 4월 현재 경관작물(유채) 작황이 50~60cm로 고른 분포로 생육상황이 좋고 4월 초순부터 꽃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하여 현재(4월 중순)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수확시기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농촌전통테마마을(영산나루)과 삼한지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다녀간 뒤 5월 초순경에 수확할 계획이다.
- 수확현황 : 유채는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4월 중에 개화되고 5월 중에 결실, 등숙이 이루어져 6월초에 수확하기 때문에 춘파형 품종보

다는 추파형 품종이 생육기간이 길어 다수에 유리하다. 유채는 화아 분화, 추대 및 개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생육상을 경과한다. 제 1상은 저온조건을 요구하며 제 1상의 완료 후 제 2상은 장일조건과 고온조건을 요구한다. 저온요구도가 작은 품종은 춘파성 정도가 높은 품종이고 저온요구도가 큰 품종은 춘파성 정도가 낮은 품종이다. 우리나라의 재배품종은 춘파성 정도가 약간 낮은 조생, 중생종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여건이 개화기에 해에 따라서 비가 잦기 때문에 장마에 의한 과습과 과번무에 의한 통풍불량으로 균핵병 발생의 호조건이 되며 개화성기부터 임실초기의 한발은 진딧물이 다소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채를 재배할 때에는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재배지역에 적합한 품종선택과 재배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행정기관에서 경관작물에 대한 물리적 추가지원은 없으나, 경관작물의 본래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물과종에서 비배관리, 꽃만개, 관광객유치 등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꾸준한 지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관작물 만개시기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30호 농가들이 경관작물보전직불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식)를 결성하여, 유채종자 구입, 파종, 비배관리 등 사업시행 과정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추진 함으로써 유채재배의 양적 질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 농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 그 결과 경관보전직불제 전 사업지역에서 작물의 생육상태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 자발적으로 영산나루 부근의 하천부지와 삼한지 테마파크(주몽 촬영지)의 공유지 등에 유채를 심어 경관적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 경관작물 재배지역은 주몽 촬영지인 삼한지 테마파크가 인접해 있고 2005년 농촌전통테마마을(테마명:영산나루)로 지정되어 어린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험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농촌체험관광 마을로 마을가꾸기와 소득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 주민자체적으로 유채가 만개하는 시기인 2007년 4월 16일 ~ 2007년 4월 25일까지 "영산나루마을 새싹채소 꽃 잔치"를 마을축제로 개최하고 있다.

2) 면담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의견

- 공산면 신곡리 마을앞 들녘은 60여ha는 경지정리로 바둑판처럼 잘 가꾸어진 농경지로 2006년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하여 23ha를 시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60여ha 전 지역을 경관작물재배를 통하여 집단화된 유채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사업이 어려워져 가는 농업/농촌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관망하던 주민들도 대부분 협조하고 참여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다만 경작이 힘든 것에 대하여 보조금이 너무 낮아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벼의 경우 200평당 6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경관작물을 2모작해야 어느 정도 소득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유채, 메밀을 2모작하고 싶지만 메밀의 경우 소득이 200평당 3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따라서 유채의 경우 1ha당 17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을 올려주고 2모작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증액해준다면 참여농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 또, 경관작물재배로 대단한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마을가꾸기나 농촌관광 등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농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경관작물재배이후 가장 큰 변화를 방문객이 많아진 것과 마을이 활기 있게 됐다는 것을 꼽고 있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은 농촌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겨울철 작물로서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보리를 대체할 마땅한 작물이 없고 보리 재배농가 외에는 본격적인 농사철(4월 이후)까지 휴경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보전작물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특히 공산면은 대규모 유채단지를 형성한 이후 주몽촬영지를 중심으로 자발적 재배는 물론 새로운 작물 발굴에 의지를 가지고 유채와 유사한 십자화과인 브로콜리, 갓 등 유사작물에 대한 경관작물 확대와 보조금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고 있으며, 작물확대와 보조금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참여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나주시에서는 유채를 활용한 식물성 기름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경관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로 마을과 지역단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경관적 아름다움을 보러오는 관광객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작물을 이용한 농산물직거래, 민박, 농촌체험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 농촌경관작물을 이용

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전국적으로 농촌경관을 이용한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하여 농촌다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관광객유치 및 관광상품개발로 농촌어메니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공산면 신곡리 영산나루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이자, 주몽 촬영지 마을로 살기 좋은 지역가꾸기를 위하여 주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직화된 마을이며, 마을운영위원회 산하에 경관보전직불사업을 비롯한 분과 위원회를 두어 마을주민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 공동체의식이 뛰어나, 전통방식의 농사뿐만 아니라 마을 내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귀농인 유치, 체험관광객유치, 농산물가공품 개발 등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주민자체적으로 유채가 만개하는 시기인 2007년 4월 16일 ~ 2007년 4월 25일까지 "영산나루마을 새싹채소 꽃 잔치"를 마을축제로 개최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방문객은 단체, 개인, 가족단위를 포함해 5,500여명이 다녀갔으며, 공산면 신곡마을은 경관보전직불사업이 2006년도에 확정되어 올해 경관작물을 이용한 본격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유채재배 시 경제성은 미래농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 유채의 농업소득은 10a당 400kg 생산과 경영비 12만1,106원을 가정했을 때 국제가격(1kg당 330원) 적용 시에는 국내 쌀보리 소득의 6%에 불과

하지만,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제주도가 구매하는 가격(1kg당 820원)을 적용할 경우 114%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리 대체작목으로 유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채가격이 1kg당 760원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에너지 특별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품종개발 연구로 그동안 10개 품종을 개발했다. 특히 작물과학원은 겨울철 논 재배용인 <선망>은 10a(300평)당 생산량이 448kg에 이르고 기름 함유량도 45%에 달하는데, 올해 겨울부터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 유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유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개발, 작부체계 수립 등의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유채 재배농가에게 휴경보상제로 1ha당 347유로를 지원하는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적정수준의 소득 유지와 판로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
- 경관보전직불제는 소득작목 대신 소득이 되지 않는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손실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우선 기대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수준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참여농가의 기대소득을 감안한 적정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목은 조수입에서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일정규모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작물은 기후, 토양특성, 용수공급상황, 경사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며, 또한 농가들의 영농패턴, 그 지역의 작부체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작물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기란 어렵다.
- 따라서, 지원금액은 전국 재배면적, 기후, 토양조건, 영농조건 등을 고려하여 소득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사업대상지역은 농촌체험마을과 주변관광지,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읍·면에서 집행과 관리를 하고 군에는 보고만 하도록 함으로써 읍·면에 대부분의 재량권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관작물의 선정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지침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재배작목에 대해 제한을 할 경우, 지역별 특성화보다는 획일화의 우려가 있다.
- 경관작물의 경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밀식하는 등 소득증대를 위한 경작방법보다는 경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배·관리가 요구되므로 경관작물 재배·관리 요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야생화 등 비소득작목 이면서 경관조성에 영향이 큰 작물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작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유채, 메밀 등은 조수입은 있으나,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거의 없고, 자가노력비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 경관조성효과가 좋은 작목이나 야생화 등은 씨앗 값이 비싸 초기비용이 소요되고 다년초인 경우는 매년 씨앗 구매비용이 들지 않아 유리한 점은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어 참여농가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수요처 개발을 통하여 일정부분 소득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해바라기, 목화 등은 씨앗 값이 비싸고, 매년 파종을 하여야 하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재배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파종 및 자가노력비 정도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통망 확보가 필요하다. 경관보전직불제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

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목 식재를 유도하여 차별화된 농촌관광 이벤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 경관자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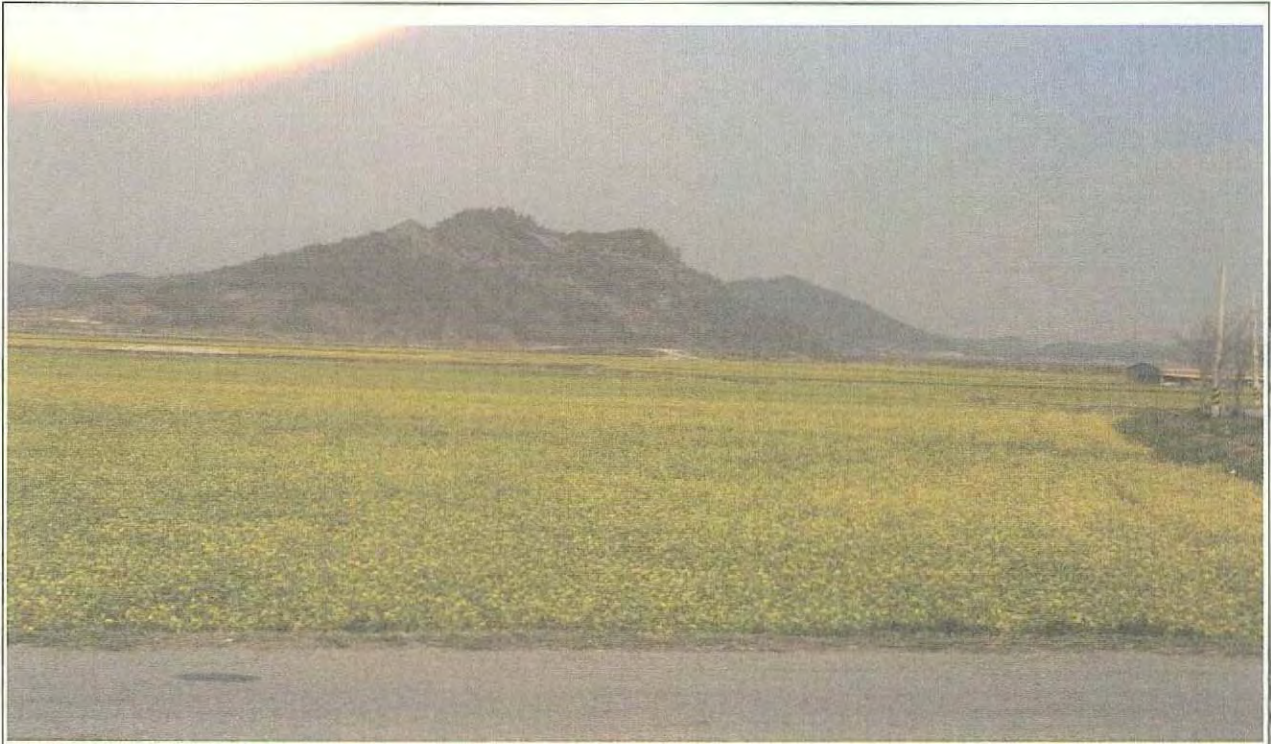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대상이 주로 작물재배에 의한 경관조성 및 유지를 하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 고유의 경관, 전통문화 자원, 농촌생활경관 등 농촌경관 구성요소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 이에 대한 연구로 농촌진흥청은 제주 전통 돌담의 공익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 평균값 월 15,853원을 이용하여 장래 제주방문객('06년도 550만명, '11년 655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불함수 계측결과 제주 전통 돌담의 공익적 경제가치는 '06년도 3,670억원, '11년에는 4,37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주 전통돌담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농림부가 실시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둘째는 문화재청이 실시하고 있는 명승지정을 통한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 현재 농림부가 실시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는 정책목적에 따라 9종이 있으며 이중 제주 전통돌담이 지닌 여러 공익기능 가운데 특히 경관 제공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적용가능한 직접지불제는 '0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과 같은 지역의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식재하는 농가에 대해 ha당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서는 작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작목별 소득을 내륙지방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을 경관작목만이 아닌 지역고유의 경관을 대표하는 돌담, 울타리, 전통가옥과 같은 어메니티자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도의 전통돌담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지를 통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들의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편 지원범위는 대상마을 내 밭담, 올렛담, 축담 등 모든 전통돌담에 대해 지원해야지만 이들 가운데 농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밭담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도 이미 외지인 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토지 원부등재자가 아닌 임차인을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돌담을 유지 보전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 지원금액은 밭담인 경우 1m를 보수하는데 평균 30,000원이 소요되며 연간 평균 파손되는 돌담길이가 200m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급상한을 연간 600만원으로 하여 지자체의 재원에 따라 지급상한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앞에서 제시한 공익적 경제가치인 3,670억원과 비교하여 보면 지원의 타당성을 가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주도에 거주하는 전체농가 38,000호에게 6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지급총액은 2,280억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들이 생산하는 공익적 경제가치보다 적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 상 전체 농가의 25%농가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570억, 돌담보전 대상지역으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이 추천한 지역의 5,000농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300억원으로 공익가치의 1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의 전통돌담은 농가들의 소득지원을 통해서도 보전해야만 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하는 정책은 없으나, 경관·환경보전 정책, 직불제 정책 등이 있다. 경관·환경보전 정책은 규제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의 성격이 아직도 강한 편이며,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조례, 자연공원법, 정부와 계약 등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직불제 관련 정책으로는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불제는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보전·지역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프랑스의 CTE, CAD제도는 직불제의 성격과 자연환경보전관리를 위한 규제측면이 동시에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될 때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보조금은 환경농업경영의 이행에 따른 손실과 자연환경을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 정부의 보조금은 과학적·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논리 및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경제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선진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쫓아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정책도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관련 현장 사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유채밭 3월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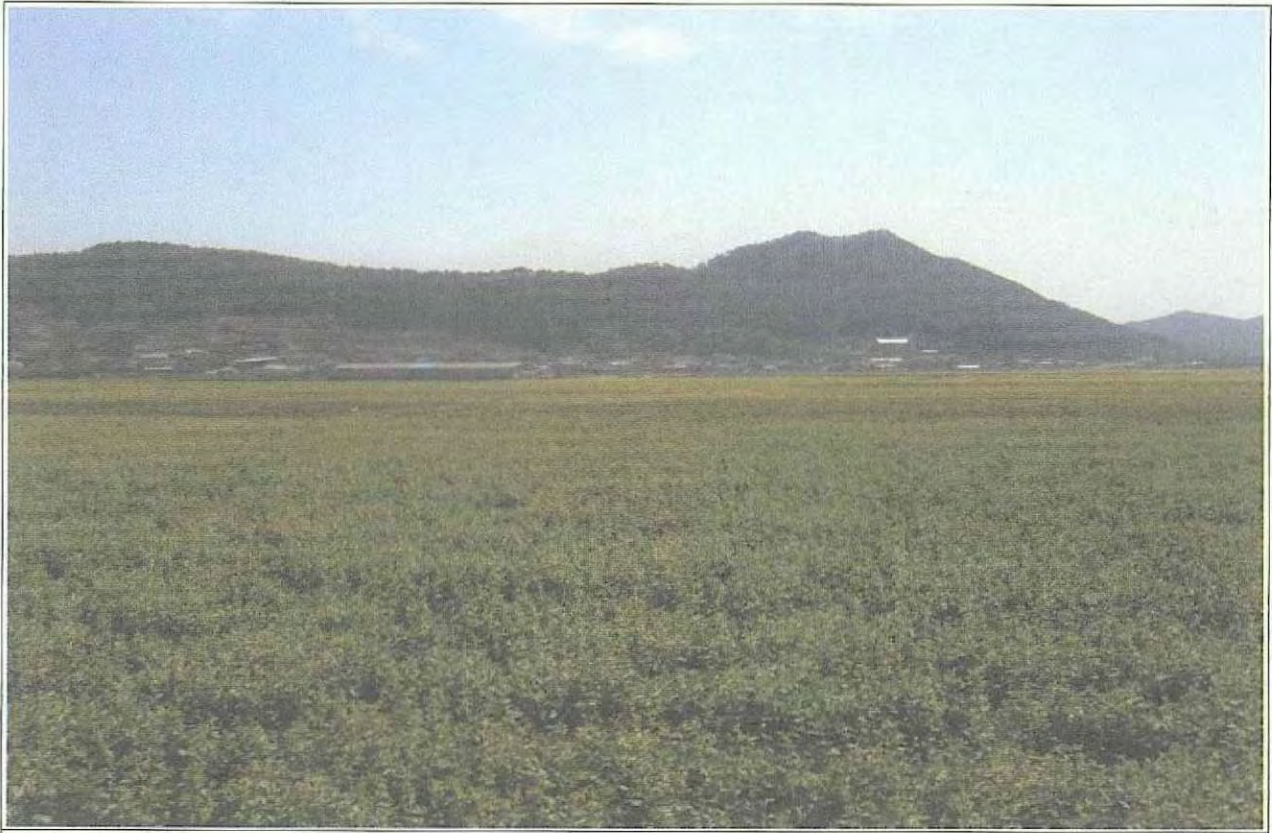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유채밭 3월말 >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유채밭 4월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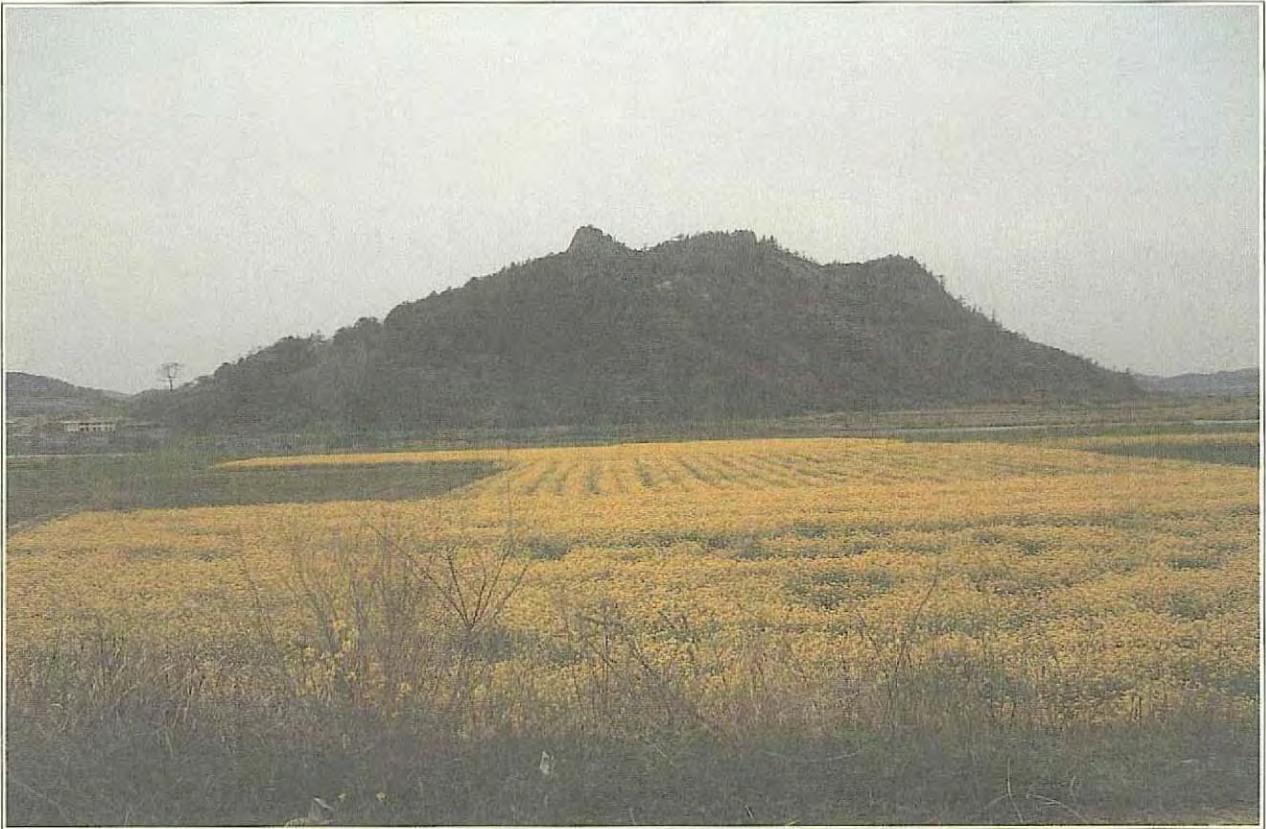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유채밭 4월초 >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유채밭 4월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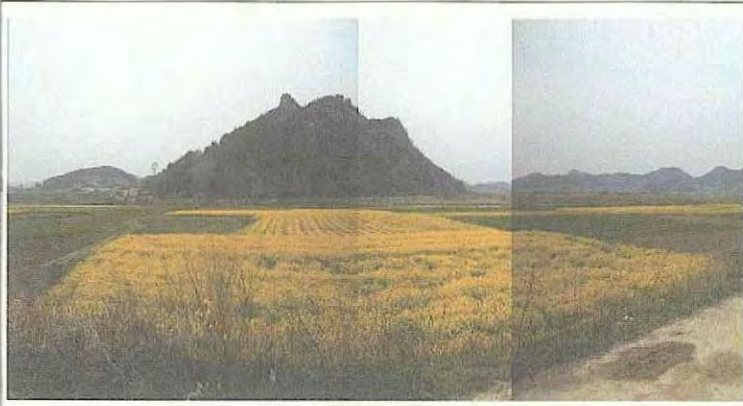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유채밭 4월초 >



<영산강 하천변 유채밭 4월중순 >



< 영산강 강둑에서 본 유채 4월 중순 >



<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 >



< 삼한지에서 본 유채 >



<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 >



< 영산강 강둑에서 본 유채 >

3.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
- 신청자수 : 27호
- 참여농가 : 27호
- 참여면적 : 93,782m²
- 경관작물 : 유채
- 마을현황
 - 가구 : 55호
 - 인구 : 126명(남61명, 여65명)
 - 경지면적 : 총 42.1ha(답 28.3ha, 전13.8ha) 호당평균 0.76.5ha
 - 농산물 : 벼, 콩, 보리, 유채, 메밀,
 - 수산물 : 김, 미역, 다시마, 낙지, 전어, 등
 - 마을위치 : 장흥군청에서 남쪽으로 40 km, 회진면사무소에서 남쪽으로 2km지점에 위치
 - 마을환경 및 자랑 : 마을 앞 득량만에 아침해가 솟아오르면 크고 작은 섬들과 바다 일을 하는 배 그리고 노력도와 연결 되어 있는 연육교가 어우러져 정말 그림과 같은 풍경이며,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지산"은 고깔처럼 뽕족하게 하늘로 치솟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법승의 머리를 방불케 하고, 그 정봉을 좌우로 길게 펼쳐 내려간 양쪽 산줄기는 앉아있는 법승의 장삼자락의 형상 같다하여 "천관산"이라 하였다. 이러한 마을을 배경으로 소설가 이청준님은 "선학동나그네"라는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또 영화감독 임권택님은 "선학동나그네"를 원작으로 하여 100번째 작품 "천년학"을 본 마을을 배경

으로 촬영을 하였으며, "천년학 '세트장이 본 마을 동편 재방 독에 만들어져있다. 그리고 인심이 좋고 모든 일들은 다함께 참여하여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마을로 범죄가 없어 칭송이 자자하여 1994년도에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검찰청" 지정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다 . 또 학산(공지산) 앞 마을을 감싸고 있는 3만여평의 밭에 전 주민의 협동과 단결로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게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 연혁

- 개촌연대 : 조선시대
- 입한조상 : 조선시대 청주 한씨가 설기를 하여 이곳에 거주했으며 그 후 조양 임씨, 진주 강씨, 김해 김씨, 경주 최씨, 광산 김씨, 경주 이씨, 경주 김씨, 강릉 유씨, 등이 입촌하여 성촌을 이루었다.

○ 행정구역 변천과정

- 1124년 (인종3년) 장흥부로 승격하자 장흥부에 속했다.
- 1759년 (영조32년) 대덕면과 저도면(덕도)이 있었다. 여기에 대덕면에 속하였다.
- 1789년 (정조13년) 대흥면으로 바뀌어 대흥면에 속하였다.
-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대흥면과 래덕면 (덕도일원)이 합하여 대덕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편당시 대덕면 회진리에 속하였다.
- 1980년 12월 1일 대덕면이 대덕읍으로 승격했다. 이때 대덕읍 회진리에 속하였다.
- 1986년 4월 1일 대덕읍에서 회진면이 분면 되면서 회진면 법정리로 회진, 진목, 덕산, 대리, 신상, 등이 합하여 회진면을 신설했으며, 본마을은 회진리에 속해 있다.
- 회진면 산저마을은 큰산 밑에 ,농장, 선자, 연동, 돌개동, 등의 다섯 개의 자연 마을이 합하여 대덕면 회진리 이회진이라 했으며 이장

한분이 맡아 보았다.

- 1962년 대덕면 회진리 이회진리는 분리가 됐는데 선자는 단일로 선 자라 하였고 연동은 돌깨동과 합하여 이회진이라 했으며 '큰산밑 에"는 "농장" 과 합하여 산아랫 마을이라 하여 "산저" 로 개명 되어 삼리각 마을에 이장을 둬으로써 현재까지 오고 있다.
 - 산저마을 초대 이장은 김금열님(김만오씨 부친) 이시다.
 - 1986년 4월 1일 대덕읍에서 분면이 되면서 지금까지 전남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로 되었다.
- 마을명칭변경신청
- 작가 이청준 선생의 작품 선학동 나그네 의 배경이며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하여 임권택 영화감독 100번째 작품 천년학의 주배경이며 영화세트장이 있는 곳은 본 마을 2반 농장이다 지금은 산저리 보다 " 선학동"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어서 마을 주민과 출향인모두가 명칭 변경을 희망하여서 마을명칭을 " 선학동 " 으로 개명신청을 해놓고 있다.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일 : 10월 초순
- 수확현황 : 유채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추위에 견디는 힘은 강한 편이 못 된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나 중북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아 봄 또는 가을 재배에 적합하며, 생육적온은 20~25℃ 이다. 유채는 토양의 비옥도가 높은 곳을 좋아 하며 약한 산성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햇빛과 적당한 수분이 있으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 유채는 배추과 배추속에 속하는 1년생 또는 월 년생 사료작물로 다 자란 유채의 키는 80~140cm이며 잎은 넓적하고 녹색을 띤다. 꽃은 배추꽃과 비슷하며, 사료작물 중 종자가 작은 편 이다. 유채는 재배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나 재배지역을 잘 선택하고 파종상을 잘 만들어 주어 초기생육을 도와준다면 양질의 유채를 생

산할 수 있다. 봄에 유채를 재배하는 것은 작부체계상 주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므로 유채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생종 품종을 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파종은 8월 하순, 만일 봄에 파종할 경우에는 남부지방은 3월 상순, 중북부지방은 3월 중순이 알맞다. 파종량은 1~2kg/10a가 알맞으며 파종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면 파종량을 다소 늘려준다. 유채에는 질산함량이 높으므로 퇴비사용 시에는 질소시비량을 줄여주어야 한다.

-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는 장흥군의 지원을 받아 수차례 농가별로 겨울철 성실한 비배관리를 지도한 결과 2007년 4월 현재 경관작물(유채)작황이 고른 분포로 생육상황이 좋고 4월 초순부터 꽃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해서 현재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수확시기는 경관작물의 본래 목적대로 영화 천년학 촬영지와 정남진 관광지, 갯벌, 유채축제 등으로 찾는 관광객이 다녀간 뒤 6월에 93,782m²을 수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1,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산책로 및 원두막 4개소를 설치하여 경관조망과 산책이 용이하게 조경을 실시하였으며 경관작물의 본래목적 취지에 맞게 작물파종에서 비배관리, 꽃만개, 관광객유치 등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꾸준한 지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관작물 만개시기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산저리(선학동) 이장(최귀홍)을 중심으로 유채종자 구입, 파종, 비배관리 과정을 공동추진함으로써 유채재배의 양적 질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 농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경관보전지역 전체 들녘 작물의 생육상태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 자발적으로 가로를 유채로 가꾸어

경관적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 경관작물 재배지역은 천관산과 천년학 촬영지가 인접해 있어 어린 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험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농촌 관광마을로 마을가꾸기와 소득원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체적으로 유채가 만개하는 시기에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산책로 및 원두막을 4개소 설치하였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음식, 나물 등 농산물 판매는 물론 마을청소, 마을 꽃길 가꾸기 등 주변환경 정비활동을 공동으로 행하고 있다.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천관산을 중심으로 학날개 아래 자리 잡은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는 2006년 경관보전직불제를 수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메밀을 2모작으로 도입 1년 내내 경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이 어려워져 가는 농업/농촌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관망하던 주민들도 대부분 협조하고 참여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경작이 힘든 것에 비하여 보조금이 너무 낮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채, 메밀 2모작을 원하고 있다. 메밀의 경우 200평당 30만원 수준으로 낮지만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1년 내내 양호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농촌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유채의 경우 1ha당 17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을 올려주고 메밀도 보조금을 현실화하거나 2모작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증액해준다면 참여농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 또한 경관작물재배로 대단한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하여 기본적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마을가꾸기나 농촌관광

등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경관작물재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방문객이 많아진 것과 마을이 활기 있게 됐다는 것을 꼽고 있으며 그 결과로 2모작 재배를 원하고 있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은 농촌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겨울철 작물로서 보리를 대체할 마땅한 작물이 없고 보리 재배농가 외에는 본격적인 농사철(4월 이후)까지 휴경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보전작물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특히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는 천년학 촬영지와 천관산을 중심으로 유채재배를 훌륭히 하고 있으며 메밀도 시험적으로 재배 2모작을 할 경우 훌륭한 경관작물재배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관작물 재배 후 수확물의 농협수매(최저가격 보장)나 보조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참여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로 마을과 지역단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경관적 아름다움을 보러오는 관광객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작물을 이용한 농산물직거래, 민박, 농촌체험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 농촌경관작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전국적으로 농촌경관을 이용한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사업으로 떠오

르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하여 농촌다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관광객유치 및 관광상품개발로 농촌어메니티를 증진시키고 있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는 천년학 촬영지와 천관산을 중심으로 유채재배를 훌륭히 하고 있으며 메밀도 시험적으로 재배하여 2모작을 할 경우 훌륭한 경관작물재배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전통방식의 농사뿐만 아니라 마을내 어메니티자원 발굴, 체험관광객유치, 농산물가공품 개발 등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체적으로 유채가 만개하는 시기에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문객은 단체, 개인, 가족단위를 포함해 3,500여명이 다녀갔으며, 경관보전직불사업을 2007년에는 2모작으로 유치하여 경관작물을 이용한 본격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수준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참여농가의 기대소득을 감안한 적정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은 조수입에서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일정규모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작물은 기후, 토양특성, 용수공급상황, 경사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며, 또한 농가들의 영농패턴, 그 지역의 작부체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작물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전국 재배면적, 기후, 토양조건, 영농조건

등을 고려하여 소득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지원금액이 너무 크면, 밭의 많은 면적에 경관작물을 심어 밭작물의 안정적인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지원금액이 적으면 경관작물을 심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종자대금, 경운비, 파종 및 수확경비(인건비), 보식 육묘장 등의 설치비용 등을 포함해 수확물의 처리(수매 또는 보상)를 고려해야 하며, 경관작물의 수확물량에 대한 수매 또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사업대상지역은 농촌관광의 부가가치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농한기 재배가 적합하므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경관작물 재배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패키지화하여 점진적 확대를 해야 한다.
- 또한 읍·면의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경관작물의 선정에 대한 중앙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밀식하는 등 소득증대를 위한 경작방법보다는 경관작물의 경관 효과를 얻기 위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요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경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후, 지형, 재배작물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선정 및 작부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 작물 선택과 전문가의 경관효과 검토를 통하여 경관작물 종류를 탄력적 선정할 수 있도록 대상작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해바라기, 목화 등은 씨앗 값이 비싸고, 매년 파종을 하여야 하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재배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파종 및 자가노력비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통망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 식재를 유도하여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경관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미 소득작물 경작을 통해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메밀, 유채 등의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의 경작 또는 식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 경관자원 검토

- 농촌 내 사라진 옛것을 복원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전통우물터, 토담길, 생태하천 등 단위사업에 대한 상향식 농촌경관복원 지원사업과 고유 경관, 전통문화 자원, 농촌생활경관 등 농촌경관 구성요소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현재 정부에서는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지역의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을 식재하는 농가에 대해 ha당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을 경관작물 식재만이 아닌 지역고유의 경관을 대표하는 돌담, 울타리, 전통가옥과 같은 어메니티자원의 관리를 위한 지원까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원방향은 지속적 영농활동을 조건으로 자치단체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협약 또는 경관조례에서 세부항목으로 경관보전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한 명승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의 경우 경관·환경보전은 규제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할여하고 있다.
- 정책예산은 과학적·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논리 및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사회·문화적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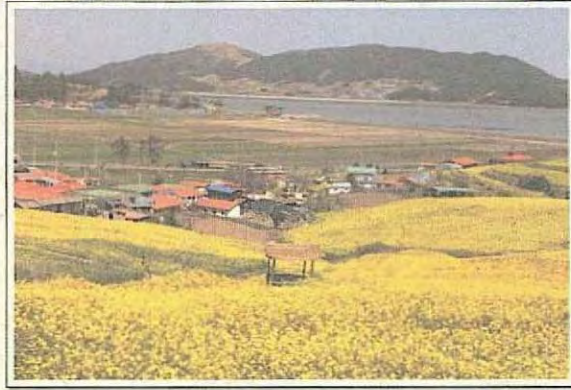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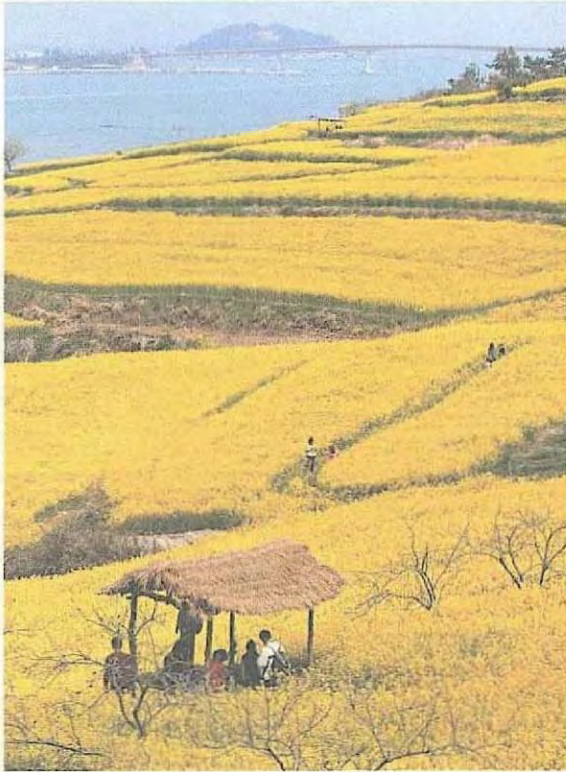
5) 관련 현장사진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 전경>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 유채밭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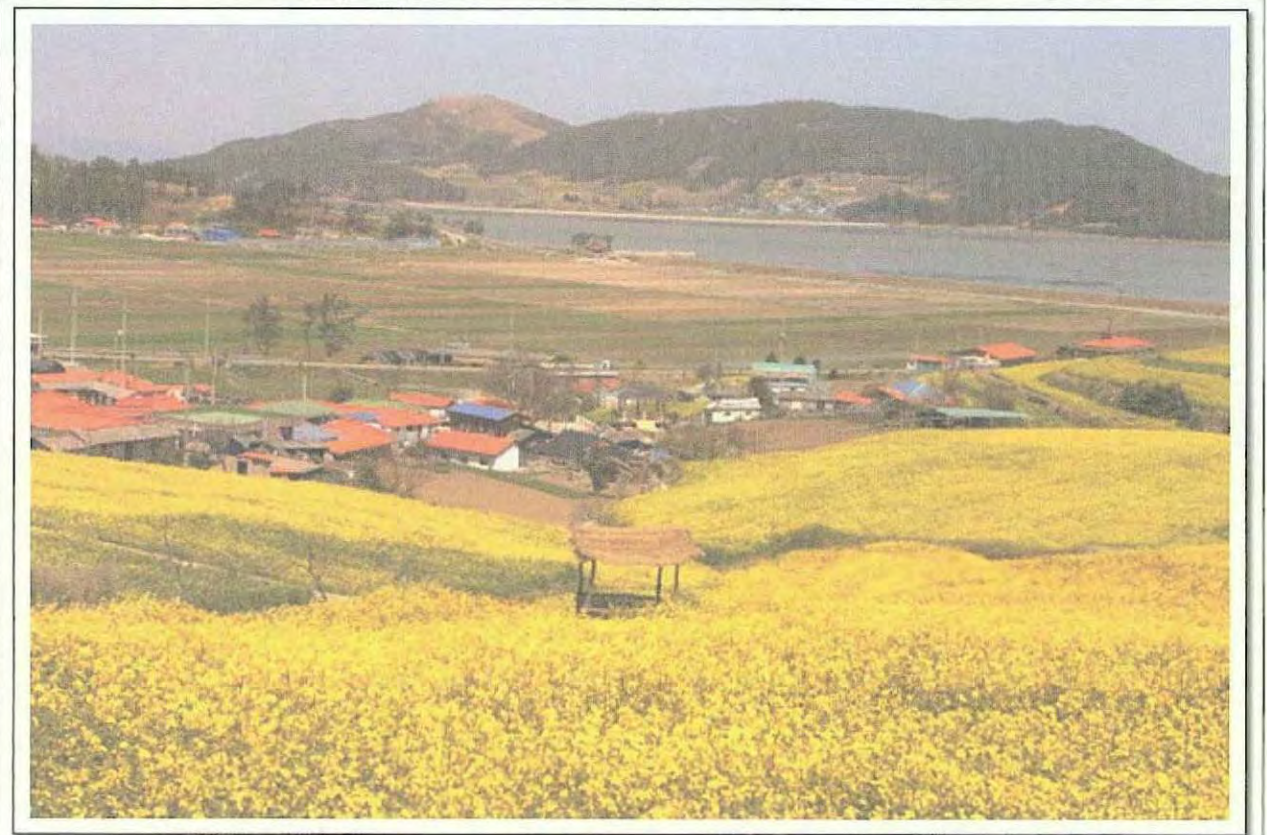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 유채밭 원두막과 산책로>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 유채밭 산책로>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 유채밭과 산책로>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마을) 유채밭 산책로>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
-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리 -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박경철

여 백

4.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3리(추진위원장: 이선우)
- 참여자수(농가수) : 81가구(175필지)
- 참여면적 : 230,000m²(23ha)
- 경관작물 : 유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농림부 경관보전직불 시범대상지 선정 '06. 5월
- 시범포 필지 경운 후 유채종자 파종 '06. 9월
- 유채밭아를 앞당기기 위하여 벼입모중 파종실시 '06. 10월
- 가을에 파종한 유채의 월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재파종 실시 '07년 3월
- 시범포 필지를 제외한 그 외 필지의 생육이 원활하지 못함 '07년 4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유채단지조성보조금으로 군비로 20,000천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동해로 인해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여 미지급함.
- 현재 이 마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에 해당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한 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여러 종자의 시범포를 마련하여 이 지역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법을 찾고 있음.

- 유채식재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대, 대전 시민환경연구소 등과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여 유채종자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 등 유채의 다각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음.
- 벼 수확 후 파종시기가 늦기 때문에 벼가 있는 상태에서 유채종자를 뿌렸으나 월동이 되지 않아 마을주민들이 봄에 2차 파종함. 하지만 현재까지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은 아님.
 - 이곳에서 유채를 답리작으로 재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확인함.
- 유채생육이 좋지 않아 다른 경관작물을 모색하고 있는데 향후 이 지역에 적합한 경관작물을 찾게 될 경우 마을에서는 이 지역을 그린 음악친환경농업지대로 조성해 경관작물 + 그린음악 +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는 대안적인 농업모델을 만들 계획임.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벼를 수확 후 유채종자를 파종할 경우 시기가 늦기 때문에 작년 10월 5일경에 벼가 있는 상태에서 입모 파종을 실시함. 하지만 콤바인 작업으로 모종이 상처를 입고 동해로 인해 생육이 불량하게 되었음. 그래서 다시 봄에 재파종을 실시함.
 - 일부 유채종자의 경우 발아가 안되는 종자가 있어 자가채종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
- 봄파종 역시 분화가 잘 안되고 날씨 변화가 심해 생육이 잘 안되고 있음. 봄에 파종한 유채는 대략 5월 15일경에 개화하는데 그렇더라도 추파보다 개화가 1개월 정도 늦어 모내기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벼 수확시기와 유채파종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생종 벼를 재배하여 유채 파종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보통 조생종 벼는

미질이 떨어져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포기함.

- 주민대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조생종 벼 대신 조생이 가능한 흑미 파종을 고려하고 있음. 이럴 경우 흑미와 유채의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방법 역시 첫 시도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경관보전직불과는 별도로 마을 자체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임.
- 마을에서 유채를 식재한 이유는 경관보전직불금의 수급이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곳이 친환경농업지구이기 때문에 순환농업 차원에서 유채를 식재하게 되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순환기유기농업에서의 유채는 지력증진 뿐만 아니라 경관조성으로 단지 방문객을 유치하여 유기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벼 수확 후 유채 파종은 시기적으로 월동이 어렵고, 봄 재파종 유채도 생육이 좋지 않으므로 향후 답수답에서 유채식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지자체 담당자는 유채파종 전부터 이랑을 만들어 파종해야 습해와 동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마을담당자에게 수시로 통지를 했으나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않고 마을에서 그냥 산파를 해 결과적으로 유채 생육이 불량하게 되었다고 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2005년 유채식재 후 지력 향상으로 벼 수확량이 다소 증가함.
- 하지만 친환경 벼재배로 인한 농가소득은 많지 않음. 따라서 경관작물과 함께 식재하여 어느 정도 소득보전을 꾀하려고 했으나 어려

움이 많음.

- 현재 이 마을의 친환경 벼재배 면적은 43ha임. 그중 41ha는 무농약 재배이고 나머지는 전환기재배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기대효과는 크나 생육이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효과는 부진한 편임.
- 마을에서는 경관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등 다양한 경관 및 녹비작물을 식재할 계획임.
- 농경지에서는 습해와 동해로 유채 생육이 잘 안되지만 보청천 주변 독에 심겨진 유채는 비교적 잘 자라고 있음. 마을에서도 보청천 주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등 경관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이라고 함.
- 사업대상지 내에는 전신주 첩탑이 여러 개가 있어 전체적인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 전신첩탑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마을대표에 따르면 첩탑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작물에 음악을 들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그린음악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유채생육이 저조하여 당초 예상했던 효과는 부진한 편임.
- 하지만 유채식재 결과의 부진과는 상관없이 마을의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도농교류도 비교적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음. 또한 시민단체와 교류가 많아 농업을 활용한 대안에너지 개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 지역은 대청댐 주변이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따

라서 마을주민들은 팔당댐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팔당댐 상류 지역 주민과 하류 지역 주민간 공동체적 교류를 모델 삼아 대청댐 상류(대전, 천안, 청주 등)와 하류지역(보은, 영동, 옥천) 주민간 지속적인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현재는 생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포함)

- 경관작물별로 종자단가를 고려하여 지급단가가 책정되기 바람. 그 외에는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이곳에서 유채는 경관 및 녹비작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대체할 계획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 현재 총채보리임. 현재 일부 면적(10ha)에 시범포를 만들어 총채보리를 식재하고 있음.
 - 총채보리를 식재할 경우 사료를 자급할 수 있어 축산이 가능할 것임.
- 마을에서는 경관 및 녹비작물로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등을 시험 재배했음.
 - 주요 이유는 첫째, 유기물을 보충할 수 있고, 둘째는 잡초를 줄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호밀재배가 가장 무난한 것으로 판명됐음. 하지만 문제는 종자를 모두 수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경관작물로서의 녹비작물은 식재목적이 상이하고, 작물의 감상기간이 짧아 농촌의 경관향상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여져 경관보전직불제에 녹비작물을 포함하여 경관작물을 다양화 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입 시에는 지원체계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작년에 처음 식재한 유채의 생육이 불량해 올봄에 다시 파종을 했으나 생육이 양호하지는 않음. 이 지역의 날씨가 비교적 춥고 습해 유채식재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
 - 지자체 공무원은 작황이 불량한 이유가 날씨의 원인보다는 경작방법, 즉 배수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임. 파종 전에 고랑을 파고 두둑을 만들어 파종을 했더라면 생육이 잘 됐을 거라는 의견임. 하지만 본인이 관찰한 결과 이 지역의 기후조건이 유채의 생육에는 잘 맞지 않아 아무리 경작방법 개선하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인위적 노력보다는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적절한 작물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업체 조언 필요 (컨설팅 제도 도입)
- 입모 파종 후 생육이 좋지 않아 다시 봄파종을 실시해 현재 3~4cm의 싹이 올라와 있음. 마을 대표는 이 싹들이 5월 중에는 개화를 한다고 하는데 개화를 하더라도 다시 시기가 늦을뿐더러 바로 모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채화를 감상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 보임.
- 마을에서는 4월말 유채생육을 보고 지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비료로 보강할 계획이며 유채생육상태를 보며 친환경 방문행사 결정을 해야 할 것임.
- 올해 작황이 나쁘면, 자체적으로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유채생산계획 예정이며 보조사업은 포기할 계획임.
- 나아가 단지의 순환기 유기 농업이 정착하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채생산이 순환시스템의 필연적 코스가 될 것임.
- 이 마을에서 경관농업을 도입한 이유는 물론 경관작물 식재를 통한 농업소득 보전의 목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마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순환농업 차원에서 경관작물을 활용

해 유기물 생산, 대안에너지 생산(바이오디젤) 차원에서 경관농업을 접근함.

- 결과적으로 유채의 생육이 잘 안 돼 마을에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이 마을은 현재 유채생육의 불량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경관작물, 녹비작물, 사료작물 등을 도입하여 마을 내에서 유기물이 순환되는 농업을 전개할 계획임. 또한 유기물의 순환 못지 않게 이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상수원 상류와 하류 지역주민간의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대전지역 시민 단체와도 연계해 대안농업 활동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단순히 유채식재와 생육결과만을 판단해 사업을 평가하기 보다는 마을 내 이러한 활동들도 참작하여 사업평가에 반영되기를 바람.

5) 관련 현장사진



2006년 10월 입모 중 파종사진



2007년 4월 유채(시범포지역)



시범포내 개화한 유채(2007년 4월)



봄파종 이후 생육 상황(작황이 양호하지 않음)

5.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신청자수	참여자수	참여 농가수	경관 작물	참여면적(m ²)
홍성군 서부면 궁리	1명	5	5	코스모스 유채	138,350m ²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코스모스 : 2006. 6. 20일 파종 완료
2006. 9. 30일 수확 완료(채종: 200kg)
- 유채 : 2006. 10. 20일 파종 완료
2007. 4월 현재 유채 개화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서부면의 지원으로 궁리와 남당리 사이 해안도로변 자투리땅 만5천평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추가 식재함.
- 서산시 천수만 A지구 방조제에서 바로 넘어오면 이어지는 이 해안도로는 최근 남당리의 대하축제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해안가 주변 경관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홍성군과 서부면에서는 이 해안도로에 전망대와 휴게소를 건립하는 한편 도로 주변에 화초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군과 마을주민들은 궁리마을을 장기적으로 체험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홍보할 계획임. 이곳에는 바지락채취장 등이 있어 경관자원과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체험마을을 조성할 경우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추진위원회가 전 면적에 대해 공동경작을 하고 있으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 참여 횟수별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경관작물의 식재와 관리에 대한 주민활동은 많으나 경관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창출활동은 미미한 실정임.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현재 경관작물은 소득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미미한 수준으로 직불금을 상향조정하고 소득작물을 경관작물에 포함시켰으면 함.
- 유채의 식재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가을 파종한 유채의 생육이 불량할 경우에는 봄에 다시 파종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 또한 갈수기 때 물을 충분히 대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본 사업이 농촌경관보전에는 도움이 많이 되나, 소득작물이 아니므로 참여 농가수가 적음. 농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작물이 소득작물이 아니라 직불금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 농가소득 향상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마을주민들도 경관을 활용한 소득창출 활동, 예를 들어 만개 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이나 농산물 판매 등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음.
- 경관작물로 인한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은 미미하나 이곳을 찾는 관

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겸업으로 운영하는 수산물음식점의 손님들 숫자도 늘어나 간접적인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 마을의 경관지구 입구에는 모텔이 하나 있는데 경관작물 식재 이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함. 모텔 대표는 이에 대해 마을주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고 함. 경관작물 식재로 인한 소득을 마을주민들에게 흡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대상지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휴경지가 대부분으로 사업시행 후 마을 경관 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가 우수함.
- 특히, 코스모스와 유채식재 이후 이곳을 지나가는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해 지자체에서도 경관작물 식재를 해안가 주변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음. 군에서는 이곳 해안도로를 지역의 새로운 관광루트로 활용하고자 경관작물 식재 확대, 해안전망대 조성, 도로가 화초식재 등 경관과 관광요소를 확대 조성하고 있음.
- 군에서는 임해관광도로 주변에 부영화, 패랭이꽃 등을 식재·관리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대상지 주변에 머무르는 장소가 없어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나 마을 환경개선으로 주민간 공동체의식은 높아짐.
- 또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은 미미하나 마을주민들이 겸업으로 운영하는 수산물음식점에 찾는 손님들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가을철 인근 남당리에서 개최되는 대하축제 때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어나 어떤 식으로든 마을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곳 마을주민들도 만족하고 있음.

- 마을주민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은 계획하고 있지 않아 보임. 다만, 최근에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자 다음해에는 방문객들이 경관작물을 좀 더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이나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임.
- 홍성군에서는 여건이 더 성숙되면 이곳을 농촌체험마을(갯벌체험)로 육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함.
 - 하지만 당분간은 경관작물 식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마을지도자(이장 등)가 고령화되어 있고 비교적 젊은층은 수산업 및 수산물판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동인은 약해 보이기 때문임.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포함)

- 경관작물이 소득작물이 아닌 관계로 직불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비·경운·종자확보 등 초기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 중 일정액을 조기에 지급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작물기준 등)

- 사업대상지역이 이전에는 버려진 염전터였음. 이후 마을주민들이 개량해 농경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염기가 많아 농사가 잘 안돼 방치하여 쓰레기가 투기된 지역이었음.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다시 합심해 이곳에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해 현재는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음.
- 마을에서 시작한 경관작물식재가 주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자 이를 점차 확대해 해안도로 주변까지 확대하였음. 현재에는 서해안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채와 코스모스 군락을 이뤄 무심코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있음.

- 하지만 사업대상지 주변에 갯벌체험 마을, 유명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조건이나, 소득이 높지 않아 참여 농가가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작물을 경관작물로 추가 지정하면 농가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어 경관보전직불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군에서도 이곳을 임해관광도로로 개발하기 위해 도로주변 정비와 화초식재, 전망대와 휴게소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궁리에서 전망대 부근까지 조성되어 있는 경관작물을 임해관광도로의 끝지점인 남당리까지 경관작물을 확대 식재할 계획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재 경관작물이 소득작물이 아니라 농가 참여가 저조하므로 기존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소득작물 등 집단화 가능 작물을 경관사업에 포함하길 희망함.
- 소득작물로는 보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군에서 해안도로 주변에 패랭이와 부영화를 식재하고 있음.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경관작물 식재지역에 원두막, 정자 등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마을입구에 장승, 돌탑 등 과거 농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설 설치지원이 요구됨.
- 경관요소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경관을 해치는 요소의 제거도 중요함. 이곳 마을입구에는 모텔이 있어 경관지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음.
- 궁리지역이 장기적으로 갯벌체험마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 마을입구에 들어서 있는 모텔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군에서 매입해 건전한 갯벌체험시설, 청소년교육시설 등 문화시설로 활용한다거나 건물주 스스로 용도를 변경해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유채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파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함. 파종이 조금만 늦어도 작황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음. 또한 유채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우기에는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곳 사업대상지는 약간 저지대이어서 물빠짐이 좋지 않아 생육에 지장을 줌. 또한, 날씨가 가물 때는 도로주변 부지에는 살수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동원하여 직접 살수를 해야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됨.
- 최근 경관작물의 확대로 인해 종자대가 상승하고 있음. 또한 직불제 시행 이후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음. 사업대상지구의 실제 소유주는 대부분 외지인이고 이전에는 거의 무상으로 경작을 했으나 경관보전 직불제 실시 이후에는 임대료가 약간씩 상승하고 있음.
- 이곳 궁리와 해안도로 주변은 수자원보호구역이자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경지를 전용하기는 힘든 상태임. 특히 이 지역은 투기로 인해 농지가격은 상승된 상태이나 토질이 척박해 농작물식재로는 부적합해 경관작물 등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따라서 주변 농경지의 사업 집단화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소득작물 등을 경관작물에 포함시켜 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작물식재 후 재배관리를 위한 활동 소요 일수 판단
 - 년 100일: 시비(15), 잡초제거(30), 논·밭두렁정비(20일), 탐방로 정비(15), 기타관리(20일)

5) 관련 현장사진



서산방조제 방향에 식재된 유채밭(개화상태가 비교적 양호함)



마을입구에 건립된 모텔이 마을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음.



대상지 남쪽 유채밭(개화상태가 다소 불균일함)



해안도로 주변에 식재된 유채(지자체 자체적으로 추가식재함)

6.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신청자수	경관 작물	참여면적(m ²)				
			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리	8명	유채	61,399	61,399	-	-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유채 : '06. 10월 중순 ~ '07. 5월 중순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작물과 관련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하지만 시에서는 이 마을을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의 대표마을로 육성하고자 도시민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이 마을은 경관직불 시행 이전부터 1사1촌 교류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사업은 부진한 편임. 최근 경관작물 식재로 인해 마을주민들은 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1사1촌 교류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면담 내용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농촌체험마을이기도 한 이 마을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농업인들에게는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고 도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함

으로써 더 많은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마을주민들도 경관농업을 계기로 주민간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올해도 유채개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됨. 유채개화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채가 자랄 수 있는 기후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마을대표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유채대신 이곳에서 자생하는 시내나파(이 지역에서 통상 부르는 이름이지 정확한 명칭은 아닌 것으로 보임. 유채의 일종으로 원산지가 일본인 것으로 추측되는 이 작물은 화아형태가 유채와 거의 비슷하나 유채보다 각지가 많이 달려있으며 꽃대는 식용으로도 가능함.)를 확대 식재할 계획임.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내방하는 도시민들이 꽃을 구경할 수 있고, 추억을 담을 수 있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함.
- 포항이라는 대도시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을 향후 포항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할 계획임. 더욱이 올해가 '경북 방문의 해'인 만큼 마을 내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경북과 포항을 찾는 방문객을 이 마을로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도와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이전부터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이 마을은 경관작물 식재 이후에는 유기물비료의 투입이 적어 생산비 절감 효과를 봄.
- 아직 많지는 않지만 유채식재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 소득이 다소 증가했음.
- 농외소득의 대부분은 분재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농산물판매로 인한

소득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농촌체험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음.
-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을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왔으며 약 10전부터 유기농업을 했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 실시 이후 유채식재를 통해 친환경농업지구의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올해 방문객 수는 대략 100명으로 아직 방문객 수는 많지 않으나 방문객들은 바쁜 도시생활을 잠시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농촌풍경을 체험함.
- 올해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북도의 협력으로 서울 등지에서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 도시민들이 방문할 예정임.
- 최근 방문객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마을에서는 내년부터 유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임.
 - 아직까진 지명도가 높지 않지만 축제를 개최해 서서히 인근 대도시에 마을을 알려 더 많은 도시인들이 마을을 찾아 농촌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임.
 - 현재 유채밭에 이렇다 할 관광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유채밭에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을 설치하고 하트모양의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임.
- 마을에서는 체험활동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도시민 가족들이 찾아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테마형 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임.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포함)

- 지금단가는 적절하다고 판단함.
- 다만, 최근에 유채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단가도 상승해 종자대를 보전해 주었으면 함.
- 이 지역은 대도시 인근지역이지만 경지정리가 안되어 농촌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음.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마을 앞 농경지에 경관작물을 확대 식재하고 도로는 황톳길로 조성해 이 마을을 좀 더 정감어린 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작물기준 등)

- 마을의 앞뒤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 전체적으로 안온한 분위가 있고 근 10년 동안 친환경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경관작물을 식재할 경우 마을의 정감어린 분위기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됨.
- 주민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경관식재 면적을 8.6ha로 확대할 계획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시내나빠라고 불리는 유사유채 품종을 확대 재배할 계획임. 이 품종은 유채와 거의 비슷하나 유채보다도 생육상태가 더 좋다고 함.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마을 가운데에는 오래되고 방치된 돌담들이 있음. 이러한 전통돌담을 조금씩 복원한다면 훌륭한 마을경관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임.
- 마을주민들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복개된 실개천을 복원시키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 도로를 황톳길로 복원할 구상을 가지고 있음.

- 마을뒷산 정상에는 예로부터 봉홑불을 지피는 봉수대가 남아있음. 현재 봉수대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곳 정상에 올라가면 구룡포의 아름다운 일출광경을 감상할 수 있음.
 - 마을주민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일출광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산로 겸 산책로를 새롭게 개설할 계획임.
- 마을 뒤편에는 광남서원이라는 꽤 큰 서원이 하나 자리잡고 있음. 건물구조도 독특하고 역사적 의의도 있어 군과 도에서 문화재로 인정하고 있으나 서원내부의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음. 마을에서도 현재 서원건물 중 일부를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장소로 개조해 활용하고 있으나 이용은 많지 않아 보임.
 -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경관작물 식재의 확대 등을 통해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방문할 경우 서원을 서예와 한문교육, 세미나 장소 등으로 개방해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마을 내에서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분재만들기 체험임.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농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재만들기 체험에는 마을에서 생산하는 소나무와 허브 그리고 주변의 돌 등을 활용함. 완성된 분재는 도시민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함.
 - 분재를 체험활동이나 판매의 소재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마을 내 보급을 통해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활용한다면 마을경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작년에 파종시기가 약간 늦어져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임. 올해는 파종시기를 약간 앞당길 계획이며 품종도 유채와 약간 비슷한 시내나파(일본종)를 시범적으로 파종해 볼 계획임.

- 이 지역에서는 경관작물인 유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개선효과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위한 녹비작물로서도 이용하고 있음. 동계작물을 식재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녹비작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계작물의 지원금액을 축소하여 사업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마을은 농업경관뿐만 아니라, 돌담, 서원, 분재, 봉화대가 있는 뒷산 등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관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잘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임.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의 부족 때문임. 조만간 이 마을에도 젊은 인력이 유입이 되어 이러한 활동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마을은 농업경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마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마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들 건립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체험활동과 경관보전 및 창출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마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5) 관련 현장사진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지구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지구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지구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지구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
-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

2006. 11.

한 국 농 촌 공 사
윤 진 옥

여 백

7.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161-1번지 외 48필지
- 참여농가 : 11 농가
- 면 적 : 78,140m²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 유채
- 파 종 량 : 70kg/ha
- 2005년 시범사업 시작 때는 벼 수확 후 사업 당해년도 9월~11월에 파종하였으나 겨울철 월동 기간 중에 대부분 동사하였음.
- 다음연도 3월에 재파종하여 6월 초순에는 유채가 만개하여야 하나 생육이 부진하였고, 적기 모내기로 인한 경운으로 경관작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음.
- 2006년에는 월동기간 중의 동사방지를 위해 3월 춘파를 하였으나 여전히 유채의 생육이 부진하여 농촌경관보전 및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사업성과가 다소 부족하였음.
- 이 지역은 평야지로서 일조량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나 작부체계 및 기후여건 등으로 생육부진 및 개화불량.
- 주재배 작물은 수도작으로서 벼 재배품종은 흑미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앙은 6월초이고 수확시기는 10월초임.
- 벼 수확 후 적기(9말~10월초)에 유채를 파종할 시 어느 정도 성장하여 월동의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벼수확 후 볏짚을 가축 조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논에서 말린 후 벧짚을 수거하기 때문에 적기파종이 곤란한 실정임.

- 전년도 가을에 파종한 유채의 경우 생육이 불량하여 초장이 짧고 동사하는 등 5월 개화(사진참조)시 경관작물 효과가 미흡하였음.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농업기술센터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비배관리 및 비 이앙 및 수확과 연계된 작부체계 등에 대한 지도를 하였음.
- 원주시에서도 고속도로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5차례 현지점검 및 재배농민 지도를 하였음.
- 경관보전직불금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없었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참여농가 전원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채꽃 연구소인 농촌진흥청 호남시험장을 2005년 10월에 견학하였고 2006년 5월에는 충북 청원군의 오창 유채축제를 견학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 유채의 원활한 발아 및 생육을 위하여 파종기를 임대하여 파종하였으며 재배지의 배수관리 및 적절한 시비와 제초작업 등의 공동작업에 농가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촌경관 조성뿐 아니라 토종별의 밀원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음.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부론면 흥호리는 장수마을로서 농촌경관 뿐 아니라 토종별 사육의 밀원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며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신청 및 성실한 재배를 추진하였으나, 선정 작물인 유채의 경우 겨울철 동사와

생육상태 및 개화불량으로 유채재배는 계속사업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사업대상지가 국도를 따라 연결되어 있고 장수마을로서 농촌경관 뿐 아니라 토종별 사육의 밀원으로서의 효과는 기대되나 경관작물에 있어 유채재배 보다 저온에 강한 품종 등 다른 작물로의 개발이 필요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생육상황 및 개화상태가 양호할 시 농촌관광자원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가 가능하나 농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관조성효과가 미흡하여 농가소득향상에의 기여가 미약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고속도로변으로 적기 재배 및 개화양호시 경관조성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유채꽃 경관조성 및 밀원재배를 위한 노력으로 마을 공동작업을 통한 파종·비배 노력과 관련 기술연구소 방문 등을 통한 재배기술 학습을 하는 동안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음.
- 향후 품종개량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야생화 등)을 재배할 경우 농촌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포함)

- 현재 지급단가 및 지급방식, 시기 등이 적정하나 사업실패 시(개화 불량 등) 작물과중 및 비배관리 등 추진상황이 인정될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필요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고속도로변이라 사업대상지역으로서는 적합함.
- 원주의 기후적 조건으로 인하여 유채 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이 보다 필요하며 주요 작목과의 이모작을 고려한다면 유채 작물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강원도의 경우 산간지역이 많은 지형 특성상 사업대상의 면적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음. 따라서 현행 면적기준을 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화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각 지역에 맞는 경관작물로 다양화가 필요하나 그에 상응한 경관작물 개발이 필요.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고속도로변 등 주요도로변 등 농촌경관주택 어메니티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경관 조성과 연계추진도 필요.

5) 관련 현장사진



< 유채 개화상태 >



< 유채밭과 마을전경 >



< 유채밭의 모습 >



< 유채 개화상태 >

8.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 신청자수 : 62농가
- 참여면적 : 47ha
- 확인면적 : 47ha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 유채
- 파 종 량 : 25kg/ha
- 종자가격 : 25,000원/40kg
 - ※ 종자 구입은 농협을 통해 마을단위로 일괄 구입하여 파종
- 파종시기 : 전년도 8월~10월에 걸쳐 파종
- 개화시기 : 4월 초~4월 말에 걸쳐 개화하며, 4월 10일 경이 만개하는 시기임. 전년도 8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파종을 했어도 개화 시기는 유사함.
- 수 확 량 : 파종면적에서 수확량은 거의 없음. 우도면 상주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이어서 수확, 탈곡 작업은 기계화가 되지 않는 한 어려워 종자 수확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음.
- 제주도의 기후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 경작지 작물보호를 위해 돌담을 쌓아두고 있는데다 필지당 면적이 작아 사실상 기계화 작업이 어려움.
- 유채 재배 후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등 영농비

부담이 많은데다, 도서지역 여건상 유채 수확시기가 해산물(우뭇가사리 등)의 채취 시기와 겹쳐 농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수확을 포기하고 있음.

- 우도면 지역은 땅콩 및 마늘 주산지로서 휴농기에 경관작물인 유채를 재배하고 있고, 경관조성 후에는 트랙터를 이용해 파쇄 경운을 하여 녹비로 활용하고 있음.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직불금 170만원에 지자체에서 ha당 45만원의 소득지원금을 추가하여 ha당 2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관직불제 대상면적 47ha 외에 75ha를 추가로 자체 지원하고 있음(총면적 122ha 지원).
- 지역축제인 유채꽃잔치 행사비로 제주시 관광진흥과와 우도면 공동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축제 행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편의시설 설치, 교통질서 유지, 행사장 주변 청결 유지 등을 지원하였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유채꽃 파종 후 성실한 재배관리 및 마을청소 등을 자발적으로 시행하였음.
- 유채꽃잔치 기간 중 행사장 주변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에 자원봉사를 하였음.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유채 수확을 위한 인력확보가 어렵고 생산비용 증가로 유채 종자

수확은 사실상 어려움.

- 유채 결실을 기다려 종자를 수확한 후 이모작으로 땅콩을 재배하기는 어려우나 마늘재배는 이모작이 가능할 것임.
- 우도의 경우 타작물 재배시 해풍 등에 의한 자연 피해가 많은데다 종자대, 비료대, 제초대 등의 생산비용이 들어 실질적 소득이 높지 않은 반면에, 유채재배는 비료나 제초제, 경작관리 비용 등이 비교적 적게 들어 타작물보다 오히려 소득효과가 높아 경관직불제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큼. 따라서 경관직불제 대상면적의 대폭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경관직불금, 종자대, 조건불리직불, 지자체 추가지원 외 수확작업 기계화 및 수매 시 생산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농가소득향상은 물론 바이오디젤 원료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인 경우가 많은데다, 소유주들의 토지 임차계약서 작성을 꺼려하여 사업참여가 어려움.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경작확인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실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람.
- 경관직불제로 인해 우도의 농가 대부분이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참여하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신청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원 면적을 확대하여 주기를 바람.
- 유채를 경관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파종 및 재배관리에 드는 생산 비용이 타작물에 비해 양호한 편이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맥주보리 소득액 기준으로 ha당 2,650천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이 되기를 희망함.

-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사업』과 병행 지원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휴농기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타작물에 비해 생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 실질적 소득효과가 좋은 편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우도면 전체 4개리에 식재된 유채꽃이 섬전체를 노란색으로 물들여 바다의 푸른색과 대비되는 독특한 경관을 조성함.
-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재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떠올리게 한다는 평을 얻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유채식재 후 마을청소를 수시로 시행하고, 유채꽃잔치 기간 중 행사장 주변정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유채꽃 식재에 의한 경관창출로 지역축제인 유채꽃큰잔치가 우도에서 2007년 4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고, 기간 중 약 3만명이 우도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우도민이 운영하는 도항선 이용료, 관람차량이용료, 음식점 이용, 특산물 판매 등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축제기간 내 우도를 방문한 관광객 3만명 중 1만명 정도는 1인당

약 10만원 가량 소비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축제기간 중 우도면에 20억원 정도의 관광소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유채와 연계한 지역축제 개최 현황

□ 축제 개요

- 행사명은 '2007 제주봄대축제'로서 제주시에서 주최하는 '제25회 유채꽃잔치'와 연계 추진하여, 우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유채축제를 유치하였으며, 5월 현재 행사 개최에 대한 평가 분석이 진행 중임.
- 제주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유채꽃과 섬속의 섬 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한 축제로 구성하여 우도를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한 것이며, 제주관광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제주시가 주최하였음.
- 축제 장소는 우도면 일대로서 기간은 2007. 4. 9 ~ 4. 15 까지 진행되었으며, 도항선 탑승관광, 섬문화 체험(바닷잡이, 해녀 잠수체험, 원담고기 잡기 등), 농경체험(우도 땅콩까기), 유채꽃길 걷기 등의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부대행사로써 우도 상품 등의 전시행사를 하였음.

5)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사업시행의 주요 목적을 정부에서는 농지의 보전과 경관조성에 의한 지역활성화 도모라는 보다 큰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경관직불제를 실질소득의 차원으로 보고 있어, 평당 700~800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지급단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규모 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소규모 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지급단가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도의 농지는 경지정리가 불가능하고 필지당 면적이 작아 소규모 면적이 대부분이나, 타지역에서 대규모 면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파종과 수확 등을 기계화작업으로 시행하므로 인건비 등의 부담이 적어 현재의 지급수준으로도 적절하며, 소규모 면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높이는 지원단가의 이원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급단가를 많이 올릴 경우,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재배관리의 소홀이나 비교적 재배가 쉬운 유채나 메밀 등의 특정 작물의 전국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직불금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 협약체결 등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작물기준 등)

- 우도면은 서광리를 포함한 면내 4개 마을이 유채재배에 참여함으로써 면적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며, 섬 전체에 독특한 경관조성에 따른 관광소득 등 지역활성화 효과가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우도 및 제주 지역은 기후 여건상 유채 재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임. 섬 전체에 유채 한가지로 경관조성을 하여 통일감을 주고는 있으나, 도서지역의 특용작물이나 자생식물을 개발하여 일부지역은 변화감을 줄 필요가 있음.
- 유채나 메밀 등 몇 가지 작목으로 전국을 획일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식물이나 지역적 차별화가 가능한 작물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검토·개발하여 제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다양화를 유도

하여야 할 것임.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농촌마을의 지역색 있는 수목이나 고목, 갈대 군락지 등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농촌마을에 방치되고 있는 전통건축물
- 마을내 소류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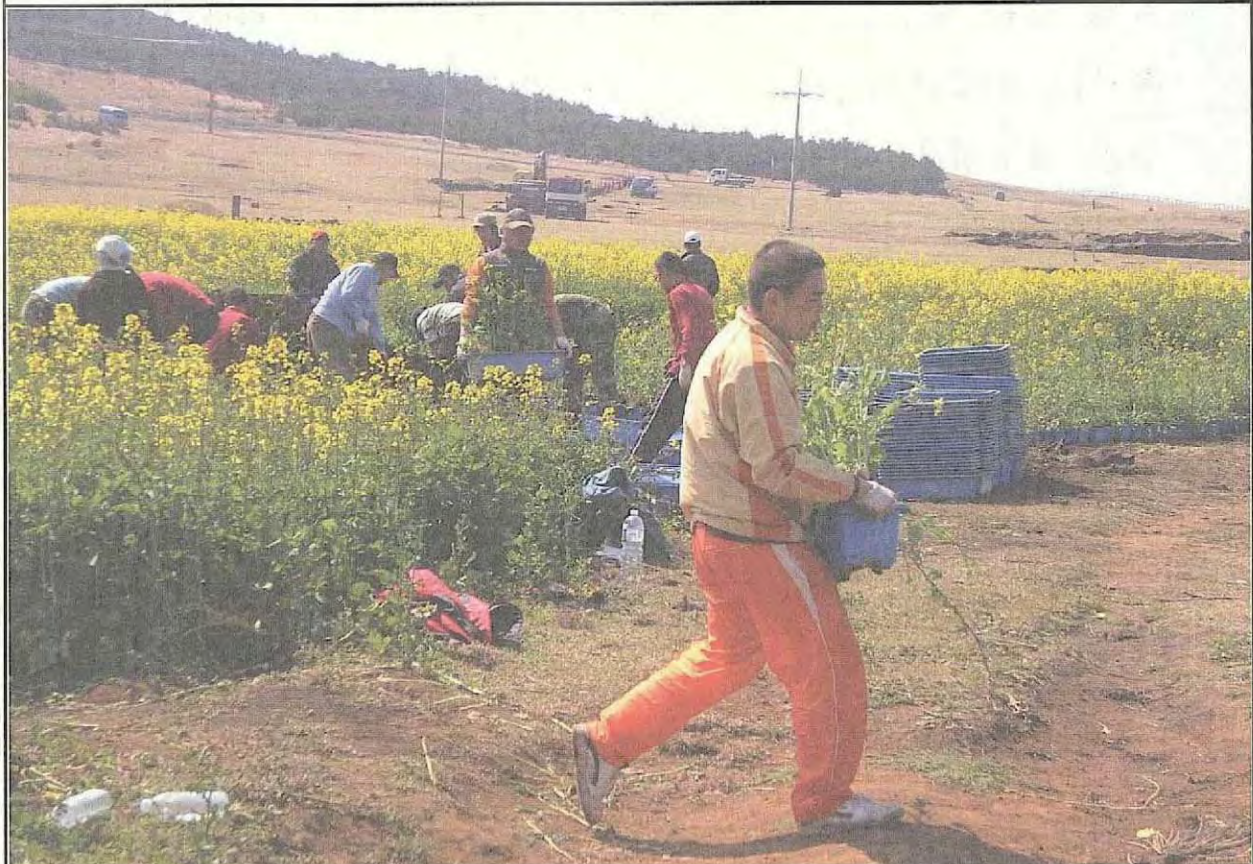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 토지소유자가 장기 해외체류를 하고 있거나 임차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등 임대계약이 어려운 경작지에 대하여 마을대표 및 영농회의 실경작확인서로 사업대상지 확인 절차를 같음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있음.
- 수해 또는 폭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경관작물 피해시 이에 대한 복구는, 농업인들에게 단시일 내 재조성이라는 시기적 부담도 크지만 경관 재조성을 위한 비용부담도 크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관련 현장사진



유채꽃이 만발한 우도 전체의 모습



경관조성 면적 중 일부 불량한 곳에 보식을 하는 모습



유채꽃잔치 축제 행사기간 중 우도를 찾은 관광객들



유채꽃밭에서 즐거워하는 관광객들

여 백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

2006. 11.

한 국 농 촌 공 사
농 어 촌 연 구 원
업 대 호

여 백

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구 분	위 치	참여자수	면 적(ha)	경관작물	사업비(천원)
계	2개 마을		14.6	2종	33,855
국비지원	상주면 두모	32	5.2	메 밀	13,000
	"	32	5.2	유 채	13,000
경남자체	상주면 임촌	12	1.0	유 채	2,500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구 분	위 치	경관작물	면 적(ha)	파종	수확
계	2개 마을	2종	14.6		
국비지원	상주면 두모	메 밀	5.2	'06.8.16	'06.11.1
	"	유 채	5.2	'05.11.10	'06.6.12
경남자체	상주면 임촌	유 채	1.0	'05.11.14	'06.6.12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2,500천원
-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1,310천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경관작물 식재을 위한 경운, 파종, 수확 및 정리 작업을 마을주민 공동으로 수행
- 경관보전직불에의 홍보를 위한 프랜카드 등 설치
- 경관농업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공동 판매
-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 유채개화기에는 갯매기 축제를 마을공동으로 개최하여 사진촬영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음식물 판매 행사 등을 실시

2) 면담내용

□ 사업추진 주민 의견

- 두모지구의 경관작물 경작에 관한 투입 인력, 농기계 및 재료비 등의 비용에 대한 마을이장과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소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음.
- 메밀재배 소요비용

작업		단가(천원)	수량	작업일수	금액(천원)	비고
경운작업		250	4대	4	4,000	트랙터
풀베기작업		150	12대	5	9,000	예치기
파종	소 계				1,800	
	종자대	5	300kg		1,500	
	파종	150	1대	2	300	살포기
시비	소 계				1,440	
	비료대 (복합비료)		80포		740	
	시비	150	2대	2	600	살포기
	비료운반				100	인력
수확	소 계				1,100	
	콤바인	200	1대	3	600	콤바인
	인력	30	10인	1	300	인력
	경운기	100	2대	1	200	경운기
합 계					17,340	

- 주민들의 노동력 투입비용을 포함한 메밀재배의 총 소요경비는 17,340천원으로 밝히고 있음
- 수확물은 강원도 평창 봉평으로 보내어졌으며, 택배비용으로 10만원 들어갔음. 수확된 메밀은 총 1300kg정도이며, 600kg은 3000원에 봉평으로 판매를 하였고, 그 중 200kg은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 타 마을에 보내졌으며, 마을자체적으로 마을방문객들에게 kg당 3000원에 약 25kg을 판매하여 8만원을 벌어들였고, 나머지는 다음 해 종자로 확보하였음.
- 유채재배 소요비용

작업	단가(천원)	수량	작업일수	금액(천원)	비고
경운작업	250	4대	4	4,000	트랙터
파종	30	4인	2	240	인력
시비 (복합비료)		100포		1,000	인력
유채축제 홍보비	소 계			2,350	
	현수막	50	2개	100	
	플베기	150	5대	2,250	예치기
합 계			7,590		

- 주민들의 노동력 투입비용을 포함한 유채재배의 총 소요경비는 7,590천원으로 밝히고 있음
- 씨앗은 목포시험장에서 40kg, 자체적으로 30kg을 생산하여 총 70kg을 사용하여 종자구입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음.
-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 수확물을 거두지 않았으므로 소요경비에 수확경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음해의 씨앗은 진주농업원예원에서 공급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종실을 수확하지 않아도 되었음.

- 메밀 경작 시 유채가 발아하여 잡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채를 빨리 제거해야하므로 씨앗이 여물기 전 4월 27일에 유채를 베었음.
- 4월 15일 갯매기 축제 때 축제행사를 위해 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체험마을의 주요체험은 선상체험, 조개체험, 농사체험 등이 있음.
- 두모마을의 총가구수는 81가구이며, 그중에서 민박은 9가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박을 운영하는 가구는 5백만원에서 9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이 마을의 소득은 농업소득, 어업소득, 축산업 소득, 그리고, 농외소득으로 공사장에 인부로 일을 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구성된다. 농업소득은 평균 800평에서 1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어 평균 5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어업을 하는 가구는 14가구로 평균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소를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되는데 연간 몇 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그리고, 주변의 토목,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신체가 건장한 사람은 공사장에서 하루별이로 한달에 15일 정도 일을 하며, 하루 일당은 8만원 정도라 한달에 1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공사장 인부가 모자라는 형편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 마을에 지원되는 경관직불금은 25백만원정도가 되므로 한번에 5-6십만원 적자가 발생함.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이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콤바인 작업을 하는 사람은 1백만원, 예치기 작업을 하는 사람은 7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일부 벌어먹을 수 있어 일정부분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올해 경관직불제 시행으로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은 1만명 정도로 메밀꽃이 피었을 때는 7-8백명 정도 유채개화기는 25-30일 정도이므로 4천명 정도 방문하였음.

- 유채개화기에 맞추어 갯매기 축제를 하루동안 했는데, 많은 방문객이 왔다 갔음. 내년에는 갯매기 축제를 1박 2일 동안 할 계획이며, 토요일 오후에 유채음악회, 사진촬영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다음날에 갯매기 축제를 할 계획임.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한 이 마을의 독특한 갯매기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간다면 체험방문객들이 늘어나 마을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마을대표의 의견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더불어 체험관광객들의 증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바가 큼. 그런데, 직불제 단가가 적은 편이라 50만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물론 콤바인 및 예치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와 노동력을 제공한 농가에게는 일정부분 도움이 되지만 경관보전직불금이 작아 직불금으로 인한 실제적인 소득증대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는 형편임.
- 경관직불제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논두렁 풀베기, 나뭇가지정리, 수로정비 등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의 지원도 필요함.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 주차장, 촬영장소, 원두막, 음식판매장 등 방문객들에게 불거리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마을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촌관광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7-8년간 휴경지였던 본 지역이 아름다운 메밀꽃과 유채꽃을 볼수 있는 경관농업관광지로 변모하게 된 것은 경관보전직불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본 지역은 경사지라 경작비용이 많이 들고 적정 작목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 한 동안 휴경지로 방치해 놓음으로서 잡풀만 번성하여

마을주변 경관도 좋지 않게 되어 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적은 편이었음. 본 마을은 앞으로는 바다가 있어 푸르른 바다경관이 일품이고 뒤로는 산이 있어 산림 경관이 좋은 편이었으나, 농업경관은 형편없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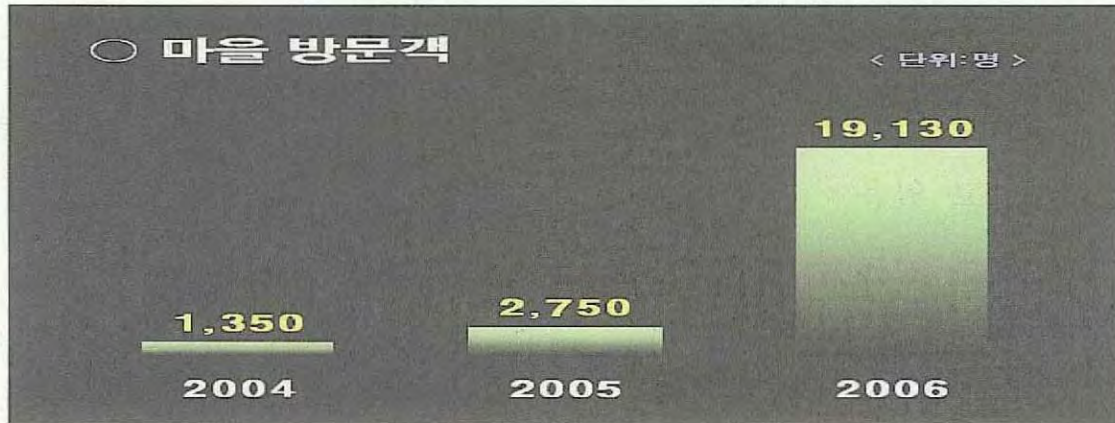
- 그런데, 2006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가을에는 메밀꽃을 볼 수 있어 메밀꽃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어 사진작가 등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 전체적으로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음.
- 이렇듯 직불제는 새로운 경관농업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이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을 창출하고 창출된 경관으로 인해 방문객이 증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임. 본 지역은 이러한 경관직불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경관직불제의 시행도 모범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과측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지역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운작업, 시비작업, 수확등 경작에 관한 작업상황과 소요비용 등을 마을이장을 통해 청취하여 정리하였음.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단가 산정과 지원방향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향상 효과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방문객은 2,750명에서 19,130명으로 급증하였으나, 농가소득에는 아직 큰 기여를 못하고 있음.
- 아름다운 유채꽃을 보러 사진작가들이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통

하여 많은 홍보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방문객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부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마을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측면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방문객은 증대했으나, 마을소득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증대에는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체험마을운영으로 12백만원 정도의 매출과 5백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거두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로 메밀과 유채를 재배하여 정서 순화 및 감성적 추억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는 옛날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심미적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집단화된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창출은 많은 관광객의 유인을 하는 효과가 있음
- 이 지역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경관을 가지고 있어 집단화된 꽃경관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해변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특유의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기여하고 있음
- 이 지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경사지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력이 부족하여 휴경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휴경화에 따른 주변경관의 훼손,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휴경화된 농지를 복원하여 경관농업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함과 동시에 농업적 활동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협약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나면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경관작물 식재를 위한 경운, 파종, 수확, 주변정리 등을 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마을 협동 정신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욕과 함께 공동체 의식, 협동심, 단결력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이 마을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로서 경관직불제 활동을 농촌체험관광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단결심과 의욕은 농촌마을의 운영이 활성화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현재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1ha당 2,500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더 많은 지원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유채의 경우는 현재의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자운영의 경우는 유채보다 경관창출효과 및 관광객 유인효과가 적고, 식재 및 경작, 관리가 쉬워 대부분 자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원단가의 차별화가 필요함
- 현행 지원수준은 작목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그 이유는 지역별 특성, 작목별 경작비용,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 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재배작목이 달라 지역별 지원 단가를 달리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 제도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점이 많음. 지역별 차별화는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상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추가지원 할 여력이 되지 않아 더욱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예산 지원과 연계한 제도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제도의 지원수준은 WTO협정문에 근거한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로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보전계획에의 일환으로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특정조건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수준에 대한 검토도 이러한 제도 시행의 근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경관작물 식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전을 위해서는 1ha당 3,000천원(평당 단가 : 1,000원)의 지원이 필요함
 - 평당 단가 : 1,000원(평당 순소득의 45%)
 - 남해군 예상소득(2모작) : 2,243원(조수입 - 경영비- 자가노력)

(단위 : 천원)

작목	수량(kg)	조수입(A)	경영비(B)	자가노력(C)	소득(D)	순이익 (A-B-C)
계		2,990	1,279	1,038	1,711	673
벼	560	749	295	122	454	332
마늘	1,317	2,241	984	916	1,257	341

※ 2006년 농산물 표준소득(남해군, 300평 기준)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이 지역은 2005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로 경관보전직불제 효과가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가을에는 메밀꽃, 봄에는 유채꽃이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진작가 등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음. 섬 지역으로서 바다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밀과 유채가 좋은 작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 본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바다체험중의 하나인 갯매기 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된 유채경관을 창출하기에 적절한 지역으로서 체험축제와 연계하여 시행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증대될 것이므로, 유채, 메밀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요구되는 지역임.
- 남해는 섬지역으로서 남해대교를 통해 섬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 유채 재배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음. 이 지역은 여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심각하므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경관작물의 경작, 관리가 요구되므로 유채등 특정 작목의 확대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수확 비용 절감으로 경관농업의 원만한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지역은 야생화의 재배도 고려할 수 있으나, 씨앗 비용, 경작비용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야생화 재배로 일정한 소득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몰라 야생화를 경관작물로 재배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작목별로 생산비용, 소득 발생 여건, 지역에 기여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할 필요는 있음. 각 지역별로 어떤 작목을 심는데 얼마의 지원이 필요한지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농촌경관은 마을경관, 농업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므로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은 경관농업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경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은 경관농업이라는 큰 농업의 한 분류를 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했음. 경관농업을 통해 그린투어리즘과 연결시켜 농가소득 및 지역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경관보전직불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음.

- 여타 경관자원에 대한 지원도 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개보수사업 등 사업형태로 지원을 할 수도 있으며, 경관협약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지원될 수도 있고, 직불제 형태로 개별 농가에 지원될 수도 있음.
- 본 제도는 경관이라는 다원적 기능 창출을 위해 자신의 기존 소득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정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는 모든 자원에 대해 지원을 할 수가 없음. 따라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다원적 기능을 높일 수 있고, 다원적 기능 증진에 필요한 비용과 기존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창출로 어메니티를 증진시켜 도시민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치를 지불받아 마을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마을 주변 지역의 환경을 잘 가꾸는데 필요한 비용, 마을내 전통 돌담 등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도 본 제도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제도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 점 및 개선방안

- 대상지 신청시 마을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문서의 간소화 필요
- 보조금 지급 방법은 농가별 개별 지급하는 경우와 경관보전직불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는 경관

보전직불 추진위원회로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작물 식재와 관리에 있어서도 농가별 고령화로 개별적으로 농작업과 경관관리가 어려우므로 마을단위로 공동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마을공동으로 직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불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지역과 같이 다락논들이 많고 집단화된 농지가 적은 지역은 집단화 규모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와의 연계 및 마을방문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주변으로 경관작물식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단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작물을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원수준의 상하한선만 설정하고, 지원수준, 재배면적, 경작비용, 발생 소득, 마을활성화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 받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감독·지도하는 방안도 하나의 사업 방안이라고 사료됨.
- 유채, 야생화,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에 대한 소득, 생산비, 재배기술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관작물에 대한 연구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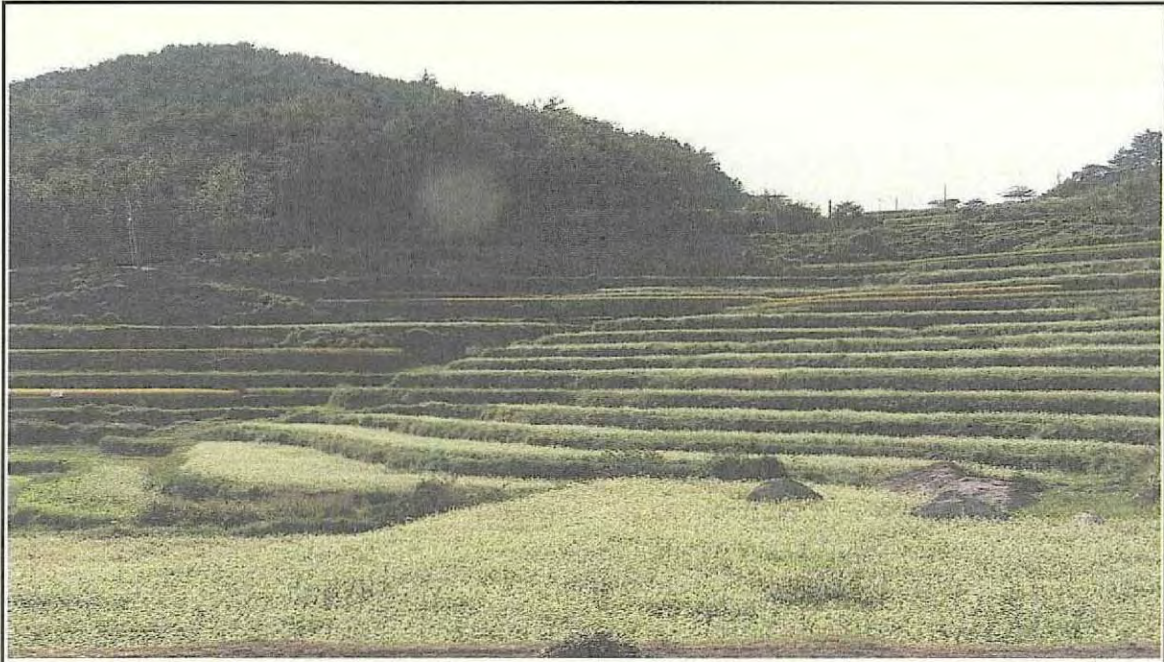
5) 관련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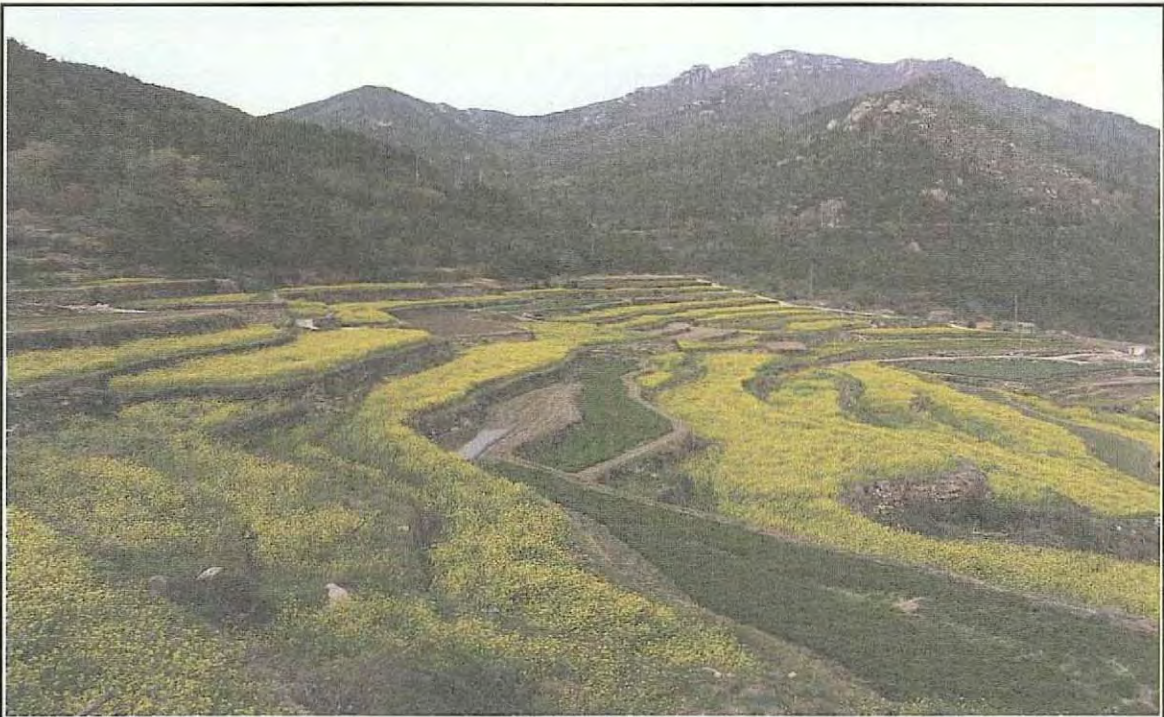
작 목 : 메밀,유채	경운작업
면 적 : 5.2ha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작 목 : 메밀,유채	경운작업
면 적 : 5.2ha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작 목 : 메밀,유채	메밀경관
면 적 : 5.2ha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작 목 : 메밀,유채	유채경관
면 적 : 5.2ha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10.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위 치	신청자수	참여자수	참 여 농가수	참여면적 (m ²)	경관 작물	비고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남사마을	16	16	16	54,360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 2006. 10월(벼 수확전 유채종자 파종)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2,500천원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1,310천원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 및 참여농가 신청서 작성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참여신청(2006. 3. 22)
- 산청군과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체결(2006. 8. 2)
- 유채종자 파종 및 시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2) 면담 내용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남사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한달에 2000명정도가 방문을 하나, 현재는 소득과 연결이 잘되지 않고 마을을 둘러만 보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임.

- 6월 2일에는 프랑스 대사관 부인이 외국인 30여명과 방문을 하여 차 한잔을 먹고 갔음.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가옥, 문화에 관심을 많이 보임
-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기 때문에 이장, 사무장 등 마을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바쁨. 그런데,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군에 요청만 하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나와 해설 및 안내를 해주고 있으므로 체험마을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문화관광 해설사는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을 지급 받음
- 민박을 하는 농가는 7가구인데,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가구는 1가구이고 나머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겸업으로 하고 있음.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일정 소득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득이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여름철에는 휴가객들이 많아 숙박율이 높음. 평균적으로 5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여름철이 아닐 때는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을 구경만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 소득으로 연결이 잘 안됨
- 이 마을의 총가구수는 140가구로 80%이상이 70세이상의 고령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50%정도가 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60세미만은 10가구 정도 밖에 안됨
- 이 마을의 소득은 벼농사, 딸기 농사 등 농업소득임. 축산 농가는 없음. 청정 딸기 생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10농가 정도로 몇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그리고, 농지 소유면적이 적어 농사를 지은 소득은 평균 1천만원 미만으로 생각됨
- 고령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5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마을 전체적으로 소득이 적어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해 민박 가구 7가구를 제외하고는 방문객

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부녀회에서 참여하여 인건비를 벌어들여주고 있으며, 재배한 딸기를 직판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미미한 실정임

- 이 마을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작목으로는 유채가 좋으나, 재배기술이 모자라 잘 되지 않음. 습기가 많은 곳이라 이곳에는 앞으로는 자운영을 재배하고 습기가 적은 마을 앞과 부근에 유채를 재배하면 마을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나, 집단화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움. 최소 집단화 기준을 완화하여 마을 주변 공한지,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농지에 유채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해주면 좋겠음
- 면적이 적은 200평에서 500평 정도 되는, 소출이 적게 나는 농지에도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어 마을 경관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이 요망됨
- 이 마을에는 전통돌담이 많은 마을임. 이번에 돌담이 일부 붕괴되었는데, 이 마을 돌담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복원하는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군을 통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복원에 문제가 없음. 그런데, 주변의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평소에 돌담을 수선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농림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 마을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꽃나무, 경관수 등을 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마을내 또는 부근에 나무를 심어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쉼터조성, 마을꽃길조성 등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 이 마을옆에는 마을 숲이 있어 경관이 좋으나, 유실되어 보기 좋지 않은 곳이 있으나, 마을숲은 산림이라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 이 마을에는 폐가가 일부 있음. 폐가로 인해 마을의 경관이 흉해지고 있으므로 폐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폐가를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이 자기네 조상이 살았던 곳이라 오래 보존하고 싶으나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그냥 방치하게 되고 그래서 보기 흉한 폐가로 되어버려 마을 경관을 해치게 되므로 마을내 빈집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면 마을경관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됨
- 이 마을에는 최씨고가, 이씨고가, 오래된 고목, 돌담 등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아 손상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이 되나 평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잡초가 나고 손상이 되고 있음. 그래서 평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잡초제거, 수선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화는 가을에 심어 꽃길을 조성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므로 꽃길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재배를 통해 묘종을 길러야 하는데 묘종 재배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경관직불제는 소득사업과 관련한 작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꿀, 음식 등의 가공품을 판매를 통해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손해를 보고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
- 여름철에는 메밀이 괜찮은 작물이나 소득이 벼, 콩 등과 못하기 때문에 벼, 콩 등을 심지 않는데 대한 손실 보전을 해줘야 여름철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임. 그래서 봄에는 울옥수수를 심어 수확을 빨리한 후 가을 메밀을 심게 되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일부 소득도 되면서 경관효과가 좋은 작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유채의 경우 종실을 수확하여 기름용으로 팔 수가 있으나, 그렇게 되면 벼 경작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종실 수확은 계획하지 못하고 있음. 벼 경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경작해야 할 것임.
- 올해 유채 파종은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10월 중순에 유채를 파종하였음. 그런데, 일부 지역은 보통 작황을 보였으나, 나머지는 작황이 좋지 않음. 작황이 좋지 않는 이유는 배수 불량으로 토양의 통기성이 좋지 않아 발아 및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것 같음. 벼를 수확한 후에 경운작업과 배수 처리작업을 한 후에 파종을 하면 유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지역에서 유채를 재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작황이 좋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모름.
- 지역별로 유채 재배 기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유채재배 요령 등을 발간 보급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본 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과는 곧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농촌관광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농촌관광소득은 농특산물판매, 음식판매, 체험, 민박 등이 있으나, 본 마을 방문객들은 많으나 이러한 농촌체험관광 소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아름다운 경관도 보고, 경관농업으로 수확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 마을에는 전통고가, 담장이 많아 옛날 역사전통을 느낄 수 있어 앞으로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방문객을 위한

방문자센터, 휴식공간, 볼거리, 체험거리, 판매를 위한 특산물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옛날 전통가옥을 보전관리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요망됨.

- 경관작물 중 유채의 경우 파종시기 및 기후여건 등에 따라 작황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대상경관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이 마을의 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을 개발하여 재배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됨
- 본 마을과 같이 마을부근에 경지면적이 적은 산골마을에서는 3ha이상 집단화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관대상 작물의 다양화와 함께 단지별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경작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남사에담촌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탐방객 증가로 농가소득 활성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마을은 마을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딸기 등 특화된 농특산물의 판매, 추가적인 농특산물의 가공품 개발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원의 개발이 요구됨.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가 농촌체험마을 인근 지역으로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한 방문객 등에게 어메니티를 증진시켜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여 경관농업체험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영농작업에 마을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아름다운 유채 경관조성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 방문객의 체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마을은 전통가옥, 돌담, 고목 등의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한 마을로 최근에는 외국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자원의 보전 및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경관보전 직불제 시행에 의한 농특산물의 개발, 아름다운 경관농업 연출, 경관농업과 연계한 축제, 음식시설, 숙박시설, 체험시설, 쉼터, 휴양시설 등의 농촌관광기반시설의 확충도 요구됨.
- 본 마을이 보유한 전통문화자원 등 어메니티자원과 함께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관농업 육성으로 전통어메니티 자원과 경관농업이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마을을 연출할 수 있어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남사예담촌, 도지정 문화재인 최씨·이씨 고가, 700여년 된 매화나무 등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어우러져 경관보전 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유채 경관은 농촌어메니티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이 마을의 전통돌담은 특색있는 경관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가 필요하며, 전통돌담과 어울리는 마을의 경관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을 주변의 농지에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부의 빈집, 폐가 등의 경관에 해가 되는 요소에 대한 지원으로 마을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전통문화와 경관농업이 결합된 마을 경관을 조성하여 농촌어메니티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본 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월 평균 3,000명의 방문객이 마을방문을 하고 있어 이러한 방문객의 안내, 체험행사, 음식제공 등을 마을 공동으로 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잘 함양되고 있음

- 체험마을 운영과 연계하여 경관작물 식재, 관리 등도 마을 공동으로 시행을 했으며, 공동 작업을 위한 경관직불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잘 시행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 재배기술에 대한 공유,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등을 협동으로 함.
- 참여농가 전체의 경관작물 식재 참여, 영농작업을 위한 협의회 개최, 농촌체험관광 활동과 연계한 공동체 활동 등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함.
- 마을 앞에 위치한 경관직불 대상지에 유채 경관의 조성은 방문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증가된 방문객으로 민박 수요 증가, 음식체험 및 농특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마을의 농가 연령구조를 보면 70세 이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60세 미만은 10%정도밖에 되지 않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농민이 부족하고, 기초생활지원대상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평균소득도 낮아 마을 활력이 떨어져 있었으나 체험마을사업 시행으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체험마을의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포함)

-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종자구입비, 경운, 파종, 시비 등)를 감안하여 지원금액이 부족한 상황임. 그런데, 공한지 등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에 화훼류의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충분하나, 벼, 콩 등의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소득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경관작물을 재배하기에는 턱없이 지원금액이 부족함.
- 현재는 재배작물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

하고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경남도의 경우 70만원을 추가하여 250만원(ha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하절기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기에는 크게 부족함. 소득작물과의 손실 차이를 전부 지원한다면 보조금을 과다지급 할 수도 있고, 작물에 따라 만족도가 큰 차이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작물별, 재배시기 별로 차별화가 필요함.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전부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 활성화 정책임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작목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됨.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작목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어 더욱 불균형을 유발 할 수 있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급방법은 각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의한 추진위원회에 일괄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개별지급을 요구할 경우는 개별로 지급하고, 추진위원회에 일괄지급을 요구할 경우는 일괄지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임. 농가 개별지급은 개별적으로 영농관리를 하는 경우이고 추진위원회 일괄지급은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영농작업을 할 경우임. 공동의 영농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나, 참여농가의 불만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여농가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지급시기는 경관작물의 수확후 관리를 포함하여 전 과정에 대한 점검 후 지급하는 것이 경관직불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작물기준 등)

- 본 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 전통문화어메니티 자원이 많아 방문

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다른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며 딸기외는 특별한 농특산물이 없어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않고 있음. 아름다운 볼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방문객의 유도, 숙박 및 체험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관보직불제 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임.

- 직불제는 면적기준 지급과 작물기준 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있음. 본 직불제는 면적기준 직불제로 ha당 지급단가를 지급 하나, 작물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아 유채, 메밀, 자운영 등의 작물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적기준에 의한 작물별 차별화된 지급단가의 설정이 필요함.
- 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집단화기준의 완화와 함께 화훼작물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대상작물의 확대가 요망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대상작물은 경관조성 및 농업소득증대가 동시에 가능한 작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에 소득 작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화훼류는 경관조성 효과가 뛰어나므로 지원 가능한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본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경관창출효과가 높은 화훼작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 다년생 작물이면서 화훼작물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경관조성 효과가 높으면서 그러한 경관조성 효과로 인해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의 확대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현재는 경관작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빈집, 폐가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잡초제거, 하천

및 수로 정비 등의 마을환경정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촌경관자원은 역사·문화경관자원, 농업경관자원, 농촌마을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WTO 협정 등 국제적 약속 사항에 어긋나지 않고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 OECD국가로서의 신의 등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2005년과 2006년도에는 자운영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는 자운영을 포함시킴으로서 자운영에 집중하여 신청을 하였음. 자운영은 경작하기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똑 같은 직불금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자운영만 재배할 것임. 자운영은 이미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시행이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에 포함하여 여타 작목과 같은 단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지원을 한다면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경관보전직불제로는 다른 화훼작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직불제 대상 작목 중 메밀은 지원수준 측면과 효과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유채는 재배기술의 미숙과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황이 좋지 않는 지역이 발생함. 재배기술의 전파와 지형과 기후에 맞는 작목 선정으로 남부지방에서는 훌륭한 경관작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운영에 비해서는 경관조성 효과와 관광효과가 뛰어나므로 남부지방의 유채는 적절한 경관작물로 판단됨.
- 목화의 경우는 재배기술이 미숙하고, 재배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참여지역이 없을 것 같고, 코스모스의 경우도 벼 등 소득작목을 재배하지 않고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손실이 과다하여 참여지역이 매우 적을 것임. 해바라기의 경우는 태풍으로

-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관조성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기상의 영향을 고려한 재배기술로 재배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소요로 참여가 제한적일 것임.
- 야생화의 경우는 재배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여타 소득작물을
심지 않고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손실에 대한 부담이 있음.
야생화재배로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 좋은
대상작목이라고 사료됨.
 - 이번 모니터링에서 남사마을과 같이 유채 작황이 좋지 않는 지역이
일부 있어 작황상태를 고려하여 경관직불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작황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예, 개화가 50%미만인 경우)는
50%만 지원을 한다든지 작황상태를 고려한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
한다면 식재, 경작,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경관직불금의 지불시기는 개화기 때 점검을 한 후 지원을 하도록
하여 지급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작황이 좋지 않아도 지원을
받는다면, 재배관리에 소홀히 할 경우가 많으므로 직불금 지원조건을
작황상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지원수준은 작목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작목도 화훼류와 다년생작목을 포함하여 소득이 되지 않아 현재
재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경관창출효과가 뛰어나고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재배가능한 작목에 대해서는 경관직불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작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화 규모에 있어서는 중산간지의 농지는 연접하여 1ha이상을 재배
하기란 어려움이 많으므로 평야지대와 중산간지역을 구분하여 집단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단가는 유채, 메밀의 경우는 현행 지원수준으로 적당한 것 같고,
자운영의 경우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하고 본

사업에 포함시킨다면 푸른들가꾸기 사업 수준의 지원이 바람직함.
여름철에 성장하는 작목은 여름철에는 벼, 고추, 콩 등 소득작목을
심지 않고 경관작목을 재배하기 때문에 경관작불제 참여 유도과 본
제도의 취지인 소득손실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지원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5) 관련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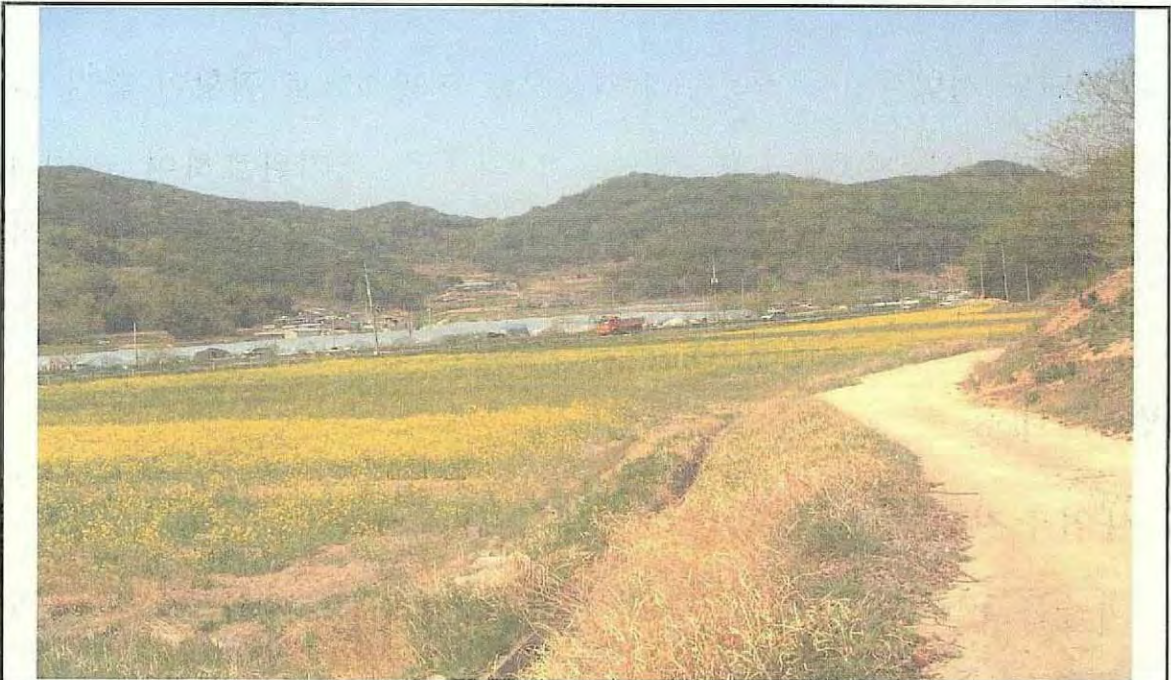
작 목 : 유채	파종전경
면 적 : 5.4ha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작 목 : 유채	유채 밭아 상태(밭아 상태가 좋지 않음)
면 적 : 5.4ha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작 목 : 유채	유채 개화 전경(작황이 좋지 않는 부분)
면 적 : 5.4ha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작 목 : 유채	유채 개화 전경(작황이 일부 좋은 부분)
면 적 : 5.4ha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11.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위 치	신청자수	참여자수	농가수	면적(m ²)	작물
쌍림면 산주리	16	16	16	52,628	유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06. 10. 20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없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변경관 보전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 사업 추진
 - '05년도 시범사업시 경북도내 가뭄으로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음.
 - 사업추진시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파종을 조기완료하여 초기작황은 좋았으나 겨울가뭄이 심하여 현재 작황은 좋지 않은 상태이며, '07년도 사업신청시 자운영 재배를 희망하고 있음.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파종은 10월 20일경에 했으며, 씨앗은 면사무소에서 제공을 받았음.
- 경운작업은 경운기와 트랙터로 시행을 하였으며, 경운기가 있는 가구는 경운기로 작업을 하고, 경운기가 없는 농가는 이장이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음. 통상적인 트랙터 작업 비용은 하루에 25만원정도 이나, 이번 작업시에는 15만원만 받고 작업을 하였음. 경운기 작업이 1대가 10일정도 하는 꼴로 하였으며, 트랙터는 1대가 6일정도 한

셈임.

- 경운작업시 소요비용은 자가노력비를 포함하여 6일*25만원, 총 150만원이고, 경운기 10일*8만원일, 총 80만원임
- 그리고, 파종작업은 인력으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렸음
- 씨를 뿌리면서 로타리작업을 하였음. 씨앗은 면에서 2포대(40kg짜리)를 사고, 마을에서 반포대(약20kg)를 구하여 뿌렸으므로 총 2.5포대를 뿌린 셈임
- 작년에 보다 더 작황이 좋지 않으며 작황이 좋지 않는 원인으로는 종자가 좋지 않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됨. 종자가 묵은 종자 즉, 1년 이상 경과된 종자를 파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종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됨
- 파종작업은 경운작업 후에 로타리를 치고 씨를 뿌리고 일정부분 흙이 덮이도록 하기 위해 로타리를 쳤음. 그러다보니 얇게 묻히는 부분도 있고 깊게 묻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함. 얇게 묻히는 부분은 11월에 발아가 되어 새파랗게 올라왔으나 1월에서 2월 경에 시들어 버렸음. 시들어 버린 이유는 천수답이라 용수공급이 잘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뭄피해를 받았으며, 그리고 겨울에 추위 때문에 동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가물면서 추워서 유채가 죽었다고 생각됨.
- 그런데, 얇게 묻히는 부분은 겨울에 죽었지만, 깊게 묻힌 부분은 5월 15일부터 10일정도 개화가 되었음. 상당히 많은 유채가 개화되어 5월에 방문한 체험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음. 그래서 씨앗의 문제도 있지만, 파종 후 약간의 흙을 덮어줘야 하는데, 덮는 흙의 두께가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얇게 덮인 것은 11월에 발아하여 1월에 얼어 죽고, 깊게 덮인 부분은 늦게 발아하여 5월에 개화가 되었음.
- 따라서, 유채는 씨앗의 상태, 파종후 씨앗의 묻히는 정도, 용수공급

등에 관한 재배기술이 있어야 잘 개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본 지역은 땅의 비옥도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벼 농사도 잘되고, 퇴비를 하여 지력을 좋게 만들기 때문임.
- 시비는 요소 20포대(1포대당 9,800원)를 뿌렸으며, 약간 뿌린 정도로 생각됨
-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농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경종 작업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쉬움과 실망감이 큼.
- 본 대상지는 과거에는 보리를 심었으나, 요즘은 보리 수매도 하지 않아 약 10년간 동절기에는 작물을 심지 않고 땅을 놀렸음.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유채를 재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면서 공동으로 영농작업을 함에 따라 마을공동체 함양에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됨.
- 금년에 늦게 핀 부분도 상당히 보기 좋은 유채경관을 연출하여 체험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효과라고 생각됨.
- 이 마을은 총 81농가로 체험마을에 참여하는 농가는 50농가임. 81농가 중 60세미만은 13농가, 50세미만은 4농가로서 대부분 노령층으로 농사일을 할 인력이 없음.
- 체험마을사업은 비영농기에 음식제공, 체험참여, 농산물 직판 등에 참여하여 일정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소득 향상과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총 180명 정도가 다녀가 총매출로는 5백만원 정도이며, 순이익만 따주면 150만원임. 농민들이 참여하여 참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높은 가격에 판매도 하고, 농사체험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로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 경관보전직불제는 이러한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해 5월에 방문한 체험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가 되어 훌륭한 사진촬영장소가 되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작년의 경험을 살려 파종시기도 앞당기고, 씨앗도 충분히 확보하고 경종작업과 비배관리도 잘하여 재배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으나, 작년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아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속단하기가 어려움.
- 산간지역이라 기후 측면에서 겨울 추위가 남해, 제주도 등에 비해서는 심했으며, 천수답지역이라 용수공급도 부족하였고, 경작 및 재배 기술도 경험이 없어 시행착오를 겪다보니 작황이 좋지 않았는가 생각됨.
- 본 마을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 유채를 재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06년도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몰라 또다시 유채를 재배하기가 곤란하여 올 가을에는 자운영으로 재배작목을 변경하여 추진 할 계획임.
- 이 지역의 곡물은 고추, 깨, 콩 등으로 겨울에 재배하기에 적당한 작물을 개발하지 못했으므로 자운영 또는 유채 작물을 경관작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됨.
- 봄에는 곡물류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봄과 여름작물로서 경관직불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물 소득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임.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일정 부분 홍보가 되어 체험객의 증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됨. 그리고 본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올 3월에서 5월까지 180명이나 다녀가 매출로는 5백만원, 순수익으
로는 150만원을 벌어들였음.

- 경관보전직불금으로는 씨앗구입비용과 경운작업, 파종작업, 시비 등에
쓰여졌으나, 상당한 부분이 자가 노력비이므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경관보전직불제가 경관창출로 인한 다원적 기능
증진과 함께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
므로 작황이 불량하여 좋은 경관은 창출되지 못했으나, 일정부분은
경관효과가 농촌체험객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직불금으로 인해 겨울
영농작업을 농민 스스로 자가노력으로 행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직접 기여했다고 판단됨.
- 본 대상지는 보리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겨울철에는 휴경을 하고
있었으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동절기 작물을 영농함으로써
농가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본 대상지는 천수답으로서 10년간이나 동절기에는 방치한 상태로
두어왔으나 경관직불제 시행으로 동절기에도 영농을 하여 경관농업을
할 수 있어 영농활동으로 다원적 기능 증진에 큰 도움이 되며 농촌
어메니티 창출에도 기여를 함.
- 유채등 경관농업은 경관조성으로 농촌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체험객
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어 향후 새로운 농업분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본 지역의
사례가 하나의 시범사례로서 경관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농업적 활동을 함으로서 농촌어메니티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단지 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물의 재배 상황도 중요하지만 농업적 활동 자체가 농촌어메니티의 증진에 대한 영향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본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연 1,500명정도의 방문객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으며, 체험마을의 운영에 있어서 81가구 중 50가구나 참여를 하고 있어 마을사업 추진에 협력정신이 양호한 마을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번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경운, 파종, 시비 등 영농활동을 경관직불대상자 모두 참여함으로서 마을주민 간의 단합과 협력, 일체감을 조성하여 마을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본 마을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으로서 힘든 농작업, 육체적 막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태이나, 트랙터를 소유한 이장이 유지비 정도만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트랙터 작업을 해줌으로서 부녀자만 있는 가구도 함께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땀을 흘림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마을 주민의 단합이 잘되어 체험마을사업 추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포함)

- 지금까지 약 10년간 동절기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었던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급단가로도 경관직불제 참여를 할 수 있으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시기에 경관작물로 대체 경작을 하기에는 지급단가가 부족한 실정임. 지급단가를 작물별로 재배 시기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다양한 지급단가를 작물별로 정하는 것도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지역과 같이 천수답지역이면서 겨울에 기온이 낮고, 우량한 종자의 구입이 원만하지 않아 작황이 불량한 경우는 사업효과가 적게 나타났으므로 지역의 기후, 지형, 용수공급 상태 등을 고려한 경관작물의 식재가 요구됨. 지역을 특성을 고려한 경관작물의 선택을 위해서는 경관작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영농경험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콩, 보리, 고추 등의 전통적인 밭작물에 대한 영농경험밖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음. 경관작물에 대한 영농지도, 재배기술 전파 등을 위한 지도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불금의 지급은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추진을 공동으로 할 경우는 지급된 직불금을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거둬야 하므로 공동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개별 지급과 추진위원회 공동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지침에는 농지에 한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목상 임지인데 현행 밭으로 경관작물을 심을 경우는 대상지에 포함되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음. 대상지를 현행 농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목상 임지나, 대지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로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대상지에 포함시킨다면, 휴경화로 인해 경관이 나빠지는 지역에 대해 보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작물기준 등)

- 본 지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시행 지역으로서 연간 1,5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어 체험마을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으로 볼거리, 놀거리 등의 체험활동의 수요가 있어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경관이 잘 창출되면 체험마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 지역은 천수답으로 용수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 경관작물의 선택이 요구됨. 2007년도에는 자운영을 재배할 계획에 있으므로 자운영은 이러한 지역에 적합한 작목으로 판단됨. 그리고 화훼류 중 다년생 작물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농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향후 휴경화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지역은 과거 10년전에는 보리를 재배했으나, 수매가 되지 않아 동절기에는 휴경하였음. 쌀시장의 개방으로 쌀값이 하락한다면 쌀 농사도 포기할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그렇게 되는 농지의 황폐화와 함께 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한 작목 개발이 필요하며, 그러한 작목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된다면 그린투러리즘 활성화와 함께 주변의 양호한 경관연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행 제도하에서 시장·군수의 재량에 의해 경관작목을 다양화할 수 있으나, 경관작물에 대한 정보, 재배기술 등의 부족으로 다양한 경관작물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다양한 경관작물의 도입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 매년 경작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적음. 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매년 경작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참여할 가능성이 많음. 작목별 특성을 고려한 경작비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한다면 여타 경관작물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어려우므로 다년생 화훼작물도 경관작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충분한 소득을 올리는 작물외의 화훼류 등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대상작목에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관작물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경관작물 외 확대 해야 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현재는 경관작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빈집, 폐가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잡초제거, 하천 및수로 정비 등의 마을환경정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촌경관자원은 역사·문화경관자원, 농업경관자원, 농촌마을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 지역은 10년간이나 동절기에 휴경을 함으로서 동절기 작물을 재배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을 지금까지는 포기하여 왔으나, 경관보전 직불제 시행으로 동절기에도 일정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그리고 체험마을을 갈등 없이 마을공동으로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된다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유채를 재배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작황이 좋지 않았으며, 오히려 깊게 묻힌 부분은 5월 중순에 개화가 되어 체험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결과를 가져왔음. 유채의 개화시기의 연장을 위해서는 깊게 파종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마을의 사례에서 알 수 있음. 그리고 얇게 묻힌 부분은 겨울에 얼어죽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지역은 씨앗의 파종심도를 깊게 하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사료됨.
- 유채는 일반적으로 척박한 지역에서 잘 자라 이미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지만, 육지에서 재배경험이 적고, 재배기술에 대한 정보도 없어 작황이 좋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채의 경우는 남부지역에 한정하고, 중부지방 위로는 유채를 재배할 경우는 경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작황이 좋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 제주도의 경우 유채, 감귤 등의 아름다운 농업경관 창출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고, 이러한 경관창출은 제주도의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유채를 재배할 경우에는 종실 수매를 통해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고 감귤의 경우는 가공, 유통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음.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농업의 활성화, 아름다운 경관의 창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확대가 요망됨.
- 재배작물의 다양화, 적절한 지원수준의 검토, 농지의 범위를 농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로, 집단화 규모의 완화 등을 통해 현행 경관보전 직불제를 발전시킨다면 여타 사업 보다도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FTA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될 농촌 현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관련 현장 사진



작 목 : 유채	유채 성장 불량
면 적 : 5.3ha	위 치 :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작 목 : 유채	유채 개화
면 적 : 5.3ha	위 치 :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경관보전직불제 '06 시범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

2006. 11.

한 국 농 촌 공 사
농 어 촌 연 구 원
임 창 영

여 백

12.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 신청자수 : 76농가
- 참여자수 : 23농가
- 참여면적 : 108,274m²
- 경관작물 : 유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 종 : 2006년 9월 하순 ~ 10월 초순
- 수 확 : 2007년 6월 중하순 예정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채종포 및 바이오디젤 원료 시범포 : 20.4ha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작황관리 및 관광객맞이 주민 간담회 개최 : 20회
- 우수 사례지 현지 견학 : 1회 20명
- 개화시기 관광객맞이 편의시설 설치 등
 - 간이음식점 활용 쉼터 1개소, 화장실 1개소, 주차장 2개소
- 경관직불제에 관련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농가별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9월 하순부터 주민 스스로 파종을 시작하여 동절기간 중 경관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 올해 6월 경 폐화가 완전히 진행된다면 주민들에 의해 경운까지 추진 예정

2) 면담 내용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이 지역은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아 유채를 식재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주변의 불갑사 및 저수지 등 연계가능성이 큰 관광지를 두고 있어 봄철 관광객 유치에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큼.
- '06년도에는 10.8ha밖에 지원을 못받아 경관보전직불 면적 확대를 많이 못해 경관조성효과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07년 보다 많은 면적이 대상면적으로 지정되어 경관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 올해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방문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크게 겪었으므로 주차공간,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요망.
- 경관작물 지원금 상향조정(2500천원/ha) 및 경운작업비(대형트랙터)지원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영광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재정에 의한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경관직불대상 지역도 확대해 주길 요망.
-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현재 지급단가인 ha당 1,700천원으로는 부족하므로 ha당 3,800천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지원되길 요망.
- 환경을 위해 별도의 비배관리를 하지 않아 농과원에서 재배한 면적에 비해 경관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나 앞으로 보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음.
- 불갑사와 불갑산을 찾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예상

되고, 이러한 경관직불제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을 감안 개화 이후 벼농사 적기 재배가 가능하도록 폐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직불제를 시행하여 동절기 유채를 재배함으로써 인근 불갑사를 찾는 관광객 및 신설저수지를 찾아온 관광객이 연계관광으로서 유채 단지를 견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음식판매 등으로 소득 향상이 진전된 면이 있음.
- 동일한 필지에서 이모작 경관작물 재배하여 소득향상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심미적 경관효과는 어느 정도 거양할 수 있었으나, 주변에 농과원에서 바이오작물로 재배한 유채단지의 경관과 비교하여 비배관리 등의 차이로 인한 경관 우수성이 떨어져 추가 면적 확보나 계속사업으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농과원의 바이오 작물 재배면적을 추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보전직불로 이 지역 특유의 경관형성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청정한 이미지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므로 지역 농산물의 높은 가격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판매량 증대와 함께 농가소득증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지역축제 개최와 더불어 친환경 농특산물을 내방객에게 판매하여 소득증대
- 경관작물 대상지 방문객 추정 및 방문객 호응도 등

- 방문객 추정 : 1일/ 300여명,
- 방문객 호응도 : 불갑사 주변 유채경관으로 볼거리 제공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포함)

- 본 지구와 같이 벼를 재배하는 2모작 지구에는 지급단가를 상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밭지역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시 겉보리를 기준으로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으나 지역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하절기 작물 및 동절기 작물을 재배할 경우 등으로 지급단가를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작물기준 등)

- 본 지구는 면적기준으로 직불금 규모를 3,800천원/ha로 대상면적으로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에 농과원에서 바이오작물로 재배한 유채단지의 경관과 비교하여 비배관리 등의 차이로 인한 경관 우수성이 떨어져 추가 면적 확보나 계속 사업으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농과원의 바이오 작물 재배 면적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기존 경관작물 이외에 농가소득향상과 경관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재용 식물의 추가 지정 등 경관작물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경남 산청 한약재 식재를 벤치마킹)

□ 경관작물 외 확대해야할 농촌경관자원 검토

- 농촌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전·관리가 필요한 경관자원을 선정

하여 관리하고, 마을주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관리활동지원 및 농촌 경관개선지원사업(전통담, 마을경관, 하천환경정비 등) 등을 도입하여 농촌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전통담 : 마을안길의 돌담 및 토담 보존성 보존
- 마을경관 : 전통 한옥, 초가 지붕 보존
- 하천환경정비 : 하천내 갈대를 보존하여 폭우시 유속 조절로 제방 유실 방지 및 가뭄시 수자원 고갈 해결, 하천정화로 하천 생태계 보존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경관직불제 시행지침에는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필지간의 거리가 30m 이내로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일부 농가가 사업을 기피할 경우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필지간의 거리조건을 30m에서 100m로 하던지, 또는 경관적인 연속성이 있는 경우로 지침을 보완하여 경관상의 문제가 없다면 1ha이상의 집단화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작물 식재 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필지별 경관우수성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
- 유채 등은 밀식정도에 따른 경관의 차이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식재시 지도관리에 따른 재배상태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경관이 우수한 밀식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및 최종모니터링 시점의 재배 정도에 따라 직불금의 다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5) 관련현장사진



작 목 : 유채	파 종 : 10월	개 화 : 4월
면 적 : 10.8ha	위 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작 목 : 유채	파 종 : 10월	개 화 : 4월
면 적 : 10.8ha	위 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작 목 : 유채	파 종 : 10월	개 화 : 4월
면 적 : 10.8ha	위 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작 목 : 유채	파 종 : 10월	개 화 : 4월
면 적 : 10.8ha	위 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작 목 : 유채	파 종 : 10월	개 화 : 4월
면 적 : 10.8ha	위 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